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15. 8

동향분석실

머 리 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 10위권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보험산업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는 보험산업에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은 성장위주의 경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기존 고객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옮겨 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후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는 보험소비자의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에게 의미있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설문조사는 기본조사에 해당하는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현황, 정년제, 빅데이터, 주택연금, 노후소득, 연금제도 등이 함께 조사되었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보험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등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 경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조사를 대행해 실시해 준 코리아리서치와 보고서 완성을 위해 여러 모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동 보고서가 보험산업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약 / 1

I. 조사의 개요 / 25

1. 조사의 목적 / 25
2. 주요 조사항목 / 26
3. 조사방법 / 29
4. 표본의 특성 / 30
5. 구분 기준 / 32

II. 생명보험 / 35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 35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47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 66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 70

III. 손해보험 / 106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 106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 116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 134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 139
5. 자동차보험 / 157

IV. 생명 · 손해보험 공통 / 167

1. 실손의료보험 / 167
2. 정년제 / 189
3.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 218
4.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224
5. 노후소득(은퇴, 노후생활) 등의 준비 / 235

■ 목차

6. 연금제도 / 248

7.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 258

| 부록 | 설문지 / 270

■ 표 차례

- 〈표 I -1〉 표본의 특성 / 30
- 〈표 I -2〉 생명보험 상품 구분 및 주요 내용 / 33
- 〈표 I -3〉 손해보험 상품 구분 및 주요 내용 / 34
- 〈표 II -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36
- 〈표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37
- 〈표 II -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37
- 〈표 II -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 38
- 〈표 II -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자녀 수별 / 40
- 〈표 II -6〉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 41
- 〈표 II -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42
- 〈표 II -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 42
- 〈표 II -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43
- 〈표 II -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43
- 〈표 II -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44
- 〈표 II -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45
- 〈표 II -1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45
- 〈표 II -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 46
- 〈표 II -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 47
- 〈표 II -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48
- 〈표 II -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48
- 〈표 II -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49
- 〈표 II -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49
- 〈표 II -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0
- 〈표 II -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0
- 〈표 II -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 51
- 〈표 II -23〉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 51
- 〈표 II -24〉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2
- 〈표 II -25〉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2

■ 표 차례

- 〈표 II-26〉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3
- 〈표 II-27〉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3
-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4
- 〈표 II-29〉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4
- 〈표 II-30〉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55
- 〈표 II-31〉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5
- 〈표 II-32〉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5
- 〈표 II-33〉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6
- 〈표 II-34〉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6
- 〈표 II-35〉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57
- 〈표 II-36〉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57
- 〈표 II-37〉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58
- 〈표 II-38〉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58
- 〈표 II-39〉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58
- 〈표 II-40〉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59
- 〈표 II-41〉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59
- 〈표 II-42〉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60
- 〈표 II-43〉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60
- 〈표 II-44〉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 61
- 〈표 II-4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61
- 〈표 II-4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62
- 〈표 II-4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62
- 〈표 II-4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63
- 〈표 II-4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63
- 〈표 II-50〉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64
- 〈표 II-51〉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 65
- 〈표 II-5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 66
- 〈표 II-5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67

■ 표 차례

- 〈표 II-54〉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68
- 〈표 II-5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68
- 〈표 II-56〉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69
- 〈표 II-57〉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69
- 〈표 II-58〉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70
- 〈표 II-59〉 생명보험 보상 항목: 연령별 / 73
- 〈표 II-60〉 생명보험 보상 항목: 지역, 가구 소득별 / 74
- 〈표 II-61〉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특성별 / 75
- 〈표 II-62〉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특성별 / 76
- 〈표 II-6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78
- 〈표 II-64〉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79
- 〈표 II-65〉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79
- 〈표 II-66〉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80
- 〈표 II-67〉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81
- 〈표 II-68〉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81
- 〈표 II-69〉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82
- 〈표 II-70〉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83
- 〈표 II-71〉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83
- 〈표 II-72〉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84
- 〈표 II-7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 85
- 〈표 II-74〉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 86
- 〈표 II-75〉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86
- 〈표 II-76〉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 87
- 〈표 II-77〉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 87
- 〈표 II-78〉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88
- 〈표 II-79〉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거주 지역별 / 89
- 〈표 II-80〉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91
- 〈표 II-81〉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특성별 / 92

■ 표 차례

- 〈표 II-82〉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거주 지역별 / 93
- 〈표 II-83〉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연령별 / 93
- 〈표 II-84〉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학력별 / 94
- 〈표 II-8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상품 만족도 / 95
- 〈표 II-86〉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성별 / 96
- 〈표 II-87〉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연령별 / 96
- 〈표 II-88〉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97
- 〈표 II-89〉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직업별 / 97
- 〈표 II-90〉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학력별 / 98
- 〈표 II-91〉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98
- 〈표 II-92〉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99
- 〈표 II-93〉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 100
- 〈표 II-94〉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100
- 〈표 II-95〉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 101
- 〈표 II-9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101
- 〈표 II-97〉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01
- 〈표 II-98〉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 103
- 〈표 II-9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 103
- 〈표 II-10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 104
- 〈표 II-101〉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 105
- 〈표 II-102〉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 105
- 〈표 III-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 106
- 〈표 III-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 107
- 〈표 III-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108
- 〈표 III-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108
- 〈표 III-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종목별 / 109
- 〈표 III-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 111
- 〈표 III-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 112

■ 표 차례

-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 112
-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 113
-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 113
-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 114
-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 114
-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 115
- 〈표 Ⅲ-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 116
-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17
-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17
-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18
-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18
-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18
- 〈표 Ⅲ-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19
- 〈표 Ⅲ-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보험 종목별 / 120
- 〈표 Ⅲ-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0
- 〈표 Ⅲ-23〉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21
- 〈표 Ⅲ-24〉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1
- 〈표 Ⅲ-25〉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21
- 〈표 Ⅲ-26〉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2
- 〈표 Ⅲ-27〉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22
- 〈표 Ⅲ-28〉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3
- 〈표 Ⅲ-29〉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123
- 〈표 Ⅲ-30〉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3
- 〈표 Ⅲ-31〉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124
- 〈표 Ⅲ-32〉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4
- 〈표 Ⅲ-3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125
- 〈표 Ⅲ-34〉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125
- 〈표 Ⅲ-35〉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126

■ 표 차례

- 〈표 Ⅲ-36〉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126
- 〈표 Ⅲ-3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 127
- 〈표 Ⅲ-3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127
- 〈표 Ⅲ-3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128
- 〈표 Ⅲ-4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128
- 〈표 Ⅲ-4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129
- 〈표 Ⅲ-4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129
- 〈표 Ⅲ-4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130
- 〈표 Ⅲ-4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130
- 〈표 Ⅲ-4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 132
- 〈표 Ⅲ-46〉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 133
- 〈표 Ⅲ-4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직판채널(복수응답) / 133
- 〈표 Ⅲ-48〉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35
- 〈표 Ⅲ-4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 135
- 〈표 Ⅲ-50〉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 및 소득별 / 136
- 〈표 Ⅲ-5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136
- 〈표 Ⅲ-5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137
- 〈표 Ⅲ-53〉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 137
- 〈표 Ⅲ-54〉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138
- 〈표 Ⅲ-5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138
- 〈표 Ⅲ-56〉 손해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 141
- 〈표 Ⅲ-57〉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직업별 / 141
- 〈표 Ⅲ-58〉 손해보험 보상 위험: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 142
- 〈표 Ⅲ-5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 143
- 〈표 Ⅲ-60〉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144
- 〈표 Ⅲ-61〉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144
- 〈표 Ⅲ-62〉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학력별 / 145
- 〈표 Ⅲ-63〉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가구 소득별 / 145

■ 표 차례

- 〈표 Ⅲ-64〉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채널별 / 146
- 〈표 Ⅲ-65〉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 147
- 〈표 Ⅲ-66〉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 148
- 〈표 Ⅲ-67〉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148
- 〈표 Ⅲ-6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 148
- 〈표 Ⅲ-69〉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 149
- 〈표 Ⅲ-70〉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149
- 〈표 Ⅲ-7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 150
- 〈표 Ⅲ-72〉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성별 / 151
- 〈표 Ⅲ-73〉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령별 / 151
- 〈표 Ⅲ-74〉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151
- 〈표 Ⅲ-75〉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직업별 / 152
- 〈표 Ⅲ-76〉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학력별 / 152
- 〈표 Ⅲ-7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53
- 〈표 Ⅲ-7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 154
- 〈표 Ⅲ-79〉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 155
- 〈표 Ⅲ-80〉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 155
- 〈표 Ⅲ-8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 156
- 〈표 Ⅲ-8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 156
- 〈표 Ⅲ-83〉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가구 소득별 / 157
- 〈표 Ⅲ-84〉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159
- 〈표 Ⅲ-85〉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159
- 〈표 Ⅲ-86〉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159
- 〈표 Ⅲ-87〉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60
- 〈표 Ⅲ-88〉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여부: 연령별 / 162
- 〈표 Ⅲ-89〉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 163
- 〈표 Ⅲ-90〉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164
- 〈표 Ⅲ-91〉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특성별 / 165

■ 표 차례

- 〈표 Ⅲ-92〉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 166
- 〈표 Ⅳ-1〉 현재 건강상태 / 167
- 〈표 Ⅳ-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169
- 〈표 Ⅳ-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170
- 〈표 Ⅳ-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 172
- 〈표 Ⅳ-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174
- 〈표 Ⅳ-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 / 175
- 〈표 Ⅳ-7〉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1순위) / 177
- 〈표 Ⅳ-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 / 178
- 〈표 Ⅳ-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 / 180
- 〈표 Ⅳ-10〉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성별 / 181
- 〈표 Ⅳ-11〉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연령별 / 181
- 〈표 Ⅳ-12〉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직업별 / 181
- 〈표 Ⅳ-13〉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 182
- 〈표 Ⅳ-14〉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성별 / 183
- 〈표 Ⅳ-15〉 실손의료보험사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 184
- 〈표 Ⅳ-16〉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 184
- 〈표 Ⅳ-17〉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 185
- 〈표 Ⅳ-18〉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185
- 〈표 Ⅳ-19〉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185
- 〈표 Ⅳ-20〉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 187
- 〈표 Ⅳ-21〉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188
- 〈표 Ⅳ-22〉 직장 정년제 여부 / 189
- 〈표 Ⅳ-23〉 재직 직장 정년제 적용 여부 / 191
- 〈표 Ⅳ-24〉 직장 정년제 적용 나이 / 192
- 〈표 Ⅳ-25〉 재직 직장 내 정년 60세 연장 시 동의 여부 / 193
- 〈표 Ⅳ-26〉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95
- 〈표 Ⅳ-27〉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 196

■ 표 차례

- 〈표 IV-28〉 조기퇴직 계획 시 평균 퇴직연령: 성별 / 196
- 〈표 IV-29〉 조기퇴직 계획 시 평균 퇴직연령: 직업별 / 197
- 〈표 IV-30〉 조기퇴직 계획 시 퇴직연령 / 197
- 〈표 IV-31〉 조기퇴직 계획 이유 / 198
- 〈표 IV-32〉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에 대한 의견 / 199
- 〈표 IV-33〉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대한 의견 / 201
- 〈표 IV-34〉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 202
- 〈표 IV-35〉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 / 203
- 〈표 IV-36〉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 205
- 〈표 IV-37〉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계획 시 금융상품 유형 / 206
- 〈표 IV-38〉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 207
- 〈표 IV-39〉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여부 / 208
- 〈표 IV-40〉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 의향 / 210
- 〈표 IV-41〉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하지 않은 이유 / 211
- 〈표 IV-42〉 추가적인 혜택 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 13
- 〈표 IV-43〉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성별 / 215
- 〈표 IV-44〉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연령별 / 215
- 〈표 IV-45〉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직업별 / 215
- 〈표 IV-46〉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가구 소득 / 216
- 〈표 IV-47〉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 217
- 〈표 IV-48〉 건강정보 제공을 전제로 제휴업체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보험 상품 내용 / 218

■ 표 차례

- 〈표 IV-49〉 건강정보 제공 및 제휴업체 혜택 하에서 건강보험 상품 가입 의향 / 219
- 〈표 IV-50〉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 220
- 〈표 IV-51〉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상품 내용 / 221
- 〈표 IV-52〉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향 / 221
- 〈표 IV-53〉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 223
- 〈표 IV-54〉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 224
- 〈표 IV-55〉 살고 있는 집의 금액 / 225
- 〈표 IV-56〉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226
- 〈표 IV-57〉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 227
- 〈표 IV-58〉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 / 228
- 〈표 IV-59〉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30
- 〈표 IV-60〉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 / 231
- 〈표 IV-61〉 보유한 금융자산별 보유율 / 232
- 〈표 IV-62〉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 / 233
- 〈표 IV-63〉 보유한 금융자산별 납입금액 / 234
- 〈표 IV-64〉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 235
- 〈표 IV-65〉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 237
- 〈표 IV-66〉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 / 238
- 〈표 IV-67〉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지역규모 / 240
- 〈표 IV-68〉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성별 / 240
- 〈표 IV-69〉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연령별 / 241
- 〈표 IV-70〉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직업별 / 241
- 〈표 IV-71〉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학력별 / 242
- 〈표 IV-72〉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가구 소득별 / 242
- 〈표 IV-73〉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월별 예상금액 / 243

■ 표 차례

- 〈표 IV-74〉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 244
- 〈표 IV-75〉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 246
- 〈표 IV-76〉 노후준비 부족 원인(1순위) / 247
- 〈표 IV-77〉 사적연금 가입 금융 기관 / 250
- 〈표 IV-78〉 연금제도 만족도 / 250
- 〈표 IV-79〉 국민연금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 251
- 〈표 IV-80〉 퇴직연금제도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 253
- 〈표 IV-81〉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 254
- 〈표 IV-82〉 향후 퇴직연금 가입 종류 / 255
- 〈표 IV-83〉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1순위) / 256
- 〈표 IV-84〉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포함해야 할 연금방식 / 257
- 〈표 IV-85〉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 / 258
- 〈표 IV-86〉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 260
- 〈표 IV-87〉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 261
- 〈표 IV-88〉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 262
- 〈표 IV-89〉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 263
- 〈표 IV-90〉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 264
- 〈표 IV-91〉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266
- 〈표 IV-92〉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 268
- 〈표 IV-93〉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 269

■ 그림 차례

- 〈그림 I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25
- 〈그림 II -1〉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 36
- 〈그림 II -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39
- 〈그림 II -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41
- 〈그림 II -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64
- 〈그림 II -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67
- 〈그림 II -6〉 생명보험 보상 경험 / 71
- 〈그림 II -7〉 생명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 71
- 〈그림 II -8〉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 72
- 〈그림 II -9〉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 72
- 〈그림 II -10〉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77
- 〈그림 II -11〉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85
- 〈그림 II -12〉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 89
- 〈그림 II -13〉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 90
- 〈그림 II -14〉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 / 90
- 〈그림 II -15〉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 95
- 〈그림 II -1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 99
- 〈그림 II -1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 102
- 〈그림 III -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 107
- 〈그림 III -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 110
- 〈그림 III -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 111
- 〈그림 III -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 131
- 〈그림 III -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134
- 〈그림 III -6〉 손해보험 보상 경험 / 139
- 〈그림 III -7〉 손해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 140
- 〈그림 III -8〉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 143
- 〈그림 III -9〉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 147
- 〈그림 III -10〉 손해보험 종목별 만족도 / 150

■ 그림 차례

- 〈그림 Ⅲ-1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 154
- 〈그림 Ⅲ-12〉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 158
- 〈그림 Ⅲ-13〉 연간 자동차 보험료 / 161
- 〈그림 Ⅲ-14〉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여부 / 161
- 〈그림 Ⅲ-15〉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 162
- 〈그림 Ⅲ-16〉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1순위) / 163
- 〈그림 Ⅲ-17〉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 165
- 〈그림 Ⅳ-1〉 현재 건강상태 / 168
- 〈그림 Ⅳ-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168
- 〈그림 Ⅳ-3〉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170
- 〈그림 Ⅳ-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 / 171
- 〈그림 Ⅳ-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 172
- 〈그림 Ⅳ-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173
- 〈그림 Ⅳ-7〉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 / 175
- 〈그림 Ⅳ-8〉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사유 / 176
- 〈그림 Ⅳ-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 / 178
- 〈그림 Ⅳ-10〉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 / 179
- 〈그림 Ⅳ-11〉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 182
- 〈그림 Ⅳ-12〉 실손의료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 183
- 〈그림 Ⅳ-13〉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 186
- 〈그림 Ⅳ-14〉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188
- 〈그림 Ⅳ-15〉 재직 직장 정년제 여부 / 190
- 〈그림 Ⅳ-16〉 재직 직장 정년제 적용 여부 / 190
- 〈그림 Ⅳ-17〉 직장 정년제 적용 연령 / 192
- 〈그림 Ⅳ-18〉 재직 직장 내 정년 60세 연장 시 동의 여부 / 193
- 〈그림 Ⅳ-19〉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194
- 〈그림 Ⅳ-20〉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 195
- 〈그림 Ⅳ-21〉 조기퇴직 계획 시 퇴직연령 / 197

■ 그림 차례

- 〈그림 IV-22〉 조기퇴직 계획 이유 / 198
- 〈그림 IV-23〉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에 대한 의견 / 199
- 〈그림 IV-24〉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대한 의견 / 200
- 〈그림 IV-25〉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 202
- 〈그림 IV-26〉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 / 203
- 〈그림 IV-27〉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 204
- 〈그림 IV-28〉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계획 시 금융상품 유형 / 205
- 〈그림 IV-29〉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 207
- 〈그림 IV-30〉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여부 / 208
- 〈그림 IV-31〉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 의향 / 209
- 〈그림 IV-3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하지 않는 이유 / 211
- 〈그림 IV-33〉 추가적인 혜택 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 213
- 〈그림 IV-34〉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 216
- 〈그림 IV-35〉 건강정보 제공 및 제휴업체 혜택 하에서 건강보험 상품 가입 의향 / 218
- 〈그림 IV-36〉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 220
- 〈그림 IV-37〉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향 / 222
- 〈그림 IV-38〉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 223
- 〈그림 IV-39〉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 225
- 〈그림 IV-40〉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226
- 〈그림 IV-41〉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 227
- 〈그림 IV-42〉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 / 228
- 〈그림 IV-43〉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 230
- 〈그림 IV-44〉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 / 231
- 〈그림 IV-45〉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 / 233

■ 그림 차례

- 〈그림 IV-46〉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 236
- 〈그림 IV-47〉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 236
- 〈그림 IV-48〉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 / 238
- 〈그림 IV-49〉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 239
- 〈그림 IV-50〉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월별 예상금액 / 243
- 〈그림 IV-51〉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 244
- 〈그림 IV-52〉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 245
- 〈그림 IV-53〉 노후준비 부족 원인 / 247
- 〈그림 IV-54〉 연금제도별 가입률 / 248
- 〈그림 IV-55〉 연금제도별 평균 납입 보험료 / 249
- 〈그림 IV-56〉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가입기간 / 249
- 〈그림 IV-57〉 국민연금 만족 수준 / 251
- 〈그림 IV-58〉 퇴직연금제도 만족 수준 / 252
- 〈그림 IV-59〉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 253
- 〈그림 IV-60〉 향후 퇴직연금 가입 종류 / 255
- 〈그림 IV-61〉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 256
- 〈그림 IV-62〉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포함해야 할 연금방식 / 257
- 〈그림 IV-63〉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 / 259
- 〈그림 IV-64〉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 259
- 〈그림 IV-65〉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 261
- 〈그림 IV-66〉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 262
- 〈그림 IV-67〉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 263
- 〈그림 IV-68〉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 264
- 〈그림 IV-69〉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265

■ 그림 차례

〈그림 IV-70〉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266

〈그림 IV-71〉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 267

〈그림 IV-72〉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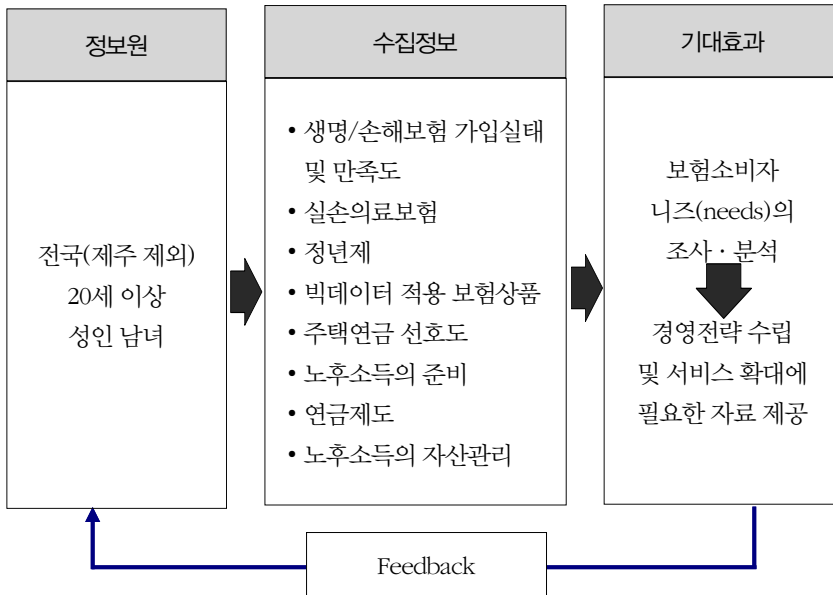
요 약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보험가입 의향 등 보험수요 변화 추세를 조사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 고령화 관련 상품, 노후소득의 준비,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요약 그림 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2.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크기: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추출방법: 거주 지역, 성, 연령,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 행정자치부, 2015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 조사기간: 2015년 5월 18일 ~ 2015년 6월 17일(약 1개월)
- 조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센터

3. 주요 조사항목

- 본 조사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만족도와 더불어 보험산업과 관련한 이슈별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실태와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와 향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등에 대하여 조사함.
 - 실손의료보험, 정년제, 빅데이터 적용 보험상품, 주택연금 선호도, 노후소득의 준비, 연금제도,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등에 대하여 조사함.

Ⅱ. 보험가입 현황 및 수요조사

1. 가구당 가입 현황

■ 보험산업 전체 가구 보험가입률은 2014년(97.5%)과 비교하여 2.2%p 상승한 99.7%¹⁾로 나타남.

○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7.2%로, 2014년(85.8%) 대비 1.4%p 상승한 반면, 가입건수는 2014년(4.0건) 대비 0.5건 감소한 3.5건으로 조사됨.

○ 2015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91.8%로 2014년(87.7%) 대비 4.1%p, 가입건수는 가구당 3.4건으로 2014년(3.3건) 대비 0.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1〉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구당 가입률(%)		97.7	97.4	96.4	98.0	96.1	96.1	97.5	99.7
생명 보험	가입률(%)	90.8	89.9	88.0	87.3	86.3	83.0	85.8	87.2
	가입건수(건)	4.1	4.0	4.1	3.8	3.8	3.6	4.0	3.5
손해 보험	가입률(%)	86.3	87.4	85.9	91.4	87.2	86.8	87.7	91.8
	가입건수(건)	2.1	2.2	2.5	3.0	2.9	3.1	3.3	3.4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 거주 지역, 세대주 연령, 가구 소득 등에 따른 가구당 보험가입률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하여 대부분 상승하였으며, 특히 손해보험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4년(87.7%) 대비 4.1%p 상승하였음.

○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 자동차보험이 포함된 가구 가입률이며, 한 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의 가입률을 의미함.

- 특히, 군지역의 경우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2014년 대비 10.2%p,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2%p 상승함.
- 세대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은 30대(+4.6%p) 연령층, 손해보험은 30대(+4.7%p), 50대(+3.2%p), 60대 이상(+9.0%p)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소득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저소득(+9.6%p), 중소득(+3.4%p), 고소득(+2.6%p)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함.

〈요약 표 2〉 가구당 가입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보험종목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가입률					96.1	97.5	99.7	83.0	85.8	87.2	86.8	87.7	91.8
거주 지역별	대도시				96.6	97.8	99.6	85.2	87.1	85.5	86.1	86.9	90.6
	중·소도시				96.4	97.1	99.6	81.5	84.6	87.3	89.5	88.8	92.4
	군지역				91.3	97.9	100.0	78.8	85.6	95.8	76.9	85.6	94.8
세대주 연령	30대				96.2	96.5	100.0	78.0	83.1	87.7	90.3	90.5	95.2
	40대				99.3	98.9	99.6	87.8	89.5	90.5	95.5	95.1	96.7
	50대				98.1	98.7	100.0	88.4	88.5	88.7	93.1	91.5	94.7
	60대 이상				90.3	95.4	99.0	75.6	81.2	84.1	67.9	73.9	82.9
가구 소득	저소득				86.9	90.2	98.3	69.9	72.9	75.3	63.0	63.6	73.2
	중소득				98.5	98.7	100.0	83.7	85.8	86.2	92.7	90.9	94.3
	고소득				99.7	99.6	100.0	92.0	91.9	93.0	96.8	95.2	97.8

2. 개인별 보험가입 현황

- 개인 보험가입률은 96.7%로 2014년 대비 2.9%p 상승하였음.
-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2014년(79.3%) 대비 0.4%p 하락한 78.9%로 나타났다으며,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2014년(74.3%) 대비 5.4%p 상승한 79.7%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개인 보험가입률을 보임.

〈요약 표 3〉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명보험	78.0	79.3	77.3	79.3	78.9
손해보험	71.5	67.9	74.6	74.3	79.7
전체	92.5	92.9	94.0	93.8	96.7

- 전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개인 보험가입률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남.
- 다만,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여성(83.5%)이 남성(74.2%)보다 9.3%p 높게 나타난 반면,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남성(89.0%)이 여성(70.5%)보다 8.5%p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경향을 보임.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생명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40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모두 하락함.

〈요약 표 4〉 개인별 보험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보험산업 전체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전체 가입률		94.0	93.8	96.7	77.3	79.3	78.9	74.6	74.3	79.7
성별	남성	93.5	93.9	97.0	71.4	75.9	74.2	82.7	82.7	89.0
	여성	94.4	93.6	96.4	83.0	82.5	83.5	66.8	66.1	70.5
연령	20대	90.6	84.9	92.4	67.0	69.3	67.2	65.5	55.8	65.2
	30대	96.8	96.7	98.7	81.9	81.2	80.0	85.1	83.7	87.6
	40대	98.1	97.8	100.0	82.1	85.8	86.3	88.4	87.3	89.3
	50대	96.5	97.9	97.9	83.4	85.6	82.2	81.2	81.4	89.3
	60대 이상	87.3	89.9	93.8	70.6	72.5	76.6	50.8	59.7	65.9
직업	화이트칼라	98.1	96.7	98.5	81.4	80.5	85.0	84.5	82.7	86.2
	블루칼라	92.3	90.3	98.0	67.9	77.1	76.3	75.2	71.7	81.6
	자영업	95.7	96.5	96.4	80.2	80.1	74.8	80.4	83.3	84.9
	농/임/어업	94.4	100.0	100.0	85.9	83.3	92.9	63.3	50.0	100.0
	주부	100.0	93.8	96.8	75.0	86.0	84.8	50.0	63.2	70.0
	은퇴자	—	87.5	94.6	—	68.8	69.6	—	53.1	69.6
	무직/기타	74.7	79.6	82.1	50.7	51.0	57.1	50.7	49.0	48.2
학력	중졸 이하	76.8	85.7	88.1	61.6	70.5	75.2	35.2	50.9	53.5
	고졸	95.2	93.9	96.4	78.8	80.0	76.1	75.0	74.2	76.3
	대재 이상	97.0	95.6	98.5	79.6	80.4	82.3	83.8	79.8	87.8
결혼 여부	기혼	94.9	95.8	97.5	79.8	81.4	82.4	76.0	77.3	81.7
	미혼	90.1	85.5	93.4	67.0	70.5	65.0	68.7	62.2	71.6
가구 소득	저소득	84.8	86.9	94.5	67.5	68.7	71.1	53.6	56.5	64.7
	중소득	97.0	94.1	97.9	78.8	78.4	78.6	82.2	76.7	82.9
	고소득	96.8	96.5	96.7	82.8	85.2	82.5	79.8	79.7	83.6

■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은 질병보장보험(7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망보장보험(22.4%)과 저축성보험(19.3%) 순으로 전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임.

○ 질병보장보험과 변액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이 2014년(각각 69.6%, 5.3%) 대비 0.6%p와 1.3%p 상승한 반면, 사망보장보험(-4.4%p), 저축성보험(-6.4%p) 개인 보험가입률은 전년대비 하락함.

〈요약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2014	2015
가입률		69.6	70.2	26.8	22.4	25.7	19.3	5.3	6.6
연령	20대	57.8	59.6	19.1	9.1	20.1	8.1	3.0	4.5
	30대	66.9	68.4	31.4	28.0	31.4	21.8	9.2	10.7
	40대	76.9	74.4	33.2	29.8	35.8	30.5	7.5	7.6
	50대	77.1	71.5	30.9	31.0	28.0	23.6	4.7	9.1
	60대 이상	66.7	74.0	17.8	12.8	12.0	10.6	1.6	1.5
직업	화이트칼라	66.2	72.8	33.5	28.4	36.0	24.3	5.9	10.8
	블루칼라	68.2	70.2	21.7	19.2	26.0	14.7	5.0	5.7
	자영업	71.0	66.5	31.7	26.6	22.9	22.7	4.4	4.7
	농/임/어업	83.3	85.7	16.7	21.4	16.7	14.3	0.0	0.0
	주부	78.9	75.6	24.8	18.9	23.1	19.4	7.9	6.9
	은퇴자	62.5	67.9	6.3	8.9	6.3	10.7	0.0	0.0
	무직/기타	42.9	50.0	6.1	7.1	12.2	1.8	0.0	1.8
학력	중졸 이하	65.2	74.3	14.3	8.9	6.3	7.9	0.9	1.0
	고졸	71.3	68.2	27.1	18.1	26.6	17.3	4.8	4.6
	대재 이상	68.5	71.2	29.1	29.0	28.7	23.2	6.9	9.7
결혼	기혼	72.9	73.9	28.1	24.9	26.6	21.3	5.7	7.0
	미혼	56.4	55.6	21.6	12.8	22.0	11.1	3.3	4.9
가구 소득	저소득	61.2	67.2	14.5	8.1	11.7	8.1	0.9	2.1
	중소득	66.7	67.7	27.5	25.2	22.2	20.0	4.9	5.7
	고소득	76.9	73.3	31.7	26.5	36.2	23.6	7.6	9.2

■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보험가입률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이 68.5%로 2014년 (60.2%) 대비 8.3%p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은 6.6%로 2014년(8.3%) 대비 1.7%p 하락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대 비 상승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전년대비 하락함.

○ 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가구 소득층의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하락함.

○ 학력별로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모든 학력층에서 전년대 비 상승하였으나, 일반손해보험 개인 보험가입률은 중졸 이하 학력층을 제외한 학력층에서 전년대비 하락함.

〈요약 표 6〉 손해보험 종목별 개인 가입률: 특성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4	2015	2014	2015
가입률		60.2	68.5	8.3	6.6
연령	20대	44.7	60.6	10.1	3.0
	30대	69.0	72.0	9.2	8.9
	40대	71.3	79.4	10.4	10.7
	50대	63.6	78.1	7.2	6.2
	60대 이상	49.2	52.4	5.0	3.7
학력	중졸 이하	42.0	47.5	2.7	3.0
	고졸	59.9	64.1	9.7	6.0
	대재 이상	64.8	76.6	11.0	7.8
결혼	기혼	62.7	69.9	8.3	6.9
	미혼	50.2	63.0	8.3	5.3
가구 소득	저소득	43.9	56.6	5.6	3.0
	중소득	62.9	69.8	8.1	7.1
	고소득	64.6	72.6	9.8	7.7

- 2015년 조사에서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 특히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생명보험의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95%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을 통한 가입은 5% 이하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손해보험 또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이 2014년(9.1%) 대비 1.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요약 표 7〉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5.3	95.4	96.3	96.3	96.0	95.5	96.4	97.3
직판	3.9	2.0	1.6	2.1	2.6	2.4	1.9	1.6
은행	4.6	3.1	2.5	1.9	1.6	3.1	3.2	1.7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2008, 2009년은 복수응답을 포함하며, 기타 채널은 생략함(이하 동일).

〈요약 표 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1.2	92.3	92.6	95.5	92.7	93.2	94.2	94.0
직판	8.0	6.3	7.7	4.7	6.2	8.0	9.1	7.8
은행	2.6	1.4	0.5	0.5	1.1	1.9	1.3	0.3

주: 1) 2008년부터 표본추출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함(이하 동일).
 2)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개인 보험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의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3) 2008년 이후는 복수응답 구성비임.
 4)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5)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3. 향후 보험수요 및 가입 이유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은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보장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 종목들이 전년대비 하락함.
 - 향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의 비율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각각 3.7%p, 7.3%p 하락하여 생명보험 62.3%, 손해보험 36.8%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가입 의향을 2014년과 비교한 결과, 저축성보험이 가장 높은 20.7%로 나타났고, 질병보장보험(14.2%), 사망보장보험(7.1%), 변액보험(4.7%)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장기손해보험이 전년대비 0.9%p 상승한 20.5%, 일반손해보험은 1.2%p 하락한 10.1%로 나타남.

〈요약 표 9〉 보험 상품별 가입 의향 비교

(단위: %, %p)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 보장 보험	사망 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 보험	의향 없음	장기 손해 보험	일반 손해 보험	의향 없음
2011년	19.8	11.7	20.6	5.9	56.9	29.8	8.8	34.1
2012년	15.2	7.9	17.3	4.6	64.3	20.4	9.3	49.1
2013년	17.9	6.6	19.1	3.5	63.3	22.0	8.0	41.5
2014년	17.3	6.3	18.3	4.7	65.9	19.6	11.3	44.1
2015년	14.2	7.1	20.7	4.7	62.3	20.5	10.1	36.8
증가율	-3.1	0.8	2.4	0.0	-3.7	0.9	-1.2	-7.3

주: 사망보장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에는 연금보험이 포함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은 손해보험(97.7%)이 생명보험(92.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후자금 마련(18.5%), 저축수단(11.2%), 유산상속 목적(1.7%) 순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위험보장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축수단(3.3%), 노후자금 마련(2.3%), 투자수단(0.7%) 순으로 조사됨.

〈요약 표 10〉 보험 산업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2014	2015	2014	2015
위험보장	95.5	92.9	98.5	97.7
노후자금 마련	21.0	18.5	1.2	2.3
목돈마련 저축수단	12.1	11.2	1.6	3.3
자산증식 투자수단	1.8	1.6	0.3	0.7
유산상속 목적	3.8	1.7	0.2	0.1
세제혜택 유리	2.5	0.7	0.9	0.4

- 생명보험은 보험 종목별로 보험가입 이유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손해보험은 종목과 상관없이 모두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생명보험의 경우 질병보장보험(96.9%)과 사망보장보험(73.6%)에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저축성보험(51.9%)과 변액보험(43.0%)은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요약 표 11〉 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저축 수단	노후자금 마련	자산 증식	유산 상속	세제 혜택
생명 보험	질병보장보험	96.9	1.9	0.8	0.2	0.1	—
	사망보장보험	73.6	5.6	13.0	2.6	4.1	0.7
	저축성보험	22.1	32.5	51.9	1.7	0.4	0.4
	변액보험	34.2	11.4	43.0	5.1	3.8	6.3
	기타	97.3	2.1	0.7	—	—	—
손해 보험	자동차보험	98.0	0.8	0.2	0.3	—	0.7
	장기손해보험	96.2	3.8	2.6	0.6	0.1	0.2
	일반손해보험	97.5	—	2.5	—	—	—

4.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및 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회사가 대형사라는 응답이 생명보험 73.6%, 손해보험 82.3%로 여전히 대형사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1.8%p)와 외국사/직판사(-1.1%p), 공제/기타(-1.1%)의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비율은 전년대비 하락함.

○ 손해보험사의 경우 중·소형사(+1.2%p)와 공제/기타(+1.0%p) 상품을 가입하였다는 응답은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대형사(-0.3%p)와 외국사/직판사(-2.4%p)는 하락함.

〈요약 표 12〉 최근 3년간 보험회사별 가입분포

(단위: %)

선호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대형사	71.5	71.8	72.6	75.8	73.6	79.9	80.3	78.2	82.6	82.3
중·소형사	19.2	15.4	15.7	21.8	21.8	20.6	18.5	20.6	17.5	18.7
외국사/직판사	14.1	15.0	12.3	9.8	8.7	4.9	4.8	5.1	6.0	3.6
공제/기타	6.7	6.2	6.0	5.9	4.8	2.6	2.6	2.7	1.0	2.0

■ 보험회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상품 경쟁력과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 선택의 경우 상품 경쟁력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브랜드 신뢰성(15.6%), 가격 경쟁력(14.3%), 서비스 지원(11.0%)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 요인들은 10% 이하로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 선택의 경우도 상품 경쟁력(46.9%)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신뢰성(16.6%)과 가격 경쟁력(16.4%)이 뒤를 이음.

〈요약 표 13〉 향후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단위: %)

선택 회사 고려 사항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상품 경쟁력	38.7	38.2	48.7	48.9	48.0	37.0	35.6	48.2	45.4	46.9
브랜드 신뢰성	28.6	26.6	18.3	17.2	15.6	28.1	27.8	17.8	18.7	16.6
서비스 지원	10.7	13.1	10.8	10.4	11.0	11.1	10.8	12.2	10.4	12.8
가격 경쟁력	10.0	12.3	14.3	15.1	14.3	10.8	16.7	14.3	17.5	16.4
개인적 관계	5.8	4.3	4.3	4.3	4.2	7.1	4.8	5.3	4.7	2.8
회사규모	3.3	2.3	1.8	2.7	2.7	2.7	1.2	0.8	1.8	1.8
설계사 전문성	0.8	1.2	0.5	0.7	1.4	0.8	1.2	0.4	0.5	1.0
경영 철학	0.4	1.1	0.4	0.3	0.6	0.4	0.5	0.1	—	0.6
과거 거래 경험	0.7	0.6	0.4	0.3	1.2	0.8	0.7	0.6	0.5	0.6
계약 편의성	1.2	0.5	0.5	0.2	1.1	1.3	0.9	0.3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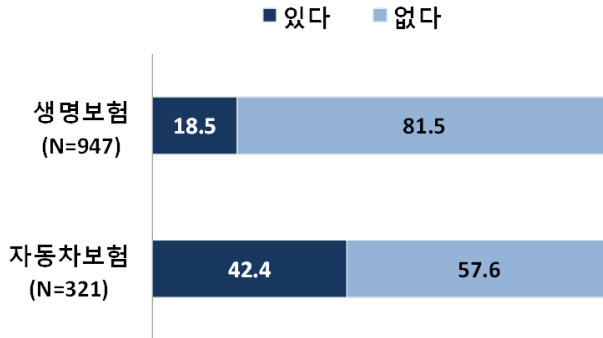
주: 상품 경쟁력은 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를 반영함.

5.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재 가입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생명보험 가입자의 18.5%,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42.4%가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2〉 가입 보험회사 변경 의향

(단위: %)



Ⅲ. 생명 · 손해보험 공통

1. 실손의료보험

■ 지난 1년 동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형태, 가입 금융 기관 종류, 그리고 가입 채널을 조사하였음.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유형은 특약형(54.4%)이 단독형(45.6%) 보다 많았으며, 특약형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40대(59.8%), 자영업(58.2%), 고소득(59.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75.3%), 생명보험사(23.7%), 우체국 및 기타 공제(1.1%) 순으로 나타남.

〈요약 표 1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전체		(469)	23.7	75.3	1.1
응답자 연령	20대	(87)	23.0	74.7	2.3
	30대	(103)	26.2	72.8	1.0
	40대	(122)	27.9	72.1	0.0
	50대	(98)	19.4	78.6	2.0
	60대 이상	(59)	18.6	81.4	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21.5	77.8	0.6
	블루칼라	(102)	26.5	71.6	2.0
	자영업	(91)	26.4	72.5	1.1
	농/임/어업	(1)	0.0	100.0	0.0
	주부	(91)	23.1	76.9	0.0
	은퇴자	(12)	16.7	83.3	0.0
	무직/기타	(14)	21.4	71.4	7.1
가구 소득	저소득	(55)	18.2	80.0	1.8
	중소득	(179)	21.2	78.2	0.6
	고소득	(234)	26.9	71.8	1.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면(94.2%)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채널로는 직판(2.3%), 은행(0.6%)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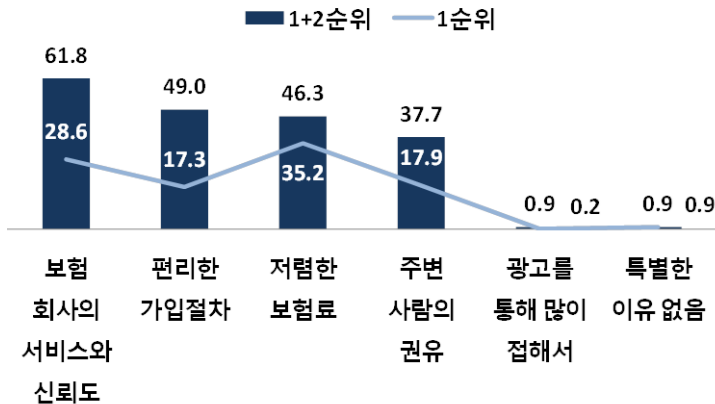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35.2%)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28.6%), 주변 사람의 권유(17.9%), 편리한 가입절차(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저렴한 보험료라는 응답은 40대(41.0%)와 60대 이상(40.7%), 가구 소득이 적

을수록 높아져 저소득(4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 그림 3〉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사유

(N=469 / 단위: %)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 갱신 주기는 3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은 90%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에 대한 응답은 3년이 43.5%, 5년이 35.2%, 비갱신형이 12.2%, 1년이 9.2%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에 대해서는 90%(41.6%), 80%(31.3%), 100%(10.2%)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모름: 16.8%).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 수준으로 6만 원~9만 원 미만(34.1%)과 3만 원~6만 원 미만(32.8%)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응답으로는 9만 원 이상(26.4%), 3만 원 미만(6.6%)의 순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이 6만 원~9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4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 표 15〉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6만 원 미만	6만 원~ 9만 원 미만	9만 원 이상
전체		(469)	6.6	32.8	34.1	26.4
성별	남성	(229)	10.5	38.0	32.3	19.2
	여성	(240)	10.0	45.0	30.4	14.6
응답자 연령	20대	(87)	12.6	36.8	29.9	20.7
	30대	(103)	3.9	34.0	33.0	29.1
	40대	(122)	4.9	36.1	35.2	23.8
	50대	(98)	6.1	30.6	32.7	30.6
	60대 이상	(59)	6.8	22.0	42.4	28.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11.4	38.0	33.5	17.1
	블루칼라	(102)	12.7	44.1	30.4	12.7
	자영업	(91)	8.8	34.1	36.3	20.9
	농/임/어업	(1)	0.0	0.0	0.0	100.0
	주부	(91)	7.7	53.8	28.6	9.9
	은퇴자	(12)	16.7	33.3	8.3	41.7
	무직/기타	(14)	0.0	42.9	21.4	35.7
가구 소득	저소득	(55)	14.5	38.2	21.8	25.5
	중소득	(179)	7.8	45.8	31.3	15.1
	고소득	(234)	11.1	38.9	33.8	16.2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 금융 기관별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는 4.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우 신속한 보험금 처리서비스 만족도(각각 4.38 점, 4.19점)가 다른 서비스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요약 표 16〉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단위: 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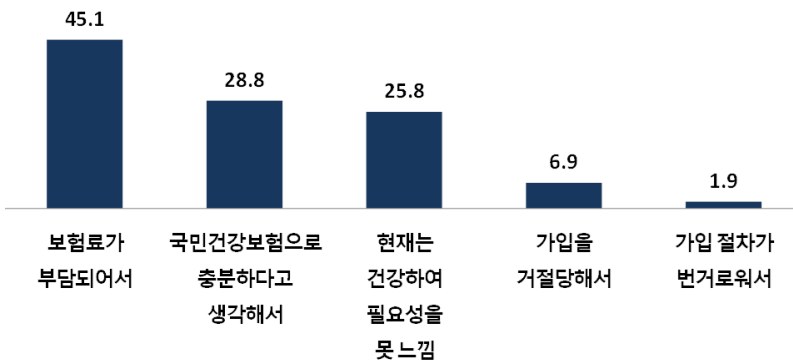
구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4.01	4.03	4.20
청구절차의 간편함	4.08	4.15	5.00
신속한 보험금 처리	4.38	4.19	4.00

주: 우체국 및 기타공제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8.8%),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5.8%), 가입을 거절당해서(6.9%),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1.9%)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요약 그림 4〉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N=539 / 단위: %)



2. 정년제

-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년제가 있는 비율은 55.5%였음.
-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설정하고 있는 직장의 비중은 47.5%로 조사됨.

- 60세 정년 연장에 동의하는 비율은 79.1%였으며, 특히 중소득층(85.3%)의 동의 비율이 높았음.
 - 한편,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최소 65세는 되어야 한다’는 비율 (40.0%)이 가장 높았으나, ‘청년실업,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늘여 서는 안 된다’(38.8%)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로 높았음.
 - 조기퇴직예상자의 퇴직연령은 평균 48.7세였으며, 이 중 ‘55세 이상 60세 미만’ 이 38.0%로 가장 많았음.
-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비율은 55.5%였음.
 - 그 채용 방법은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 이 57.5%로 가장 높았음.
-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62.3%였음.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는 최종보수기준 70%(41.6%)와 80%(38.7%)라는 응답이 많았음.
-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2.1%였음.
 - 추가 구입 금융상품으로는 적금·저축(47.2%), 연금저축(23.0%) 순임.
 - 추가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49.8%), 자녀 교육 및 결혼비 (37.6%) 등임.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추가적 으로 구입할 의향 있는 비율은 26.4%로 조사됨.
 - 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음.

-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유인으로는 강한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예, 비과세기준금액 3억 이상(37.0%)).
-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으로 나타남.

3. 빅데이터 관련 보험상품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보험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약 24.8%였음.
 - 가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개인정보유출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63.0%였음.
- 텔레매틱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운전행태 관련 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험상품에 가입 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비중은 약 28.8%였음.
 - 가입 의향이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 가운데 개인정보유출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중은 약 65.7%였음.

4.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는 자가(70.3%), 전세(24.6%), 월세(5.1%) 순으로 나타남.
- 주택을 상속의 개념으로 접근하던 시대인식도 점차 변화해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향이 없다”는 답변(56.4%)이 “의향이 있다”는 답변(43.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가주택 보유자가 전체 응답자의 7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은 전체 응답자의 30% 수준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연금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32.9%,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0.4%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1.8%)와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0%), “노후 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5%) 등으로 나타남.

5. 노후소득, 자산관리(은퇴, 노후생활) 등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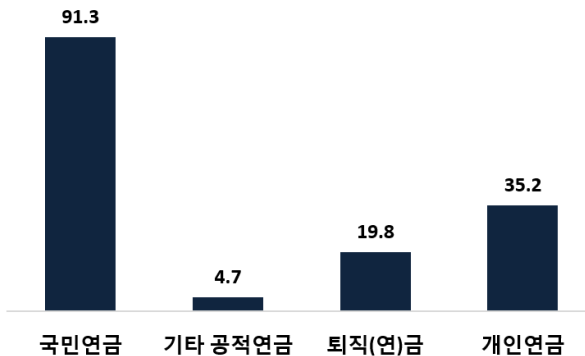
-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49.1%, 보통 41.6%, 긍정 9.3%로 나타남.
 - 노후준비 부족의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41.3%)이 가장 높았음.
 - 그다음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19.0%),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11.2%),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10.5%), 국민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서(7.8%),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저축액 규모가 매월 11~20만 원 이하인 응답자가 27%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노후대비 저축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저축액 규모가 매월 11~20만 원 이하의 응답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밖에 매월 10만 원 이하(21.4%), 매월 21~30만 원 이하(20.5%), 매월 41~50만 원 이하(12.2%), 매월 51만 원 이상(10.7%), 매월 31~40만 원 이하(8.1%)의 순으로 나타남.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 필요 정도에 대해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35.1%), 자식의 경제적 지원(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연금제도

- 가구의 연금 가입률은 국민연금이 91.3%로 가장 높고, 기타 공적연금이 4.7%, 퇴직(연)금이 19.8%, 개인연금 가입률은 35.2%로 나타남.
- 국민연금 가입률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저학력, 1인가구, 기혼 여성가구에서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개인연금 가입률은 전년(38.1%)대비 약 3%p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연령층의 가입 정제와 연금세제 변화 등에 의한 고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니즈 감소,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한 가입자 이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요약 그림 5〉 연금제도별 가입률

(N=1,200 / 단위: %)



주: 본 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과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에서 가입률은 연금상품 가입률의 상대적 값만 의미가 있음.

7.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5.5%,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1.8%로 나타남.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은 20대와 30대(약 19%), 화이트칼라(19.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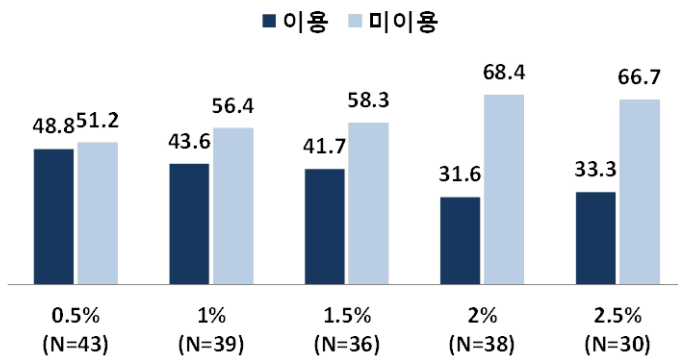
■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할수록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음.

○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서비스 수수료 수준이 납입액의 0.5% 수준이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서비스 수수료 수준이 0.5% 수준이라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2.5%인 경우 이용 의향은 26.7%였음.

〈요약 그림 6〉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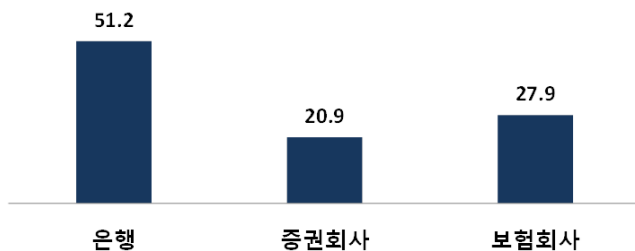
(단위: %)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은행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회사(27.9%), 증권회사(20.9%) 순으로 나타났음.

〈요약 그림 7〉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N=12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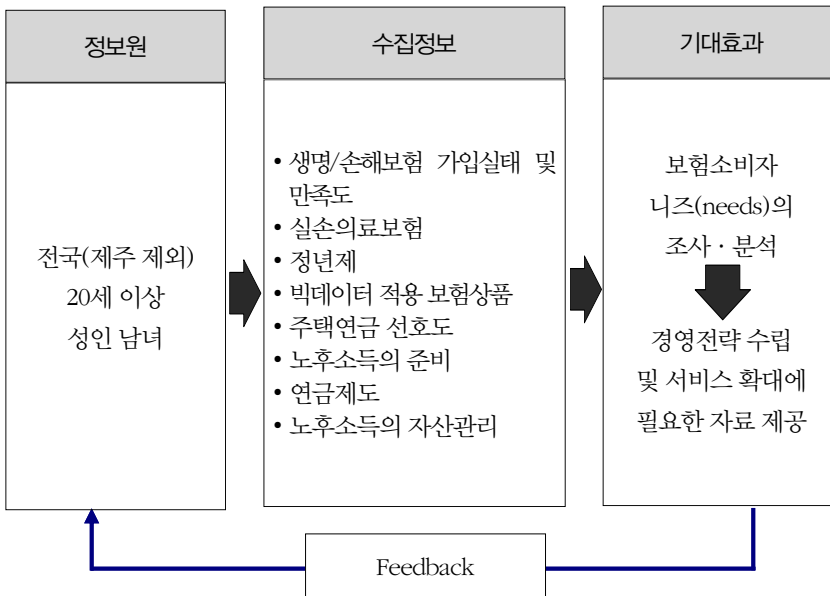


I.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의 목적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판매채널, 보험가입 의향 등 보험 수요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최근 실손의료보험, 고령화 관련 상품, 노후소득의 준비, 빅데이터 활용 등 보험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I-1〉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목적 및 기대효과



-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은퇴준비 및 노후생활과 관련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보험산업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집적하여 제공함으로써 보험 관련 정책 및 경영전략 수립, 그리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사항목

- 생명/손해보험 가입실태 및 가입경로, 만족도(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가입률(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률 및 가입건수(가구당/개인별)
 - 생명/손해보험 상품종류별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개인별)
 - 가입한 생명/손해보험회사 및 상품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제공서비스 만족도(개인별)
 - 가입한 생명/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개인별)
 - 보험금 지급 항목(가구당)
- 향후 생명/손해보험 가입 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
 - 가입한 보험회사 변경 의향(생명/자동차보험)
 - 향후 1년 내 가입 의향(생명/손해보험)
 - 향후 1년 내 선호 가입경로 및 가입 이유(생명/손해보험)
 - 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요인(생명/손해보험)
- 실손의료보험
 - 현재 건강상태
 -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종류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실손의료보험 유형과 종류
- 실손의료보험 계약 기간
- 실손의료보험 가입 경로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회사 선택 이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용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회사 만족도
- 실손의료보험 가입하지 않는 이유
-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정년제

- 직장 정년제 여부 및 적용 연령
- 정년 연장 동의 여부
- 정년 연장 관련 향후 전망
- 정년 연장 관련 노후 대비 금융상품 구입 의향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여부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 의향

■ 빅데이터

- 빅데이터 적용 보험 상품 가입 의향
- 빅데이터 적용 보험 상품 가입 영향 정도

■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 살고 있는 집의 거주형태 및 금액
-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주택연금 이용 의향
- 보유한 금융상품과 납입금액

■ 노후소득, 자산관리(은퇴, 노후생활)

-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 필요성과 예상금액
- 노후준비 평가
- 노후준비 부족 원인

■ 연금제도

- 연금제도의 가입여부/가입자/만족도/납입액/금융회사/가입기간
- 향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호방식

■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 계획 실행 여부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 재무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기관
- 재무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기관 선택 이유
- 재무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기관 변경 의향

3.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 크기

- 총 1,200명(유효표본)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가정 방문 일대일 개별 면접

■ 표본 추출방법

- 거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 추출법
※ 행정자치부, 2015년 5월 주민등록인구통계현황 기준

■ 최대 허용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 조사기간

- 2015년 5월 18일 ~ 2015년 6월 17일(약 1개월)

■ 조사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센터

4. 표본의 특성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I-1〉 표본의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거주 지역별	서울	(245)	20.4
	인천/경기	(354)	29.5
	대전/충청	(126)	10.5
	광주/전라	(123)	10.3
	대구/경북	(119)	9.9
	부산/울산/경남	(194)	16.2
	강원	(39)	3.3
지역 규모별	대도시	(553)	46.1
	중·소도시	(541)	45.9
	군지역	(96)	8.0
성별	남성	(593)	49.4
	여성	(607)	50.6
응답자 연령별	20대	(198)	16.5
	30대	(225)	18.8
	40대	(262)	21.8
	50대	(242)	20.2
	60대 이상	(273)	22.8
세대주 연령별	30대 이하	(232)	19.4
	40대	(274)	22.8
	50대	(379)	31.6
	60대 이상	(315)	26.3

〈표 I-1〉 표본의 특성(계속)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응답자 직업별	화이트칼라	(334)	27.8
	블루칼라	(245)	20.4
	자영업	(278)	23.2
	농/임/어업	(14)	1.2
	주부	(217)	18.1
	은퇴자	(56)	4.7
	무직/기타	(56)	4.7
세대주 직업별	화이트칼라	(334)	27.8
	블루칼라	(245)	20.4
	자영업	(278)	23.2
	농/임/어업	(14)	1.2
	주부	(217)	18.1
	은퇴자	(56)	4.7
	무직/기타	(56)	4.7
응답자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01)	8.4
	고졸	(548)	45.7
	대재 이상	(548)	45.7
	모름/무응답	(3)	0.3
세대주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3)	6.9
	고졸	(543)	45.3
	대재 이상	(570)	47.5
	모름/무응답	(4)	0.3
결혼 여부별	기혼	(957)	79.8
	미혼	(243)	20.3
연간가구 소득별	저소득(3,000만 원 미만)	(235)	19.6
	중소득(3,000~5,000만 원 미만)	(421)	35.1
	고소득(5,000만 원 이상)	(543)	45.3

주: 응답자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 세대주 직업별 분석에서 농/임/어업자와 같이 30표본 이하의 경우 분석결과와 활용 시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5. 구분 기준

■ 직업분류

- 화이트칼라: 경영/관리,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
-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
- 자영업: 자영업
- 농/림/수산업: 농/림/수산업
- 주부: 주부
- 은퇴자: 은퇴자

■ 보험회사 그룹 구분

- 생명보험회사
 - 대형사: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3개사)
 - 중·소형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DGB생명(구 우리아비바생명, LIG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하나HSBC, 카디프생명, KB생명, 교보라이프 플레닛생명, IBK연금보험, NH농협생명(14개사)
 - 외국사: 알리안츠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ACE생명(구 뉴욕생명), ING생명, AIA생명, 라이나생명, 푸르덴셜생명(8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기타 공제, 기타
- 손해보험회사
 - 대형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4개사)
 - 중·소형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에이스화재, NH농협손해보험(8개사)
 - 직판: 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 현대하이카다이렉트(4개사)
 - 공제/기타: 우체국 등 기타 공제, 기타

■ 보험종목

○ 생명보험상품: 개인보험에 한함(단체보험 제외).

〈표 1-2〉 생명보험 상품 구분 및 주요 내용

구분	설명
질병치료 중점 보장보험	주로 각종 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만성질환, 부인과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발병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비용 및 생활자금 보장 (예) 암, 질병, 여성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
재해중점 보장보험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 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각종 선택특약을 부가하여 재해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 생활보조금 지급 등 추가 보장이 가능 (예) 상해보험, 재해보험 등
종신 보험	계약자의 가입으로 평생보장이 가능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망이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입원 특약, 암 특약, 재해 특약, 성인병 특약 등과 같은 각종 특약을 조립하여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저축성 보험	실세금리를 반영한 이율로 적립하는 저축상품으로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납상품과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형상품 등과 함께 사망·장애 보험금 등의 보장성을 가미한 보험
연금 보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경제 활동기(연금지급 개시 전)에는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이 가능하고 노년기(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매년 일정액의 연금 지급
교육 보험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으로 교육기간별로 적정 학자금을 받으며, 예기치 못한 부모의 사망 등과 같은 경제능력 상실 시에도 자녀의 학자금 및 자립자금 지원
치명적 질병 보험 (CI)	CI보험은 치명적 질병(Critical Illness) 발병 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선 지급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고액의 치료비, 가족 생활비, 간병비 등 필요자금으로 활용하게 하고 사망 시에는 잔여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하는 상품으로 2002년 처음 도입
변액 보험	변액보험은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주식이나 국채, 공채, 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상품

○ 손해보험상품: 개인(가계성)보험에 한함(기업성보험 제외).

〈표 I-3〉 손해보험 상품 구분 및 주요 내용

구분		설명
자동차보험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장기 손해 보험	상해	신체의 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예) 운전자 보험 등
	건강	암, 성인병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예) 의료비, 질병 등
	종합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예) 재물, 상해 등
	저축성	노후생활자금 준비 및 증장기 목돈마련 등을 위한 저축성보험
	어린이	자녀의 질병과 상해를 중점 보장하는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실손 보상의 손해보험과 달리 계약당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상품으로 보험기간은 1년 이하임
통합 보험		상해, 질병, 화재, 재물, 배상책임 및 자동차보험까지 하나의 보험 증권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기존 전위험담보보험(All Risk Policy)을 계약자의 니즈에 맞게 개량한 상품

■ 판매채널 분류

- 대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형법인대리점(GA)등 전통채널
- 직판: 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 기타: 보험회사 임직원, TV 홈쇼핑 채널, 대형 할인점 등

Ⅱ. 생명보험

1. 생명보험 가입 현황

가. 생명보험 가구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 국내 가구당 생명보험 가입실태 조사를 통하여 가구당 보험가입 성향을 파악하고, 보험소비자의 잠재시장 발굴과 시장개척에 기여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87.2%로 2014년(85.8%) 대비 1.4%p 늘어나 2011년(87.3%) 수준을 회복한 반면, 가입건수는 2014년(4.0건) 대비 0.5건 감소한 3.5건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는 소폭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반영되고 은퇴 및 노후생활 준비의 공감대도 확산되면서 가입률이 증가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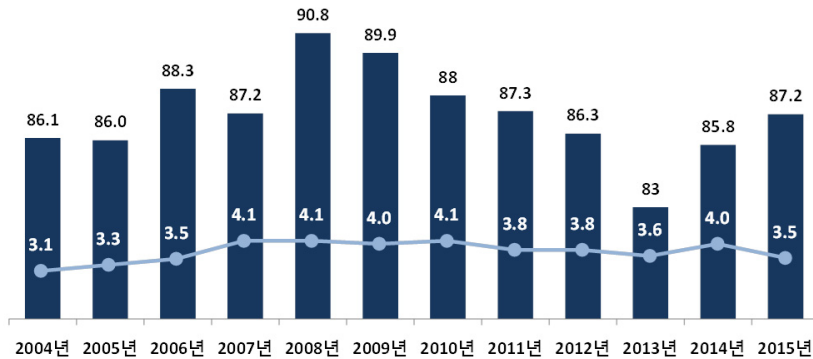
〈표 II-1〉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입률(%)	90.8	89.9	88.0	87.3	86.3	83.0	85.8	87.2
가입건수(건)	4.1	4.0	4.1	3.8	3.8	3.6	4.0	3.5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그림 II-1〉 2015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N=1,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이 증가한 가운데 은퇴자 (+5.8%p) 가입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반면, 가입건수는 전년대비 0.4건 감소하였으나 계층별로는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가입건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

〈표 Ⅱ-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직업 및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률(%p)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건수(건)
직업	화이트칼라	89.0	92.5	+3.5	4.5	4.1	-0.4
	블루칼라	84.5	83.3	-1.2	3.6	3.2	-0.4
	자영업	84.2	84.5	+0.3	3.8	3.4	-0.4
	농/임/어업	100.0	92.9	-7.1	3.8	3.9	+0.1
	주부	90.1	89.4	-0.7	4.3	3.5	-0.8
	은퇴자	78.1	83.9	+5.8	2.2	2.5	+0.3
	무직/기타	69.4	78.6	+9.2	3.6	2.9	-0.7
가구 소득	저소득	72.9	75.3	+2.4	1.8	1.6	-0.2
	중소득	85.8	86.2	+0.4	3.5	3.1	-0.4
	고소득	91.9	93.0	+1.1	5.5	4.7	-0.8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군지역 생명보험 가입률이 2014년(85.6%) 대비 10.2%p나 증가함.

〈표 Ⅱ-3〉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률(%p)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건수(건)
지역 규모	대도시	87.1	85.5	-1.6	3.8	3.3	-0.5
	중·소도시	84.6	87.3	+2.7	4.1	3.7	-0.4
	군지역	85.6	95.8	+10.2	4.1	3.8	-0.3

■ 생명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 78.7%로 가장 높아 기존 조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다음으로 종신보험 34.6%, 연금보험 23.8%, 저축성보험 13.6%, 치명적 질병보험(CI) 12.3%, 변액보험 5.3%, 교육보험 4.2% 순으로 조사됨.
- 종목별 가입건수도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명적 질병보험이 1.8건, 교육보험이 1.6건 종신보험이 1.4건, 변액보험이 1.3건,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 각각 1.2건으로 나타남.
- 질병 및 생명 등에 대한 보장보험 상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노후 대비 및 저축성보험 상품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과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종목별 가입률이 2014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은 3.2%p나 증가한 반면, 연금보험은 6.2%p, 종신보험은 3.4%p 감소함.

〈표 II-4〉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가입건수: 보험 종목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입률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79.9	81.4	82.1	77.6	77.3	75.6	75.5	78.7
	종신보험	48.3	44.9	41.4	41.8	37.2	36.6	38.0	34.6
	저축성보험	18.9	15.9	14.3	13.5	11.8	12.2	13.4	13.6
	연금보험	21.0	21.1	22.6	26.1	21.0	22.8	30.0	23.8
	교육보험	8.8	6.6	6.8	5.8	5.8	5.2	4.7	4.2
	치명적 질병보험	11.3	11.6	10.8	12.9	13.6	12.7	13.8	12.3
	변액보험	11.8	10.2	9.6	9.6	10.8	8.9	7.7	5.3
가입건수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2.2	2.4	2.6	2.5	2.5	2.5	2.5	2.3
	종신보험	1.4	1.5	1.4	1.5	1.4	1.5	1.6	1.4
	저축성보험	1.3	1.3	1.3	1.3	1.4	1.3	1.4	1.2
	연금보험	1.2	1.2	1.3	1.3	1.3	1.3	1.4	1.2
	교육보험	1.4	1.4	1.5	1.5	1.5	1.5	1.6	1.6
	치명적 질병보험	1.4	1.4	1.7	1.9	1.7	1.8	2.0	1.8
	변액보험	1.2	1.2	1.3	1.3	1.4	1.6	1.6	1.3

나. 생명보험 개인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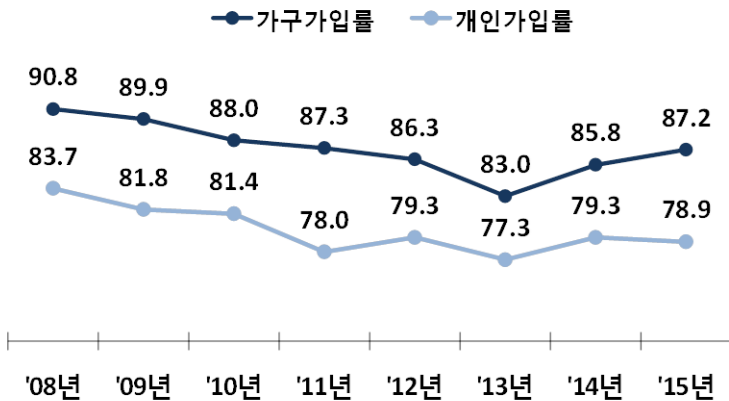
- 국내 개인별 보험가입 실태(가입 비율, 가입건수)를 조사하여 개인별 보험가입 성향과 잠재적인 확대 가능 시장을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5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8.9%로 2014년(79.3%) 대비 0.4%p 하락함.
- 2015년 조사에서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한 반면, 개인 가입률은 2011년부터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그림 II-2〉 생명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1,200 / 단위: %)



- 기혼자의 생명보험 가입률(기혼 82.4% > 미혼 65.0%)과 가입건수(기혼 1.7건 > 미혼 1.0건)는 미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기혼자 중에서는 자녀가 있는 계층의 생명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가 자녀가 없는 계층보다 높게 나타남.

- 2014년 조사결과 대비 기혼자는 가입률이 증가한 반면, 가입건수는 감소하였고, 미혼자는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기혼자 가입률은 전년대비 1.0%p 증가한 반면, 미혼자 가입률은 전년대비 5.5%p 감소함.
- 또한 자녀가 없는 계층의 가입률도 전년대비 4.1%p나 증가하여 자녀가 있는 계층보다 증가세가 크게 나타남.
- 자녀가 있는 계층의 경우, 1명 또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계층의 가입률과 가입건수가 모두 증가함.

〈표 II-5〉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결혼 여부별, 자녀 수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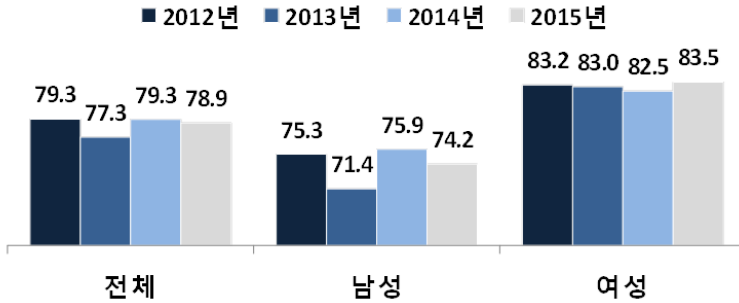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률(%p)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건수(건)
결혼 여부	기혼	81.4	82.4	+1.0	1.8	1.7	-0.1
	미혼	70.5	65.0	-5.5	1.3	1.0	-0.3
자녀 수	없음	74.6	78.7	+4.1	1.3	1.4	+0.1
	1명	80.5	81.6	+1.1	1.8	1.7	-0.1
	2명	86.4	86.0	-0.4	2.1	1.9	-0.2
	3명 이상	80.0	80.4	+0.4	2.0	1.8	-0.2

- 성별에 따른 생명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여성이 83.5%, 남성이 74.2%로, 여전히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도(82.5%) 대비 1.0%p 상승한 반면, 남성의 가입률은 전년도(75.9%) 대비 1.7%p 감소하면서 전체 가입률 하락에 더 크게 기여함.

〈그림 II-3〉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1,200 / 단위: %)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중소득, 고소득 가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표 II-6〉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률(%p)
저소득	62.5	67.5	68.7	71.1	+2.4
중소득	84.1	78.8	78.4	78.6	+0.2
고소득	85.8	82.8	85.2	82.5	-2.7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3.5%로 남성(74.2%)에 비하여 9.3%p 높음.
- 기혼자 가입률은 82.4%로 미혼자(65.0%)보다 17.4%p 높게 나타났으며, 가입 건수는 기혼자 1.7건, 미혼자 1.0건으로 기혼자가 0.7건 더 높게 나타남.
- 기혼 여성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86.4%로 기혼 남성(78.0%)에 비하여 8.4%p 높으며, 미혼 여성 가입률도 69.3%로 미혼 남성(62.0%)에 비해 7.3%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성별로 기혼과 미혼의 차이를 비교하면, 남성,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78.0%, 86.4%)의 가입률이 미혼자(각각 62.0%, 69.3%)보다 높게 나타남.
- 가입건수에서도 남성, 여성 모두 기혼자(각각 1.6건, 1.8건)의 가입건수가 미혼자(각각 0.9건, 1.2건)보다 많아 향후 기혼자의 잠재적 보험가입 가능성 및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7〉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가입률(%)	82.4	65.0	74.2		83.5	
			78.0	62.0	86.4	69.3
가입건수(건)	1.7	1.0	1.4		1.7	
			1.6	0.9	1.8	1.2

주: 가입건수는 생명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자녀 수별

- 기혼자 중 자녀가 있는 계층의 보험 가입률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계층의 보험 가입률은 7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편, 자녀가 있는 계층 가운데 특히 자녀가 2명(86.0%)인 계층의 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2014년과 동일한 경향을 보임.

〈표 II-8〉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자녀 수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가입률(%)	78.7	81.6	86.0	80.4
가입건수(건)	1.4	1.7	1.9	1.8
2014년 대비 가입률(%p)	+4.1	+1.1	-0.4	+0.4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연령별로는 30대(80.0%), 40대(86.3%), 50대(82.2%)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가입건수 역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30대 1.7건, 40대 1.9건, 50대 1.9건).
- 40대와 60대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각각 0.5%p와 4.1%p 상승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전년대비 1.2%p~3.4%p 하락함.
- 한편, 20대(67.2%)와 60대 이상(76.6%) 생명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타 연령층 대비 낮았으며, 이는 2014년과 유사한 결과임.

〈표 II-9〉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7.2	80.0	86.3	82.2	76.6
가입건수(건)	1.1	1.7	1.9	1.9	1.3
2014년 대비 가입률(%p)	-2.1	-1.2	+0.5	-3.4	+4.1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군지역이 87.5%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9.7%, 대도시 7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군지역 가입률이 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은 2014년 조사와 다른 점임.
- 가입건수는 대도시가 1.5건, 중·소도시 1.6건, 군지역 1.7건으로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건수가 높아 2014년과 동일한 형태로 나타남.

〈표 II-10〉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대도시	76.7	1.5
중·소도시	79.7	1.6
군지역	87.5	1.7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학력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중졸 이하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75.2%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7.1%p 낮으며, 가입건수 역시 1.2건으로 대재 이상 학력자보다 0.5건 적음.
- 중졸 이하의 가입률은 2014년 조사(70.5%)에 비해 4.7%p 증가한 75.2%였고, 대재 이상의 가입률은 2014년 조사(80.4%)에 비해 1.9%p 증가한 82.3%로 학력수준에 의한 가입률의 격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1〉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75.2	1.2
고졸	76.1	1.5
대재 이상	82.3	1.7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8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부(84.8%), 블루칼라(76.3%), 자영업(74.8%), 은퇴자(6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입건수는 화이트칼라가 1.8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부(1.7건), 자영업(1.6건), 블루칼라(1.4건), 은퇴자(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입률 형태와는 다르게 나타남.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퇴자, 무직/기타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가입률과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12〉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5.0	1.8
블루칼라	76.3	1.4
자영업	74.8	1.6
농/임/어업	92.9	1.5
주부	84.8	1.7
은퇴자	69.6	1.1
무직/기타	57.1	0.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률(저소득 71.1% < 중소득 78.6% < 고소득 82.5%)과 가입건수(저소득 1.1건 < 중소득 1.5건 < 고소득 1.8건)가 모두 높게 나타남.

〈표 II-13〉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71.1	1.1
중소득	78.6	1.5
고소득	82.5	1.8

■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생명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저축성보험과 사망보장보험의 가입률이 전년대비 각각 6.4%p와 4.4%p 감소한 반면, 변액보험과 질병보장보험은 전년대비 1.3%p와 0.6%p 증가함.
-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질병보장보험은 여성(75.6%), 40대(74.4%)와 60대 이상(74.0%) 연령층에서 특히 높은 특징을 보임.

-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은 30대(28.0%)와 40대(29.8%), 50대(31.0%), 화이트칼라(28.4%), 자영업(26.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저축성보험은 여성(21.1%), 40대(30.5%), 화이트칼라(2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4〉 생명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특성별	보험 종목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성별	남성	64.6	23.6	17.4	6.4	12.1
	여성	75.6	21.3	21.1	6.8	12.2
연령	20대	59.6	9.1	8.1	4.5	10.6
	30대	68.4	28.0	21.8	10.7	12.4
	40대	74.4	29.8	30.5	7.6	12.2
	50대	71.5	31.0	23.6	9.1	16.9
	60대 이상	74.0	12.8	10.6	1.5	8.8
직업	화이트칼라	72.8	28.4	24.3	10.8	12.9
	블루칼라	70.2	19.2	14.7	5.7	12.2
	자영업	66.5	26.6	22.7	4.7	14.0
	농/임/어업	85.7	21.4	14.3	0.0	14.3
	주부	75.6	18.9	19.4	6.9	11.5
	은퇴자	67.9	8.9	10.7	0.0	7.1
	무직/기타	50.0	7.1	1.8	1.8	5.4
2015년 가입률(%)		70.2	22.4	19.3	6.6	12.2
2014년 가입률(%)		69.6	26.8	25.7	5.3	13.4
차이(%p)		0.6	-4.3	-6.4	1.3	-1.3

주: 농/임/어업 종사자는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2.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생명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 경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개발 가능한 가입 경로를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대면채널(97.3%), 특히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을 통해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통적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면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가입이 전체의 95% 이상을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음.
 - 직판채널은 1.6%, 은행²⁾을 통한 가입은 1.7%로 생명보험 가입 채널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5〉 생명보험 가입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5.3	95.4	96.3	96.3	96.0	95.5	96.4	97.3
직판	3.9	2.0	1.6	2.1	2.6	2.4	1.9	1.6
은행	4.6	3.1	2.5	1.9	1.6	3.1	3.2	1.7

주: 1) 상기 구성비는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채널별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

2) 판매채널의 구분은 〈I. 조사의 개요〉 참고.

3) 2008, 2009년은 복수응답을 포함하며, 기타 채널은 생략함(이하 동일).

- 2) 최근 저축성보험의 성장과 함께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가운데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나, 본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보험가입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2014년에 이어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16〉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6.6	97.8
직판	1.1	2.0
은행	2.3	1.2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전 연령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과 은행의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5% 미만의 수준으로 매우 낮음.

〈표 II-17〉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2.5	97.8	98.7	99.0	96.7
직판	4.5	1.1	0.9	1.5	1.0
은행	3.0	1.7	2.2	1.0	1.0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전 지역에 걸쳐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행채널은 군지역에서 3.6%, 직판채널은 중·소도시(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8〉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도시	대면	95.7	96.7	95.7	95.9	96.8	96.2	95.8	96.9
	직판	2.9	2.0	2.4	1.6	2.1	2.7	1.8	0.9
	은행	4.3	1.5	2.0	1.4	1.7	2.9	3.3	1.9
중·소도시	대면	95.0	95.0	97.0	96.6	94.8	94.8	97.1	97.7
	직판	4.7	2.0	0.9	2.9	3.2	2.0	2.4	2.5
	은행	4.3	3.4	3.0	2.5	1.5	2.9	1.9	1.1
군지역	대면	94.6	90.8	96.6	96.5	97.4	94.6	96.1	96.4
	직판	5.4	2.3	1.1	1.2	2.6	2.7	0.0	0.0
	은행	7.6	9.2	2.3	2.3	1.3	5.4	9.2	3.6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부분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 수준으로 높음.
- 블루칼라에서는 은행(3.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19〉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6.5	96.8	98.1	92.3	99.5	97.4	90.6
직판	2.1	0.5	2.4	0.0	1.1	0.0	3.1
은행	1.8	3.7	0.5	7.7	0.5	0.0	3.1

주: 농/임/어업,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모든 학력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0〉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4.7	97.8	97.1
직판	1.3	1.0	2.2
은행	0.0	2.4	1.3

■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대면채널 가입이 95% 내외 수준으로 높음.

〈표 II-21〉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0	98.8	97.3
직판	1.8	1.5	1.6
은행	1.8	1.8	1.6

나. 생명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보험 종목별 생명보험 가입 경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종목별 가입경로 선택 성향을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직판 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대부분 보험 종목에서 5% 이하로 낮게 나타남.

- 보험 상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축의 성격이 강한 저축성보험은 대면채널(94.8%)을 통한 가입률이 타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2〉 생명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저축성보험	사망보장보험	질병보장보험	변액보험
대면	94.8	98.9	95.6	98.7
직판	1.7	0.4	1.0	0.0
은행	1.7	0.4	1.4	0.0

3)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의 채널별 구성비

- 저축성보험 판매채널로는 대면채널이 94.8%로 가장 높고, 은행은 1.7%, 직판 채널을 통한 가입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23〉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86.9	92.7	96.5	94.7	89.7	93.2	94.5	94.8
직판	1.6	2.7	0.8	2.0	2.8	0.9	1.3	1.7
은행	9.6	4.1	2.4	2.0	3.7	5.4	4.9	1.7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남성이 96.1%로 여성(93.8%)보다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24〉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6.1	93.8
직판	1.9	1.6
은행	1.0	2.3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가 100.0%로 특히 높음.
- 반면, 50대(93.0%), 60대(89.7%)가 타 연령 대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50대는 직판(5.3%), 60대 이상 연령대는 은행(3.4%)을 통한 가입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5〉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100.0	98.0	95.0	93.0	89.7
직판	0.0	0.0	1.3	5.3	0.0
은행	0.0	2.0	2.5	0.0	3.4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거주 지역별로는 대면채널을 통한 저축성보험 가입이 중·소도시(95.6%), 군 지역(94.1%), 대도시(94.0%) 순으로 나타남.

〈표 II-26〉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도시	대면	91.7	96.5	96.4	96.9	90.0	92.5	91.9	94.0
	직판	1.4	2.4	1.8	0.8	2.7	1.9	0.7	1.0
	은행	6.2	1.2	1.8	2.4	4.5	3.7	7.4	3.0
중·소도시	대면	83.1	91.7	96.6	91.1	89.5	95.0	98.0	95.6
	직판	1.4	2.8	0.0	4.4	3.5	0.0	2.0	2.6
	은행	11.3	4.6	2.5	2.2	2.3	5.9	1.3	0.9
군지역	대면	80.8	84.0	95.7	96.7	88.9	85.7	85.0	94.1
	직판	3.8	4.0	0.0	0.0	0.0	0.0	0.0	0.0
	은행	19.2	12.0	4.3	0.0	5.6	14.3	15.0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블루칼라에서 97.2%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은행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3.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27〉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2.6	97.2	95.2	100.0	97.6	83.3	100.0
직판	2.5	0.0	3.2	0.0	0.0	0.0	0.0
은행	3.7	0.0	0.0	0.0	2.4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28〉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87.5	94.7	95.3
직판	0.0	1.1	2.4
은행	0.0	2.1	1.6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 가입 비율이 95% 내외로 압도적인 가운데, 은행을 통한 가입 비율은 중소득 계층(3.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29〉 저축성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7	94.0	95.3
직판	0.0	1.2	2.3
은행	0.0	3.6	0.8

주: 저소득은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4) 사망보장보험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사망보장보험 가입자의 98.9%가 대면채널을 통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판(0.4%)과 은행(0.4%)을 통한 가입은 1% 이하 수준임.

〈표 II-30〉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8.3	96.3	96.9	97.2	95.4	97.7	98.8	98.9
직판	0.2	1.1	0.3	0.9	1.1	0.3	0.6	0.4
은행	1.2	1.4	0.9	0.3	1.4	0.7	0.3	0.4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자와 여자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장보험 가입이 98% 이상으로 압도적임.

〈표 II-31〉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9.3	98.4
직판	0.0	0.8
은행	0.7	0.0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모든 연령대에서 95%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20대, 30대, 40대에서는 모두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32〉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100.0	100.0	100.0	97.3	97.1
직판	0.0	0.0	0.0	0.0	2.9
은행	0.0	0.0	0.0	1.3	0.0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95% 내외 수준이며, 은행을 통한 가입 비율은 군지역(4.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33〉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도시	대면	98.0	98.7	94.6	98.7	96.3	96.7	98.7	99.2
	직판	0.5	0.6	0.7	0.0	0.0	0.7	0.6	0.0
	은행	1.5	0.6	1.4	0.0	1.5	0.0	0.6	0.0
중·소도시	대면	99.5	94.5	99.3	95.9	94.4	98.5	98.6	99.2
	직판	0.0	1.2	0.0	2.1	1.6	0.0	0.7	0.8
	은행	0.0	1.8	0.7	0.0	1.6	1.5	0.0	0.0
군지역	대면	93.5	94.1	96.4	95.8	96.0	100.0	100.0	95.7
	직판	0.0	2.9	0.0	0.0	4.0	0.0	0.0	0.0
	은행	6.5	2.9	0.0	4.2	0.0	0.0	0.0	4.3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농/임/어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비율이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4〉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무직/기타
대면	98.9	100.0	98.6	66.7	100.0	100.0
직판	0.0	0.0	1.4	0.0	0.0	0.0
은행	1.1	0.0	0.0	33.3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사망보장보험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5〉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98.0	99.4
직판	0.0	1.0	0.0
은행	0.0	1.0	0.0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내외로 높음.
- 은행을 통한 가입 비율은 저소득(5.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36〉 사망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7	99.1	99.3
직판	0.0	0.9	0.0
은행	5.3	0.0	0.0

주: 저소득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질병보장보험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 질병보장보험은 대면채널 가입률이 95.6%로 가장 높아 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와 같은 전통적 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37〉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3.0	94.4	95.4	95.9	94.9	94.2	95.6	95.6
직판	3.0	1.4	1.2	1.1	2.1	2.1	1.4	1.0
은행	2.0	1.9	1.5	1.2	0.6	1.7	1.9	1.4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나타남.

〈표 II-38〉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4.3	96.7
직판	0.8	1.1
은행	2.3	0.7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5% 내외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 직판(5.1%)과 은행(3.4%)을 통한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39〉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89.8	95.5	96.9	97.7	96.0
직판	5.1	0.6	0.0	0.0	0.5
은행	3.4	1.3	2.1	0.6	0.5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대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95% 내외 수준으로 높음.

〈표 II-40〉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도시	대면	94.2	95.7	95.1	95.0	95.1	94.8	95.0	94.7
	직판	2.2	2.0	1.2	1.3	1.6	2.1	1.2	0.8
	은행	1.9	1.0	1.0	0.8	0.7	1.3	1.7	1.6
중·소도시	대면	91.6	93.3	95.5	96.8	94.0	93.6	96.2	96.2
	직판	3.8	1.1	1.0	0.9	2.9	1.9	1.9	1.3
	은행	1.7	2.2	2.1	1.4	0.6	1.9	1.4	1.0
군지역	대면	92.7	92.9	96.1	96.2	98.4	94.1	95.5	97.4
	직판	3.7	0.0	1.3	1.3	1.6	2.9	0.0	0.0
	은행	3.7	5.7	1.3	2.6	0.0	2.9	6.0	2.6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직업별로 모든 직업군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 수준으로 높음.

〈표 II-41〉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3.8	94.2	97.3	100.0	98.2	97.4	89.3
직판	1.6	0.6	0.5	0.0	0.6	0.0	3.6
은행	1.2	4.1	0.5	0.0	0.0	0.0	3.6

주: 농/임/어업, 무직/기타는 표본수가 적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모든 학력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높음.
- 은행을 통한 가입은 고졸(2.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42〉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4.7	96.5	94.9
직판	1.3	0.3	1.5
은행	0.0	2.1	1.0

■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90% 이상으로 높음.

〈표 II-43〉 질병보장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3	97.2	95.0
직판	1.9	0.7	0.8
은행	1.3	1.4	1.5

다.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목적

- 향후 1년 내 생명보험 상품 구입 의향과 가입 경로를 파악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판매채널을 알아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보험 가입 시 판매채널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4.1%로 가장 높았으며, 직판이 8.8%, 은행은 7.1%로 나타남.
- 직판채널(8.8%)과 은행채널(7.1%)의 향후 선호도가 현재 채널 선호도(직판 1.6%, 은행 1.7%)보다 높다는 점에서 향후 두 채널의 잠재적 성장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임.

〈표 II-44〉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7.3	84.1
직판	1.6	8.8
은행	1.7	7.1
기타	2.7	2.9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선호 채널로 대면채널을 가장 많이 꼽음.

〈표 II-45〉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3.7	84.6
직판	8.8	8.9
은행	6.7	7.5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내외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이 94.6%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79.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한편, 20대와 30대의 직판채널 선호도가 각각 16.1%와 14.5%로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6〉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20대	79.5	16.1	7.1
30대	80.0	14.5	8.2
40대	87.4	4.9	7.8
50대	84.7	1.4	8.3
60대 이상	94.6	0.0	1.8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II-47〉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대도시	86.2	7.9	7.4
중·소도시	81.1	9.9	7.1
군지역	89.5	7.9	5.3

주: 군지역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자영업에서 91.8%로 특히 높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화이트칼라(10.4%),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주부(11.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48〉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82.9	83.3	91.8	80.0	81.4	100.0	71.4
직판	10.4	7.4	6.8	20.0	5.7	0.0	23.8
은행	7.9	6.5	4.1	0.0	11.4	0.0	4.8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생명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학력 계층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II-49〉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중졸 이하	100.0	0.0	0.0
고졸	84.6	7.4	5.7
대재 이상	82.3	10.6	8.7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질병보장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5%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질병보장보험은 77.6%로 상대적으로 낮음.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질병보장보험(14.7%)이, 은행채널에 의한 선호도는 저축성보험(10.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0〉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질병보장보험	77.6	14.7	2.9
사망보장보험	90.6	7.1	1.2
저축성보험	84.3	6.5	10.1
변액보험	92.9	0.0	7.1

주: 변액보험은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라. 향후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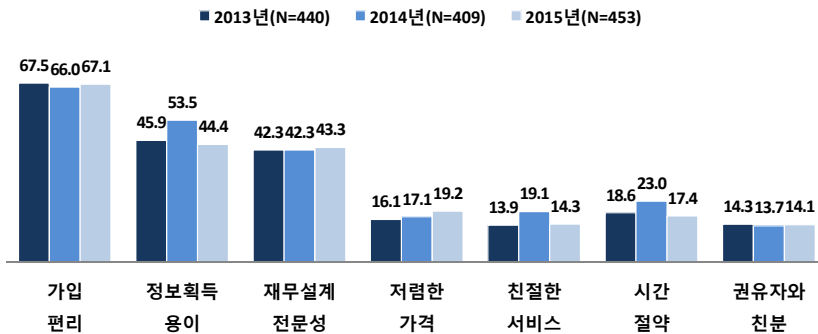
- 향후 1년 내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입경로에 대한 선호 이유를 종목별로 파악하여, 향후 새로운 판매채널 개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선호하는 가입 경로에 대한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67.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의 용이성(44.4%), 재무 설계의 전문성(4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생명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향후 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입 편리성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재무 설계의 전문성(47.8%), 정보획득의 용이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직판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입 편리(77.5%)와 저렴한 가격(57.5%), 시간 절약(42.5%)을 선택했고, 은행채널의 경우에는 높은 접근성을 활용한 가입의 편리성(71.9%)과 정보획득 용이성(50.0%), 재무 설계의 전문성(40.6%)을 선호하는 이유로 선택함.

〈표 II-51〉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가입 편리	65.6	77.5	71.9
정보획득 용이	47.0	20.0	50.0
재무 설계 전문성	47.8	22.5	40.6
저렴한 가격	13.4	57.5	25.0
친절한 서비스	15.7	5.0	18.8
시간 절약	16.8	42.5	6.3
권유자 친분	16.0	2.5	3.1

주: 1)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2) 직판과 은행채널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

- 보험 종목별 향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선호 이유로는 변액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에서 가입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정보획득 용이성과 재무 설계의 전문성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
- 변액보험을 대면채널로 선호하는 이유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편리(50.0%)가 재무 설계의 전문성(5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II-52〉 생명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가입 편리	58.4	61.0	67.4	50.0
정보획득 용이	39.2	49.4	50.0	46.2
재무 설계 전문성	50.7	41.6	34.1	59.6
저렴한 가격	11.0	9.1	9.1	9.6
친절한 서비스	17.2	2.6	16.7	15.4
시간 절약	17.7	9.1	13.6	5.8
권유자 친분	18.2	24.7	10.6	11.5

3. 향후 생명보험 가입 의향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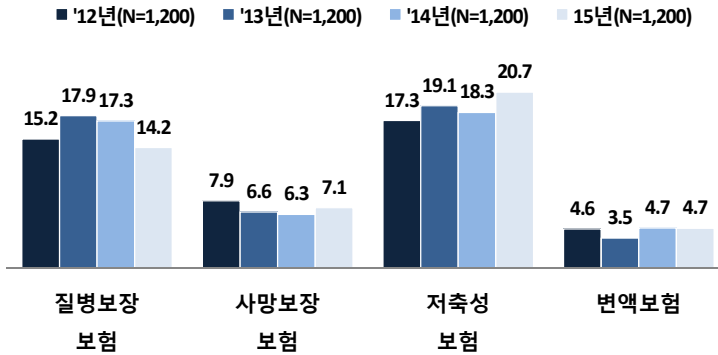
1) 조사 목적

- 향후 1년 이내 생명보험 상품 종목별 가입 의향을 조사하여 미래 보험가입 수요 예측과 시장 성장성 분석에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모든 보험 종목의 가입 의향 비율이 2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남.
 - 종목별로는 저축성보험의 가입 의향이 전년(18.3%)대비 2.4%p 상승한 20.7%, 사망보장보험의 가입 의향이 전년(6.3%)대비 0.8%p 상승한 7.1%로 나타났으며, 질병보장보험(14.2%)은 전년(17.3%)대비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 저축성보험과 사망보장보험 가입 의향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병보장보험은 소폭 감소함.

〈표 II-5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질병보장 보험	사망보장 보험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기타
2014년	17.3	6.3	18.3	4.7	4.9
2015년	14.2	7.1	20.7	4.7	5.1
2014년 대비 가입 의향(%p)	-3.1	+0.8	+2.4	0.0	+0.2

■ 각 보험 종목별 비가입자의 향후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가입 의향이 18.5%로 가장 높았음.

○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의 뒤를 이어 저축성보험 12.0%, 연금보험 11.9%, 종신보험 8.8%, 치명적 질병보험 5.5%, 재해중점보장보험 5.2% 등의 순이며, 그 외 보험 종목의 향후 가입 의향은 5% 이하로 나타남.

〈표 Ⅱ-54〉 생명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가입자	비가입자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	68.0	6.1	18.5
재해중점보장보험	12.2	4.1	5.2
종신보험	22.4	1.1	8.8
저축성보험	7.8	6.4	12.0
연금보험	12.7	5.9	11.9
교육보험	1.4	5.9	2.6
치명적 질병보험	9.0	4.6	5.5
변액연금보험	3.4	7.3	2.7
변액유니버설보험	2.3	0.0	1.6
변액종신보험	1.5	0.0	0.8

나.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미혼자 가입 의향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 기혼자보다 높게 나타남.
- 미혼 남성은 저축성보험 가입 의향이 28.9%로 가장 높았고, 질병보장보험이 21.8%, 사망보장보험이 14.8%로 뒤를 이음.
- 미혼 여성도 저축성보험(25.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질병보장보험(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5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보험
남성	기혼	13.3	5.8	17.5	5.5	4.7
	미혼	21.8	14.8	28.9	7.0	9.9
여성	기혼	11.1	5.7	20.2	3.8	3.8
	미혼	22.8	8.9	25.7	2.0	6.9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기타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20대의 향후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특히, 20대는 저축성보험(30.8%)과 질병보장보험(21.2%)의 가입 의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56〉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20대	21.2	15.2	30.8	8.1	6.6
30대	18.7	8.9	27.6	4.9	5.8
40대	10.3	6.9	27.1	5.0	4.2
50대	12.0	5.4	15.3	4.1	5.4
60대 이상	11.0	1.5	6.2	2.2	4.0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화이트칼라는 모든 보험 종목에서 보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저축성보험(25.1%)과 질병보장보험(19.5%)의 가입 의향이 다른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57〉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화이트칼라	19.5	8.4	25.1	6.0	5.1
블루칼라	15.1	8.6	23.3	6.5	6.9
자영업	10.1	4.7	18.7	4.0	5.4
농/임/어업	14.3	14.3	14.3	7.1	7.1
주부	9.7	7.8	19.8	1.8	3.2
은퇴자	10.7	1.8	3.6	5.4	1.8
무직/기타	19.6	5.4	14.3	1.8	5.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저축성보험의 가입 의향은 중소득(23.5%) 가구가 저소득(11.5%), 고소득(22.3%)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명보험 가입 의향이 높게 나타남.

〈표 II-58〉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질병보장보험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
저소득	16.2	3.8	11.5	4.7	5.5
중소득	13.5	7.1	23.5	3.8	5.2
고소득	13.8	8.5	22.3	5.3	4.8

4. 생명보험 상품 니즈

가. 생명보험 보상 위험 분석 및 보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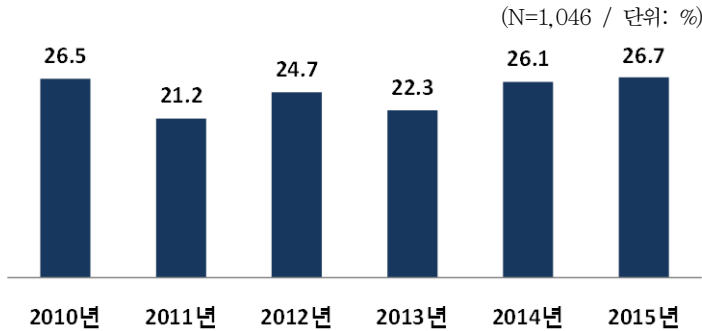
1) 조사 목적

- 생명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응답자의 관련 경험 자료를 조사하고,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 직원의 도움 여부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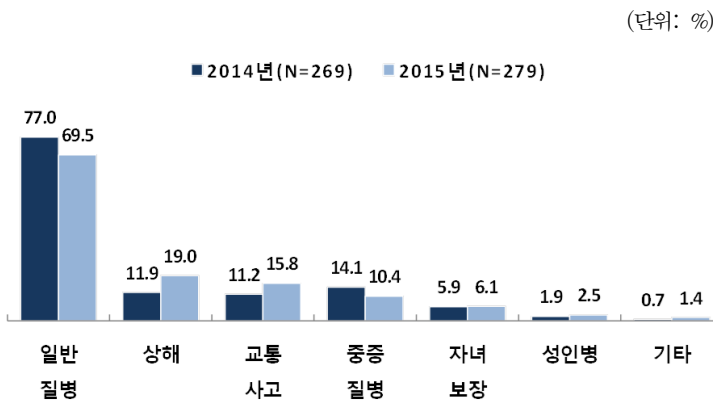
- 생명보험 가입 가구(N=1,046) 중 26.7%가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도(26.1%) 대비 0.6%p 증가함.

〈그림 II-6〉 생명보험 보상 경험



- 보상 항목으로 여전히 일반질병이 69.5%로 가장 많고, 그 외 상해(19.0%), 교통사고(15.8%), 중증질병(10.4%), 자녀 보장(6.1%), 그리고 성인병(2.5%) 등의 순임.
- 일반질병(-7.5%p)과 중증질병(-3.7%p)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상해(+7.1%p), 교통사고(+4.6%p), 성인병(+0.6%p), 그리고 자녀보장(+0.2%p)에 의한 보험금 지급 비율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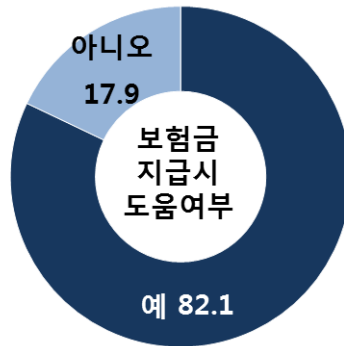
〈그림 II-7〉 생명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 한편, 보험금 수령자(N=279) 10명 중 약 8명(82.1%)이 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 및 과정에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8〉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N=27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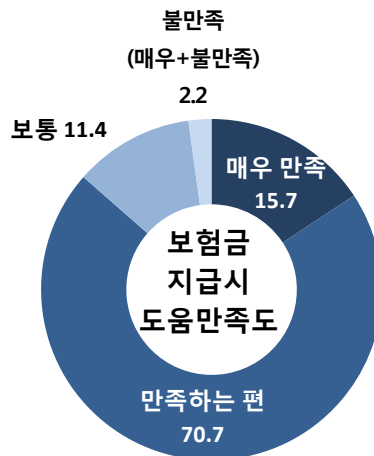


-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을 받은 응답자(N=229)의 86.4%가 보험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에 대해 만족(만족하는 편 70.7% + 매우 만족 15.7%)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진행과정에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보임.

〈그림 II-9〉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N=229 / 단위: %)



3) 세부분석

■ 생명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 일반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전 연령층에서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20대에서 74.2%로 가장 높았음.
- 상해는 30대 이상(2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사고는 20대(22.6%), 30대(2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59〉 생명보험 보상 항목: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반질병	69.5	74.2	63.6	73.8	62.1	72.8
상해	19.0	16.1	25.0	21.5	17.2	16.0
교통사고	15.8	22.6	20.5	18.5	17.2	7.4
중증질병	10.4	12.9	4.5	7.7	17.2	9.9
자녀에 대한 보장	6.1	0.0	25.0	7.7	1.7	0.0
성인병	2.5	0.0	0.0	0.0	0.0	8.6
저축	1.4	0.0	0.0	3.1	1.7	1.2
생명보험 전체	26.7	9.1	22.6	24.6	26.2	34.0

주: 생명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보상 위험: 지역, 가구 소득별

- 지역 규모, 소득에 상관없이 일반질병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운데, 중·소도시(73.9%)의 보상 경험이 대도시에 비해 높고, 상해는 대도시(23.6%)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 경험은 중·소도시(17.6%)가 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소득 가구에서 일반질병에 대한 보상 경험이 71.9%로 저소득, 고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해에 대한 보상 경험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24.2%)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경험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21.2%) 가구, 중증질환으로 인한 보상경험은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15.8%) 가구에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 -60〉 생명보험 보상 항목: 지역,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일반질환	69.5	64.5	73.9	66.7	66.7	71.9	68.9
상해	19.0	23.6	14.1	25.9	14.0	14.6	24.2
교통사고	15.8	10.9	17.6	25.9	8.8	11.2	21.2
중증질환	10.4	11.8	9.9	7.4	15.8	11.2	7.6
자녀에 대한 보장	6.1	5.5	6.3	7.4	0.0	7.9	7.6
성인병	2.5	5.5	0.7	0.0	5.3	3.4	0.8
저축	1.4	2.7	0.7	0.0	0.0	1.1	2.3
생명보험 전체	26.7	23.3	29.5	29.3	32.2	24.5	26.1

주: 생명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특성별

- 보험금 지급 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군지역(96.3%), 자영업(89.5%), 중졸 이하(87.5%), 그리고 저소득(8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61〉 보험금 지급 시 도움 여부: 특성별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지역규모	대도시	78.2	21.8
	중·소도시	82.4	17.6
	군지역	96.3	3.7
성별	남성	79.8	20.2
	여성	84.0	16.0
응답자 연령	20대	77.4	22.6
	30대	84.1	15.9
	40대	84.6	15.4
	50대	77.6	22.4
	60대 이상	84.0	16.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7.5	22.5
	블루칼라	83.7	16.3
	자영업	89.5	10.5
	농/임/어업	100.0	0.0
	주부	82.3	17.7
	은퇴자	68.8	31.3
	무직/기타	77.8	22.2
응답자 학력	중졸 이하	87.5	12.5
	고졸	81.4	18.6
	대재 이상	81.7	18.3
가구 소득	저소득	86.0	14.0
	중소득	79.8	20.2
	고소득	81.8	18.2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특성별

- 보험금 지급 신청 및 과정에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는 대부분 계층에서 4점 내외 수준인 가운데, 군지역(4.12점), 남성(4.03점), 30대(4.03점), 그리고 자영업(4.14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Ⅱ-62〉 보험금 지급 시 도움에 대한 만족도: 특성별

(단위: %)

특성별		불만족	보통	만족	평균(점)
지역규모	대도시	2.3	9.3	88.4	3.93
	중·소도시	2.6	13.7	83.8	3.99
	군지역	0.0	7.7	92.3	4.12
성별	남성	1.0	10.7	88.3	4.03
	여성	3.2	11.9	84.9	3.94
응답자 연령	20대	8.3	8.3	83.3	3.83
	30대	0.0	13.5	86.5	4.03
	40대	5.5	10.9	83.6	3.95
	50대	0.0	11.1	88.9	4.02
	60대 이상	0.0	11.8	88.2	4.0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5	8.1	85.5	3.90
	블루칼라	0.0	14.6	85.4	4.00
	자영업	0.0	7.8	92.2	4.14
	농/임/어업	0.0	16.7	83.3	3.83
	주부	0.0	13.7	86.3	4.00
	은퇴자	0.0	27.3	72.7	3.82
	무직/기타	14.3	0.0	85.7	3.71
응답자 학력	중졸 이하	0.0	14.3	85.7	4.00
	고졸	1.9	8.6	89.5	3.99
	대재 이상	2.1	12.8	85.1	4.01
가구 소득	저소득	0.0	14.3	85.7	3.98
	중소득	1.4	14.1	84.5	3.99
	고소득	3.7	8.3	88.0	3.98

주: 1)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평균(점)은 5점 척도임.

나.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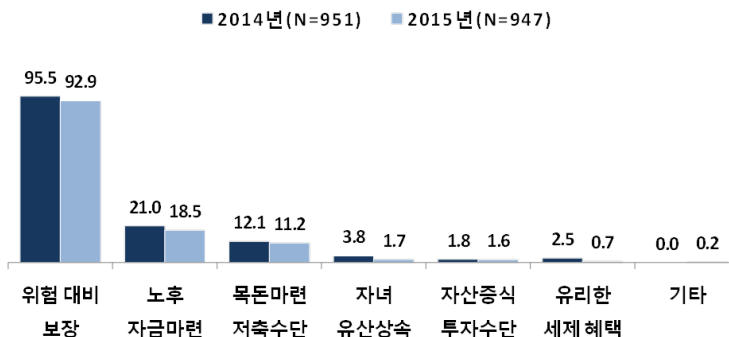
- 소비자의 생명보험 상품 가입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보험 상품 판매, 특히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92.9%)을 생명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이는 생명보험이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이 적절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후자금 마련(18.5%)과 목돈마련 저축수단(11.2%) 이유가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노후준비와 저축수단으로써의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이 전년에 비하여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유산상속, 자산증식, 자녀교육, 세제혜택을 위한 보험 가입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음.

〈그림 II-10〉 생명보험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보험종목별 가입 이유

- 보험종목별로 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질병보장보험(96.9%)과 사망보장보험(73.6%)의 경우 위험보장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저축성보험 가입자는 가입 이유로 노후자금 마련(51.9%)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외에도 저축수단(32.5%), 위험에 대비한 보장(22.1%)을 가입 이유로 꼽아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저축수단 기능, 그리고 위험보장 등 다양한 목적이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은 노후자금 마련(43.0%), 위험에 대비한 보장(34.2%)을 가입 이유로 꼽았으며, 특히 자산증식(5.1%)에 대한 비율이 다른 보험 상품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63〉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 보장	노후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수단	자산증식	유산상속	기타
질병보장보험	96.9	0.8	0.0	1.9	0.2	0.1	0.1
사망보장보험	73.6	13.0	0.7	5.6	2.6	4.1	0.4
저축성보험	22.1	51.9	0.4	32.5	1.7	0.4	0.4
변액보험	34.2	43.0	6.3	11.4	5.1	3.8	1.3
기타	97.3	0.7	0.0	2.1	0.0	0.0	0.0

3) 저축성보험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높음.
-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여성(36.7%), 30대(3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은 남성(27.2%), 40대(27.5%)와 60대 이상(2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64〉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노후자금 마련	49.5	53.9	43.8	51.0	52.5	52.6	55.2
저축수단	27.2	36.7	62.5	36.7	28.8	33.3	17.2
위험보장	27.2	18.0	12.5	16.3	27.5	19.3	27.6
자산증식	2.9	0.8	0.0	2.0	1.3	1.8	3.4
유산상속	0.0	0.8	0.0	2.0	0.0	0.0	0.0
세제혜택	1.0	0.0	0.0	2.0	0.0	0.0	0.0
기타	1.0	0.0	0.0	2.0	0.0	0.0	0.0

주: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에 상관없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음.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대도시(38.0%)가 중·소도시(28.1%)와 군지역(29.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5〉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노후자금 마련	42.0	59.6	58.8
저축수단	38.0	28.1	29.4
위험보장	26.0	20.2	11.8
자산증식	3.0	0.9	0.0
유산상속	0.0	0.0	5.9
세제혜택	0.0	0.9	0.0
기타	1.0	0.0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가 가장 높은 가운데, 블루칼라(66.7%)가 가장 높음.
- 한편,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은 주부(40.5%)에서, 위험보장은 화이트칼라(2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6〉 저축성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노후자금 마련	46.9	66.7	55.6	100.0	50.0	0.0	0.0
저축수단	35.8	19.4	33.3	0.0	40.5	0.0	100.0
위험보장	22.2	19.4	19.0	0.0	19.0	100.0	0.0
자산증식	3.7	2.8	0.0	0.0	0.0	0.0	0.0
유산상속	0.0	2.8	0.0	0.0	0.0	0.0	0.0
세제혜택	1.2	0.0	0.0	0.0	0.0	0.0	0.0
기타	1.2	0.0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4) 사망보장보험

■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한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위험보장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20대(88.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한편, 노후자금 마련은 남성(13.6%)과 30대(1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67〉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험보장	72.1	75.2	88.9	73.0	71.8	72.0	74.3
노후자금 마련	13.6	12.4	0.0	15.9	11.5	14.7	14.3
저축수단	7.1	3.9	5.6	3.2	7.7	5.3	5.7
유산상속	3.6	4.7	0.0	0.0	7.7	4.0	5.7
자산증식	2.1	3.1	5.6	4.8	1.3	2.7	0.0
세제혜택	0.7	0.8	0.0	1.6	0.0	1.3	0.0
기타	0.7	0.0	0.0	1.6	0.0	0.0	0.0

주: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이유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높음.
- 한편, 노후자금 마련으로 사망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은 중·소도시 (16.4%)가 대도시(10.2%), 군지역(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Ⅱ-68〉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위험보장	78.8	67.2	82.6
노후자금 마련	10.2	16.4	8.7
저축수단	5.1	7.0	0.0
유산상속	0.8	7.0	4.3
자산증식	3.4	1.6	4.3
세제혜택	0.8	0.8	0.0
기타	0.8	0.0	0.0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65% 이상으로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자영업(78.4%), 블루칼라(76.6%), 화이트칼라(7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저축수단을 목적으로 한 보험 가입은 주부(2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69〉 사망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위험보장	70.5	76.6	78.4	100.0	65.9	80.0	75.0
노후자금 마련	13.7	12.8	8.1	0.0	24.4	0.0	0.0
저축수단	6.3	4.3	6.8	0.0	2.4	20.0	0.0
유산상속	3.2	4.3	4.1	0.0	4.9	0.0	25.0
자산증식	4.2	2.1	1.4	0.0	2.4	0.0	0.0
세제혜택	1.1	0.0	1.4	0.0	0.0	0.0	0.0
기타	1.1	0.0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질병보장보험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로는 남녀노소 모두 위험 대비 목적이라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표 II-70〉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험보장	96.3	97.4	97.5	96.1	98.5	97.7	95.0
저축수단	2.6	1.3	2.5	1.3	1.5	1.7	2.5
노후자금 마련	1.0	0.7	0.0	0.6	0.5	0.6	2.0
자산증식	0.3	0.2	0.0	1.3	0.0	0.0	0.0
유산상속	0.0	0.2	0.0	0.6	0.0	0.0	0.0
기타	0.3	0.0	0.0	0.6	0.0	0.0	0.0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 전 지역에서 위험보장을 위해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90% 이상임.
- 저축수단 목적으로 한 보험 가입은 군지역(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1〉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위험보장	97.1	98.0	90.8
저축수단	1.6	1.0	7.9
노후자금 마련	0.5	1.0	1.3
자산증식	0.3	0.3	0.0
유산상속	0.0	0.3	0.0
기타	0.3	0.0	0.0

■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으로 질병보장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모든 직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2〉 질병보장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위험보장	97.1	97.7	95.7	91.7	98.2	94.7	96.4
저축수단	2.1	1.7	2.2	8.3	1.2	2.6	0.0
노후자금 마련	0.4	0.6	1.6	0.0	0.0	2.6	3.6
자산증식	0.0	0.6	0.0	0.0	0.6	0.0	0.0
유산상속	0.4	0.0	0.4	0.0	0.0	0.0	0.0
기타	0.4	0.0	0.0	0.0	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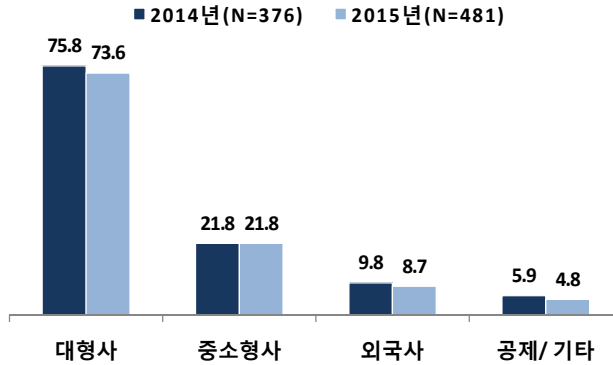
- 생명보험 회사군을 3개로 구분하여 국내 대형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회사별 잠재 수요층을 예측하여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생명보험회사 가입자(N=481) 10명 중 약 7명(73.6%)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3개 대형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 시장 내 대형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소형사 21.8%, 외국사 8.7%, 공제/기타 4.8% 순임.
 - 대형사(-2.2%p)와 외국사(-1.1%p), 공제/기타(-1.1%p)는 2014년 대비 점유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1〉 최근 3년 내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N=481 / 단위: %)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성별

- 대형사 가입률은 남녀 모두에서 7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대형사(74.8%)에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중·소형사(22.4%)에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표 II-73〉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남성	74.8	21.2	8.0	4.9
여성	72.5	22.4	9.4	4.7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연령별

- 대형사의 가입률은 전 연령에서 65%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40대(76.9%)와 50대(7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의 가입률은 30대(32.4%)와 40대(23.1%), 외국사 가입률은 30대(10.2%)와 60대 이상(1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4〉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20대	72.5	16.7	7.8	6.9
30대	67.6	32.4	10.2	1.9
40대	76.9	23.1	5.6	4.6
50대	78.9	16.7	8.9	6.7
60대 이상	72.6	17.8	12.3	4.1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별로 대형사의 가입률이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 가입률은 대도시(25.1%)와 군지역(2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5〉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대도시	68.8	25.1	11.7	5.6
중·소도시	78.8	18.4	6.1	2.4
군지역	73.7	21.1	5.3	13.2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직업별

- 대형사 가입률은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 가입률은 블루칼라(26.2%)와 주부(2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76〉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화이트칼라	76.0	19.8	10.8	3.0
블루칼라	68.9	26.2	7.8	6.8
자영업	75.8	16.8	9.5	7.4
농/임/어업	100.0	0.0	0.0	0.0
주부	69.3	28.4	8.0	3.4
은퇴자	90.0	10.0	0.0	0.0
무직/기타	75.0	18.8	0.0	6.3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학력별

- 모든 학력수준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높은 가운데, 대재 이상(75.3%) 비율이 특히 높음.
- 한편, 중·소형사와 외국사 가입률은 중졸 이하(각각 26.7%와 2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77〉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중졸 이하	56.7	26.7	20.0	3.3
고졸	73.8	20.3	7.9	5.4
대재 이상	75.3	22.7	8.1	4.5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가구 소득별

- 모든 소득 계층에서 대형사를 통한 가입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고소득(74.2%)이 중소득(72.5%)과 저소득(73.8%) 가구에 비해 대형사 가입률이 더 높게 나타남.
- 중·소형사 가입률은 중소득(24.6%)와 고소득(21.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78〉 생명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공제/기타
저소득	73.8	18.0	9.8	4.9
중소득	72.5	24.6	7.8	4.8
고소득	74.2	21.0	9.1	4.8

라. 생명보험 가입 회사 변경 의향

1) 조사 목적

- 기존 보험회사를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할 것인지, 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다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과 그 이유를 파악하고자 함.

○ 생명보험회사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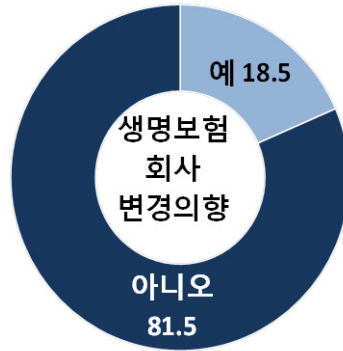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 생명보험 가입자(N=947) 10명 중 약 2명(18.5%) 정도만이 변경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보험료 수준에 의한 회사변경요인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 지역별로 생명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을 살펴보면 중·소도시(21.4%)는 대도시(15.8%), 군지역(16.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II-12〉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N=947 / 단위: %)



〈표 II-79〉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거주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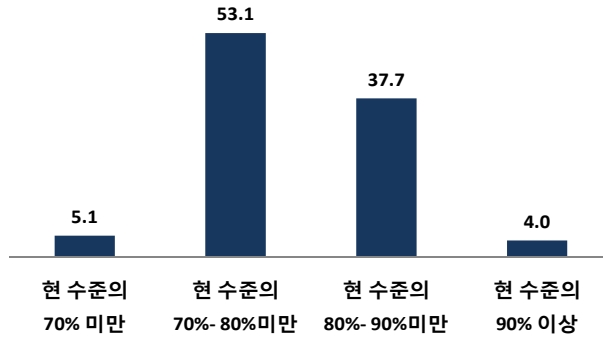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대도시	15.8	84.2
중·소도시	21.4	78.6
군지역	16.7	83.3

- 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75)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현 보험료의 70~80% 미만 수준이 5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 수준의 80~90% 미만 37.7%, 현 수준의 70% 미만 5.1%, 현 수준의 90% 이상 4.0%로 나타났으며, 평균 현 보험료의 81.3% 수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할 경우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N=175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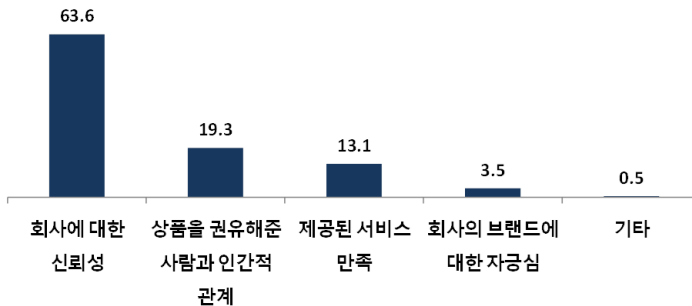
■ 한편,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자(N=772)를 대상으로 변경 의향이 없는 주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입한 보험회사의 신뢰성을 63.6%로 가장 많이 꼽음.

○ 다음으로 상품을 권유해 준 사람과 인간적 관계 19.3%, 제공된 서비스 만족 13.1%,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3.5%, 기타 0.5% 순으로 나타남.

■ 보험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품을 권유해 준 사람 또는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II-14〉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

(N=772 / 단위: %)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현 가입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22.8%), 화이트칼라(23.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0〉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응답자 연령	20대	21.1	78.9
	30대	22.8	77.2
	40대	18.1	81.9
	50대	18.1	81.9
	60대 이상	13.9	86.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3.6	76.4
	블루칼라	19.3	80.7
	자영업	14.4	85.6
	농/임/어업	46.2	53.8
	주부	13.6	86.4
	은퇴자	17.9	82.1
	무직/기타	12.5	87.5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특성별

- 현 보험료의 70~80% 미만 수준일 경우, 보험회사를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군지역(57.1%), 40대(58.5%)와 60대 이상(62.1%), 화이트칼라(59.7%)에서 특히 높음.
- 반면, 현 보험료의 80~90% 미만 수준일 경우, 보험회사를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군지역(42.9%), 30대(56.1%), 블루칼라(50.0%)와 주부(44.0%), 월 보험료 110만 원 이상(45.5%) 납입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1〉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특성별

(단위: %)

특성별		현수준의 70% 미만	현수준의 70~80% 미만	현수준의 80~90% 미만	현 수준의 90% 이상	평균
지역 규모	대도시	7.5	49.3	37.3	6.0	81.5
	중·소도시	4.3	55.3	37.2	3.2	80.9
	군지역	0.0	57.1	42.9	0.0	82.5
응답자 연령	20대	3.6	53.6	35.7	7.1	82.7
	30대	2.4	41.5	56.1	0.0	83.5
	40대	4.9	58.5	34.1	2.4	80.0
	50대	5.6	52.8	33.3	8.3	80.8
	60대 이상	10.3	62.1	24.1	3.4	79.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5	59.7	34.3	1.5	80.4
	블루칼라	5.6	36.1	50.0	8.3	83.1
	자영업	6.7	53.3	33.3	6.7	81.5
	농/임/어업	0.0	66.7	33.3	0.0	82.5
	주부	4.0	48.0	44.0	4.0	82.0
	은퇴자	14.3	71.4	14.3	0.0	75.0
	무직/기타	0.0	75.0	25.0	0.0	82.5
월 납입 보험료	20만 원 미만	0.0	71.4	28.6	0.0	82.1
	20만 원~50만 원미만	6.0	50.7	37.3	6.0	81.6
	50만 원~80만 원미만	6.3	52.4	38.1	3.2	80.3
	80만 원~110만 원미만	5.0	50.0	40.0	5.0	82.0
	110만 원 이상	0.0	54.5	45.5	0.0	82.3

주: 군지역, 20대, 40대, 60대 이상,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 20만 원 미만, 80만 원~110만 원 미만, 110만 원 이상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거주 지역별

-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대도시에서 6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져 군지역(2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2〉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회사에 대한 신뢰성	68.9	58.6	61.4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	17.9	19.7	24.3
제공된 서비스 만족	10.1	16.2	12.9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2.2	5.2	1.4
기타	0.8	0.3	0.0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별

- 회사에 대한 신뢰성 때문이라는 의견은 전 연령에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에서 68.9%로 특히 높음.
- 한편,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는 20대(2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3〉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회사에 대한 신뢰성	59.0	66.2	64.3	57.7	68.9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	24.8	20.9	15.7	20.2	17.8
제공된 서비스 만족	11.4	8.6	16.8	16.6	10.6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2.9	3.6	3.2	5.5	2.2
기타	1.9	0.7	0.0	0.0	0.6

■ 생명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학력별

-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모든 학력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져 중졸 이하(2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 -84〉 생명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회사에 대한 신뢰성	58.5	65.7	62.3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	21.5	19.7	18.6
제공된 서비스 만족	16.9	12.6	13.0
회사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3.1	2.0	5.1
기타	0.0	0.0	1.1

마.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목적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상품 만족도를 보험 종목별로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가입한 5가지 보험 종목의 만족도는 3.7점 내외 수준으로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내 생명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질병보장보험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보장보험(8.7%), 저축성보험(7.6%), 변액보험(3.4%)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 종목별로는 질병보장보험(3.88점), 사망보장보험(3.87점), 저축성보험(3.85점), 그리고 변액보험(3.73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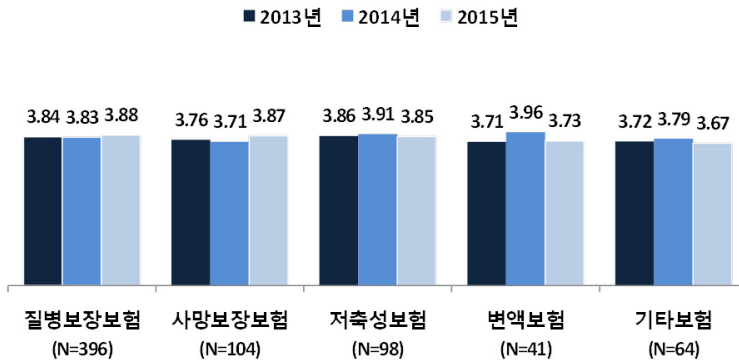
〈표 II-85〉 생명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상품 만족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 만족도(점, 5점 척도)
질병보장보험	31.4	3.88
사망보장보험	8.7	3.87
저축성보험	7.6	3.85
변액보험	3.4	3.73
기타	5.3	3.67

주: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그림 II-15〉 생명보험 종목별 만족도

(단위: 점, 5점 척도)



주: 사례 수는 2015년 기준임.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성별

- 전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 만족도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사망보장 보험은 여성(3.79점)에 비해 남성(3.93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저축성보험은 남성 3.92점으로 여성(3.80점)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86〉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성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질병보장보험	3.88	3.88
사망보장보험	3.93	3.79
저축성보험	3.92	3.80
변액보험	3.79	3.68
기타	3.75	3.59

주: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연령별

-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30대(3.98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표 II-87〉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연령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질병보장보험	3.84	3.98	3.93	3.81	3.84
사망보장보험	3.77	3.88	4.00	3.75	3.85
저축성보험	3.86	3.78	3.93	4.00	3.58
변액보험	4.00	3.71	3.82	3.38	0.0
기타	3.29	3.80	4.00	3.71	3.73

주: 사망보장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기타는 모든 연령층에서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전반적으로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가운데, 질병보장보험(3.93점), 사망보장보험(3.89점)에 대한 만족도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았고, 반면 저축성보험(3.88점)은 대도시에서 가장 높았음.

〈표 II-88〉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질병보장보험	3.84	3.93	3.89
사망보장보험	3.88	3.89	3.57
저축성보험	3.88	3.84	3.67
변액보험	3.70	4.00	1.00
기타	3.77	3.68	3.17

주: 사망보장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군지역, 변액보험과 기타는 모든 거주 지역에서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직업별

- 질병보장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블루칼라(3.92점),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블루칼라(3.94점), 저축성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주부(3.94점)가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89〉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직업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질병보장보험	3.89	3.92	3.82	4.00	3.91	3.67	3.92
사망보장보험	3.90	3.94	3.79	—	3.81	—	4.00
저축성보험	3.80	3.87	3.83	4.00	3.94	—	—
변액보험	3.79	3.80	3.00	—	3.78	—	4.00
기타	3.46	3.69	3.72	—	3.88	3.00	4.00

주: 질병보장보험 내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 사망보장보험 내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무직/기타, 저축성보험 내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학력별

- 학력수준에 의한 보험 상품별 만족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90〉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학력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질병보장보험	3.88	3.86	3.90
사망보장보험	3.67	3.89	3.87
저축성보험	3.40	3.93	3.79
변액보험	3.45	0.0	3.83
기타	3.25	3.80	3.56

주: 중졸 이하,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가구 소득에 따른 상품별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91〉 생명보험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질병보장보험	3.82	3.85	3.92
사망보장보험	3.83	3.88	3.86
저축성보험	3.86	3.80	3.88
변액보험	4.00	4.00	3.52
기타	3.55	3.67	3.72

주: 저소득층, 변액보험, 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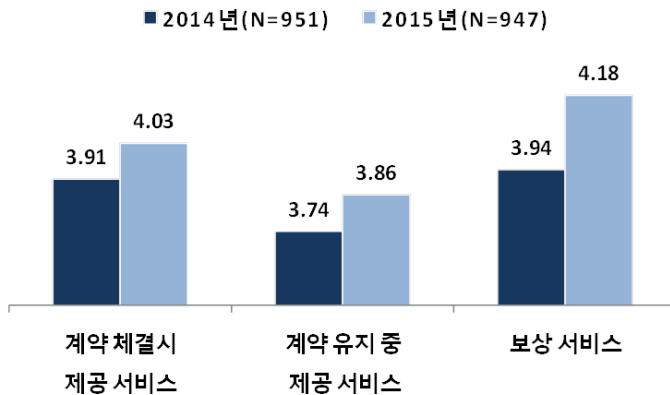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소비자 특성별로 분석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향후 생명보험회사의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 가입자(N=947)를 대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 서비스가 4.18점, 계약 체결 시 서비스가 4.03점, 계약 유지서비스가 3.86점으로 서비스 단계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그림 II-1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척도)



주: 보상 서비스(N=265)는 보상 경험자의 만족도만을 측정함.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생명보험 서비스에 대한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2〉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01	4.04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7	3.85
보상서비스	4.24	4.13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4.0점 이상으로 높음.
-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모든 연령대에서 3.8점 이상으로 나타남.
- 보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연령대에서 4.0점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에서 4.30점으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II-93〉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03	4.07	4.04	4.00	4.00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6	3.83	3.87	3.91	3.81
보상서비스	4.19	4.05	4.27	4.04	4.30

주: 보상서비스 내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4.08점),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3.93점)에 대한 만족도는 군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보상서비스(4.21점)에 대한 만족도는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군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4〉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01	4.03	4.08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3	3.87	3.93
보상서비스	4.21	4.20	4.00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 계약 체결 시 제공서비스 만족도는 주부(4.10점),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화이트칼라(4.2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직업별로 비슷하게 나타남.

〈표 II-95〉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9	4.06	4.01	3.92	4.10	3.95	3.94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7	3.87	3.87	3.77	3.86	3.79	3.78
보상서비스	4.24	4.07	4.17	4.33	4.16	4.29	4.14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계약 체결 시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학력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중졸 이하(4.3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II-96〉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11	4.02	4.02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7	3.87	3.85
보상서비스	4.36	4.13	4.18

주: 보상서비스 내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진 반면, 보상서비스는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7〉 생명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02	4.02	4.03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1	3.83	3.90
보상서비스	4.20	4.19	4.17

사.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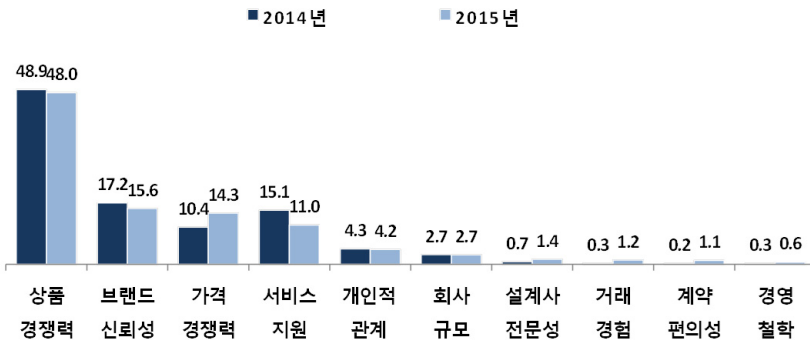
- 향후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 경쟁력(48.0%)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브랜드 신뢰성(15.6%), 가격 경쟁력(14.3%), 서비스 지원(11.0%), 개인적 관계(4.2%) 등의 순임.
- 가격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전년대비 3.9%p 증가한 반면, 상품 경쟁력은 0.9%p, 브랜드 신뢰성은 1.6%p, 서비스 지원은 4.1%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17〉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N=1,200 / 단위: %)



3) 세부 분석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성별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남녀 모두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98〉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상품 경쟁력	48.0	48.9	47.1
브랜드 신뢰성	15.6	15.0	16.1
가격 경쟁력	14.3	14.2	14.5
서비스 지원	11.0	11.3	10.7
개인적 관계	4.2	3.5	4.8
회사규모	2.7	2.4	3.0
전문성	1.4	1.5	1.3
거래 경험	1.2	1.3	1.0
경영철학	1.1	1.2	1.0
계약 편리성	0.6	0.7	0.5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연령별

○ 연령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의 큰 차이는 없는 가운데, 브랜드 신뢰성은 60대 이상(18.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99〉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품 경쟁력	52.0	49.3	47.7	47.9	44.3
브랜드 신뢰성	16.7	12.4	16.4	13.6	18.3
가격 경쟁력	11.6	12.4	17.2	14.5	15.0
서비스 지원	12.6	12.0	10.3	12.8	8.1
개인적 관계	3.0	2.2	3.4	5.0	6.6
회사규모	1.0	5.8	2.7	1.7	2.2
전문성	1.5	2.7	0.4	1.7	1.1
거래 경험	0.5	2.2	0.0	1.7	1.5
경영철학	0.0	0.9	1.5	0.8	1.8
계약 편리성	1.0	0.0	0.4	0.4	1.1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 거주 지역별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중·소도시가 48.8%로 대도시, 군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브랜드 신뢰성(18.8%), 가격 경쟁력(15.6%)은 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100〉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상품 경쟁력	47.4	48.8	46.9
브랜드 신뢰성	16.1	14.5	18.8
가격 경쟁력	13.4	15.1	15.6
서비스 지원	12.5	9.8	9.4
개인적 관계	4.5	3.8	4.2
회사규모	2.9	2.9	0.0
전문성	0.7	2.2	1.0
거래 경험	1.3	1.1	1.0
경영철학	0.7	1.5	1.0
계약 편리성	0.5	0.4	2.1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꼽은 가운데, 블루칼라(53.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음.

〈표 II-101〉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주부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
상품 경쟁력	50.0	53.1	45.7	21.4	47.0	39.3	44.6
브랜드 신뢰성	15.0	15.9	16.9	28.6	15.2	8.9	16.1
가격 경쟁력	12.9	11.8	16.5	28.6	13.4	21.4	16.1
서비스 지원	12.0	10.6	9.7	0.0	12.9	8.9	10.7
개인적 관계	2.7	2.4	5.0	7.1	5.1	5.4	10.7
회사규모	3.0	3.3	1.4	0.0	2.8	7.1	0.0
전문성	1.5	1.2	1.1	0.0	2.3	1.8	0.0
거래 경험	1.2	0.0	1.8	0.0	0.9	3.6	1.8
경영철학	0.9	1.2	1.4	7.1	0.0	3.6	0.0
계약 편리성	0.9	0.4	0.4	7.1	0.5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학력별

- 상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져 대재 이상에서 49.5%로 가장 높음.

〈표 II-102〉 생명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상품 경쟁력	41.6	47.8	49.5
브랜드 신뢰성	16.8	17.0	13.9
서비스 지원	18.8	14.6	13.1
가격 경쟁력	9.9	10.0	12.2
개인적 관계	5.0	4.9	3.3
회사규모	2.0	2.0	3.5
전문성	1.0	0.9	2.0
경영철학	2.0	1.3	0.9
거래 경험	2.0	1.1	0.9
계약 편의성	1.0	0.4	0.7

Ⅲ. 손해보험

1. 손해보험 가입 현황

가.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 국내 가구의 손해보험 가입 실태를 조사하여 가구별 보험 가입자 성향과 추가 판매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5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91.8%로 2014년(87.7%) 대비 4.1%p, 가입건수는 가구당 3.4건으로 2014년(3.3건) 대비 0.1건 증가함.

〈표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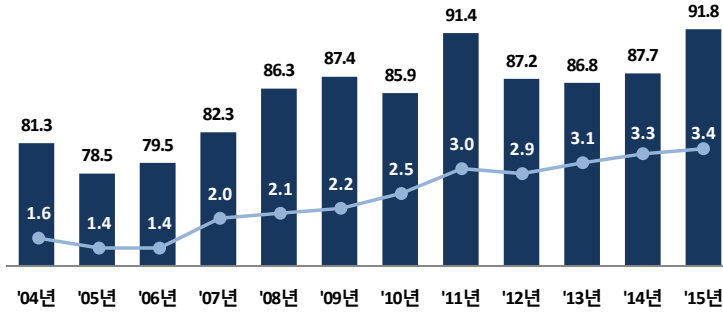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입률	86.3	87.4	85.9	91.4	87.2	86.8	87.7	91.8
가입건수	2.1	2.2	2.5	3.0	2.9	3.1	3.3	3.4

주: 2008년부터 표본추출방법이 변경됨(가구기준 → 개인기준, 이하 동일).

〈그림 Ⅲ-1〉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추이

(N=1,200 /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 2013년부터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계층별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모든 세대주 직업과 가구 소득에서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상승한 가운데, 주부(+32.6%p), 블루칼라(+10.4%p), 저소득 가구(+9.6%p)에서 특히 많이 상승함.

〈표 Ⅲ-2〉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가입건수: 세대주 직업 및 가구 소득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률(%p)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건수(건)
세대주 직업	화이트칼라	94.6	94.6	-	3.9	3.8	-0.1
	블루칼라	82.7	93.1	+10.4	3.2	3.2	-
	자영업	89.3	90.6	+1.3	3.2	3.4	+0.2
	농/임/어업	40.0	100.0	+60.0	1.7	3.4	+1.7
	주부	60.0	92.6	+32.6	3.4	3.4	-
	은퇴자	68.2	80.4	+12.2	1.5	2.4	+0.9
	무직/기타	65.8	80.4	+14.6	3.3	3.1	-0.2
가구 소득	저소득	63.6	73.2	+9.6	1.4	1.6	+0.2
	중소득	90.9	94.3	+3.4	3.2	3.1	-0.1
	고소득	95.2	97.8	+2.6	4.4	4.4	-

주: 농/임/어업은 표본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대도시(90.6%), 중·소도시(92.4%), 군지역(94.8%) 모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가운데, 특히 군지역 가입률이 2014년(85.6%) 대비 8.8%p 증가함.

〈표 Ⅲ-3〉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도시	87.4	85.0	84.4	88.3	88.3	86.1	86.9	90.6
중·소도시	85.7	89.8	86.6	94.1	87.0	89.5	88.8	92.4
군지역	82.9	88.2	90.3	94.5	82.4	76.9	85.6	94.8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저소득 73.2% < 중소득 94.3% < 고소득 97.8%) 높음.
- 고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중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3.4%p, 저소득 가구 가입률은 전년대비 9.6%p 증가함.

〈표 Ⅲ-4〉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소득별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저소득	76.8	76.3	70.7	79.9	66.6	63.0	63.6	73.2
중소득	89.5	92.1	92.4	94.9	92.4	92.7	90.9	94.3
고소득	93.6	95.8	96.1	94.9	96.0	96.8	95.2	97.8

■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보험 종목별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은 전년도와 달리 장기 건강보험이 6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기 상해보험(48.3%)이며, 그 외 보험³⁾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 종목별 가입률의 경우 장기 종합보험과 상해보험, 통합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의 가입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함.
- 종목별 가입건수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가운데, 장기 건강보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합보험 1.8건, 장기 어린이보험 1.6건,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저축성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1.3건, 장기 종합보험은 1.1건으로 나타남.

〈표 Ⅲ-5〉 손해보험 가구당 가입률 및 가입건수: 종목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가입률 (%)	자동차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기 상해보험	48.3	42.3	45.5	49.8	43.9	44.0	47.0	48.3
	장기 건강보험	17.1	20.2	34	42.7	41.3	52	50.2	60.3
	장기 종합보험	6.3	5.8	5.9	7.1	6.1	6.6	8.9	5.5
	장기 저축성보험	2.9	2.8	2.0	3.5	4.0	4.2	4.6	5.2
	장기 어린이보험	7.3	8.3	5.6	6.4	10.2	5.0	5.5	7.1
	상해보험	3.3	3.3	3.5	4.2	3.7	2.5	3.9	2.4
	통합보험	—	4.7	2.5	5.0	9.3	7.5	9.0	6.7
가입건수 (건)	자동차보험	1.2	1.2	1.1	1.2	1.1	1.1	1.2	1.1
	장기 상해보험	1.2	1.2	1.2	1.3	1.3	1.3	1.4	1.3
	장기 건강보험	1.6	1.7	2.3	2.3	2.3	2.5	2.5	2.4
	장기 종합보험	1.2	1.2	1.2	1.1	1.2	1.2	1.3	1.1
	장기 저축성보험	1.3	1.5	1.2	1.2	1.3	1.2	1.5	1.3
	장기 어린이보험	1.6	1.6	1.7	1.6	1.6	1.8	1.5	1.6
	상해보험	1.1	1.2	1.6	1.7	1.9	1.5	1.4	1.3
	통합보험	—	1.6	1.9	1.8	1.8	1.9	1.9	1.8

주: 1) 자동차보험 가입률은 2008년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함.

2) 통합보험은 2009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음.

3) 자동차보험은 제외함.

나.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 현황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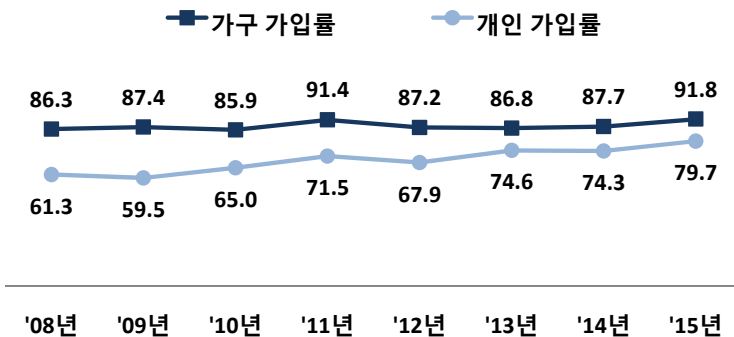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 실태(가입 비율, 가입건수) 조사를 통하여 가입자 성향과 잠재적 확대 가능 시장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015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증가(+5.4%p)한 가운데, 가구 가입률은 91.8%로 2014년(87.7%) 대비 4.1%p 상승함.

〈그림 Ⅲ-2〉 손해보험 가구 가입률과 개인 가입률

(N=1,200 / 단위: %)



-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40대(89.3%, 2.0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보다는 기혼(81.7%, 1.7건)에서, 그리고 고소득(83.6%, 1.8건)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연령과 결혼 여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전년대비 상승한 가운데, 20대(65.2%), 30대(87.6%), 50대(89.3%), 60대 이상(65.9%), 기혼(81.7%), 미혼(71.6%), 저소득(64.7%), 중소득(82.9%), 고소득(83.6%) 가구에서 전년대비 많이 상승함.

〈표 Ⅲ-6〉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가입건수: 연령, 결혼 여부, 가구 소득별

(단위: 가입률-%, 가입건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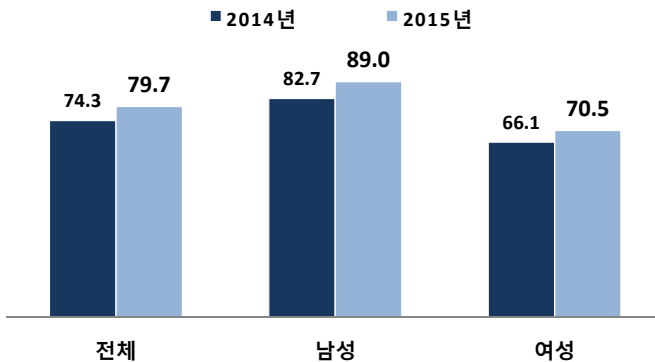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률(%p)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가입건수(건)
연령	20대	55.8	65.2	+9.4	1.0	1.1	+0.1
	30대	83.7	87.6	+3.9	1.7	1.9	+0.2
	40대	87.3	89.3	+2.0	2.0	2.0	—
	50대	81.4	89.3	+7.9	1.7	1.9	+0.2
	60대 이상	59.7	65.9	+6.2	1.0	1.2	+0.2
결혼 여부	기혼	77.3	81.7	+4.4	1.6	1.7	+0.1
	미혼	62.2	71.6	+9.4	1.1	1.3	+0.2
가구 소득	저소득	56.5	64.7	+8.2	1.0	1.1	+0.1
	중소득	76.7	82.9	+6.2	1.5	1.6	+0.1
	고소득	79.7	83.6	+3.9	1.8	1.8	—

■ 성별 기준 손해보험 가입률의 경우, 남성이 89.0%, 여성이 70.5%로 여전히 남성의 가입률이 더 높음.

○ 남성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6.3%p, 여성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4.4%p 증가함.

〈그림 Ⅲ-3〉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 성별

(N=1,200 / 단위: %)



3) 세부분석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성별, 결혼 여부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남성(89.0%)이 여성(70.5%)보다 높은 가운데, 특히 기혼 남성의 가입률이 92.2%로 높음.

– 기혼 남성은 가계 소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Ⅲ-7〉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성별, 결혼 여부별

구분	남성		여성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가입률(%)	89.0		70.5	
	92.2	78.9	72.3	61.4
가입건수(건)	2.0		1.3	
	2.1	1.5	1.3	0.9

주: 가입건수는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1인당 가입건수임.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연령별

○ 모든 연령대에서 손해보험 가입률이 전년대비 증가한 가운데, 20대(+9.4%p), 30대(+3.9%p), 50대(+7.9%p), 60대 이상(+6.2%p) 손해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함.

○ 가입건수는 20대 1.1건, 30대 1.9건, 40대 2.0건, 50대 1.9건, 60대 이상 1.2건으로 나타남.

〈표 Ⅲ-8〉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입률(%)	65.2	87.6	89.3	89.3	65.9
가입건수(건)	1.1	1.9	2.0	1.9	1.2
2014년 대비 가입률(%p)	+9.4	+3.9	+2.0	+7.9	+6.2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 지역별 가입률은 군지역 87.5%, 대도시 80.5%, 중·소도시 77.5%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가입건수도 군지역 2.0건, 중·소도시 1.6건, 대도시 1.5건 순으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표 Ⅲ-9〉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거주 지역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대도시	80.5	1.5
중·소도시	77.5	1.6
군지역	87.5	2.0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학력별

-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과 가입건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특징을 보임.
- 대재 이하 고학력 응답자의 가입률은 87.8%, 가입건수는 1.9건인 반면, 중졸 이하 저학력 응답자의 가입률은 53.5%, 가입건수는 0.9건임.

〈표 Ⅲ-10〉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학력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중졸 이하	53.5	0.9
고졸	76.3	1.4
대재 이상	87.8	1.9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직업별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6.2%), 블루칼라(81.6%), 자영업(84.9%) 가입률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주부(70.0%), 은퇴자(69.6%), 무직/기타(48.2%) 등 비경제활동 계층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입건수는 화이트칼라(1.8건), 블루칼라(1.6건), 자영업(1.9건)이 1.5건 이상이었으나, 주부(1.2건), 은퇴자(1.4건), 무직/기타(0.78)는 1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적음.

〈표 Ⅲ-11〉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직업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화이트칼라	86.2	1.8
블루칼라	81.6	1.6
자영업	84.9	1.9
농/임/어업	100.0	1.5
주부	70.0	1.2
은퇴자	69.6	1.4
무직/기타	48.2	0.8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 중소득(82.9%)과 고소득(83.6%) 가구의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은 80% 이상 수준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 가구 가입률은 64.7%로 낮음.
- 가입건수는 고소득(1.8건)과 중소득 가구(1.6건) 가입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저소득 가구 가입건수: 1.1건) 소득 수준에 따라 손해보험 가입건수의 차이를 보임.

〈표 Ⅲ-12〉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가구 소득별

구분	가입률(%)	가입건수(건)
저소득	64.7	1.1
중소득	82.9	1.6
고소득	83.6	1.8

■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 종목별

- 종목별 손해보험 개인 가입률을 살펴보면, 장기 건강보험이 53.0%로 가장 높고, 장기 상해보험이 32.5%, 그 외 보험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낮음.
- 장기 건강보험은 여성(55.7%), 40대(61.8%), 50대(59.1%),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저소득 43.0% < 중소득 53.7% < 고소득 56.7%)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장기 상해보험은 남성(46.7%), 30대(38.2%), 40대(38.9%), 50대(40.9%),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음.

〈표 Ⅲ-13〉 손해보험 개인별 가입률/가입건수: 종목별

(단위: %, 건)

특성별	종목별	장기 상해	장기 건강	장기 종합	장기 저축성	장기 어린이	상해 보험	통합
성별	남성	46.7	50.3	3.2	4.6	0.5	1.3	5.6
	여성	18.6	55.7	3.5	2.5	1.8	1.2	5.3
연령	20대	20.7	51.0	1.0	3.0	0.5	0.5	2.5
	30대	38.2	53.3	2.2	2.7	5.3	0.4	8.4
	40대	38.9	61.8	4.2	3.1	0.4	2.3	8.4
	50대	40.9	59.1	5.4	6.2	0.0	2.1	4.5
	60대 이상	22.7	40.3	3.3	2.6	0.0	0.7	2.9
학력	중졸 이하	14.9	39.6	3.0	0.0	0.0	1.0	2.0
	고졸	28.5	50.5	2.7	3.8	0.2	1.3	4.7
	대재 이상	39.4	57.8	4.0	3.8	2.4	1.3	6.8
가구 소득	저소득	25.1	43.0	3.0	2.1	0.4	1.3	1.7
	중소득	29.5	53.7	1.7	4.3	2.1	0.5	6.7
	고소득	38.1	56.7	4.6	3.5	0.7	1.8	6.1
2015년 가입률		32.5	53.0	3.3	3.5	1.2	1.3	5.4
2014년 가입률		30.9	43.2	5.0	2.5	1.7	2.3	6.5
차이(%p)		+1.6	+9.8	-1.7	+1.0	-0.5	-1.1	-1.1
가입건수		1.0	1.1	1.0	1.0	1.4	1.0	1.2

주: 가입상품 건수 기준임.

2.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가.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 가입자들이 선택한 채널 구성비를 분석하여 판매채널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의 경우 전통적 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등 대면채널(94.0%)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인터넷과 통신판매 등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전년대비 1.3%p 하락한 7.8%로 나타났으며, 은행, 증권회사 등을 통한 가입률은 0.3%로 매우 낮음.

〈표 Ⅲ-14〉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추이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면	91.2	92.3	92.6	95.5	92.7	93.2	94.2	94.0
직판	8.0	6.3	7.7	4.7	6.2	8.0	9.1	7.8
은행	2.6	1.4	0.5	0.5	1.1	1.9	1.3	0.3

주: 1) 2008년부터 표본추출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개인 기준으로 변경함(이하 동일).

2) 상기 채널별 구성비는 주로 개인 보험 빈도 기준의 설문조사 결과로써 실제 채널별 보험료 기준의 가입률과 차이가 날 수 있음(이하 동일).

3) 2008년 이후는 복수응답 구성비임.

4) 은행은 은행, 증권회사 등을 포함한 채널을 의미함(이하 동일).

5) 기타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녀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에서 직판채널(10.6%)을 통한 보험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15〉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3.8	94.4
직판	10.6	4.4
은행	0.2	0.5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모든 연령에서 대면채널 가입률이 90% 내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대면채널 가입률 가운데 30대가 89.3%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을 이용한 가입률은 30대가 14.2%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16〉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하
대면	93.0	89.3	92.7	97.7	97.2
직판	3.9	14.2	11.5	4.2	3.3
은행	0.0	1.0	0.0	0.5	0.0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90% 이상으로 높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중·소도시 11.2%, 대도시 5.8%, 군지역 1.2%로 나타남.

〈표 Ⅲ-17〉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6.0	90.9	100.0
직판	5.8	11.2	1.2
은행	0.4	0.2	0.0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화이트칼라(1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8〉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2.0	93.5	95.8	100.0	96.1	97.4	85.2
직판	12.5	8.5	6.4	0.0	2.0	5.1	7.4
은행	0.3	0.5	0.0	0.0	0.7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학력에서 90% 이상으로 높음.
- 직판채널 가입률은 대재 이상(11.9%)의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19〉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4.4	96.2	92.1
직판	3.7	3.8	11.9
은행	0.0	0.0	0.6

■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소득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중소득(95.7%), 저소득(94.7%), 고소득(95.5%) 순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 가입률은 저소득 3.3%, 중소득 5.4%, 고소득 11.2%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가입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0〉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7	95.7	92.5
직판	3.3	5.4	11.2
은행	0.0	0.3	0.4

나. 손해보험 종목별 채널별 활용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 가입 경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보험 종목별 가입경로 선택 성향과 판매 채널의 효율성 제고 방안 도출에 참고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보험 종목별 가입 채널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보험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음.

- 직판채널과 은행을 통한 가입은 모든 보험 종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3개 보험 종목 중에서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일반손해보험이 96.2%로 가장 높고, 장기손해보험(93.4%), 자동차보험(88.9%) 순으로 나타남.

- 직판 채널을 통한 가입은 자동차보험이 10.3%로 타 보험 종목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1〉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보험 종목별

(단위: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대면	88.9	93.4	96.2
직판	10.3	3.8	2.5
은행	—	0.4	—

주: 1) 기타 채널은 제외함(이하 동일).

2) 자동차보험은 은행채널이 없으므로 은행채널 통계는 제외함(이하 동일).

3) 자동차보험의 채널별 사례 수는 총 611표본 중 대면이 543표본, 직판이 63표본임.

3)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내외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남성(11.0%)이 여성(8.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2〉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88.3	90.6
직판	11.0	8.1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모든 연령에서 80% 이상으로 높았고,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95% 이상이 대면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30대(16.8%)와 40대(1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3〉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3.1	82.5	83.2	94.4	96.2
직판	6.9	16.8	16.8	2.8	3.8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모든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
- 직판채널 가입률은 중·소도시(14.1%)가 대도시(7.8%)와 군지역(1.8%)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4〉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1.4	84.9	98.2
직판	7.8	14.1	1.8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모든 직업에서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화이트칼라(14.1%) 계층에서 직판채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5〉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85.9	87.3	91.9	100.0	93.3	97.1	72.7
직판	14.1	11.9	7.0	0.0	3.3	2.9	18.2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은 가운데, 대재 이상(14.2%) 고학력층에서 직판채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26〉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85.0	94.3	85.2
직판	10.0	4.9	14.2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90% 내외이며, 특히 저소득(93.7%)에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 가입률은 고소득일수록 높은 것(고소득 13.6% < 중소득 7.6% < 저소득 5.1%)으로 나타남.

〈표 Ⅲ-27〉 자동차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3.7	92.4	85.1
직판	5.1	7.6	13.6

4) 장기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남성 93.5%, 여성 93.4%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음.
- 직판채널 구성비는 남성(4.2%)이 여성(3.3%)보다 높음.

〈표 Ⅲ-28〉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3.5	93.4
직판	4.2	3.3
은행	0.2	0.5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 대면채널 구성비는 모든 연령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60대 이상(95.1%)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직판채널 구성비는 30대(5.6%)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9〉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대면	92.5	90.1	94.2	94.7	95.1
직판	2.5	5.6	3.8	4.2	2.1
은행	0.0	1.2	0.0	0.5	0.0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대면채널 가입률은 모든 지역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중·소도시(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30〉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4.2	91.5	98.6
직판	2.9	5.5	0.0
은행	0.5	0.3	0.0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 대면채널을 통한 장기손해보험 가입은 모든 직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직판채널과 은행채널의 가입률은 모든 직업군에서 5% 내외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Ⅲ-31〉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대면	90.9	94.7	94.8	100.0	95.0	96.9	82.6
직판	6.7	2.4	3.1	0.0	1.4	3.1	4.3
은행	0.4	0.6	0.0	0.0	0.7	0.0	0.0

주: 농/임/어업, 주부,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 구성비는 학력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직판채널 구성비는 고학력(대재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2〉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93.8	95.7	91.4
직판	2.1	2.6	5.0
은행	0.0	0.0	0.7

■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 대면채널 및 직판채널 구성비는 모두 소득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3〉 장기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대면	94.7	94.9	91.9
직판	2.3	2.0	5.6
은행	0.0	0.3	0.5

5) 일반손해보험⁴⁾

■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여성(97.4%)이 남성(95.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남성(5.0%)이 여성(0.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4〉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대면	95.0	97.4
직판	5.0	0.0
은행	—	—

■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 지역별로 대면채널 가입률은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대도시 3.2% > 중·소도시 2.6% > 군지역 0.0%)으로 나타남.

4)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통합보험 등이 해당되며, 조사 결과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표 Ⅲ-35〉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대면	96.8	94.9	100.0
직판	3.2	2.6	0.0
은행	—	—	—

주: 1)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직판채널 응답자는 총 6표본으로 거주 지역별 사례 수는 대도시 2표본, 중·소도시 4표본임.

■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모든 학력층에서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6〉 일반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대면	100.0	100.0	93.0
직판	0.0	0.0	4.7
은행	—	—	—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1) 조사 목적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구입 의향과 가입 경로를 파악하여 향후 성장 가능한 판매경로를 살펴보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758)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통채널인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82.1%로 여전히 가장 높고, 직판채널은 17.2%로 나타남.

- 은행 채널에 대한 향후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0.3%)보다 1.4% 높은 1.7%로 나타남.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이었으나 현재 가입률(94.2%)보다는 11.9%p 낮게 나타난 반면,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가입률(7.8%)보다 9.4%p 높게 나타났음.

〈표 Ⅲ-3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단위: %)

구분	현행	향후 선호
대면	94.0	82.1
직판	7.8	17.2
은행	0.3	1.7

주: 복수응답을 포함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남성(82.7%)과 여성(81.0%) 모두 가장 선호하는 채널임.
- 남성은 인터넷(16.7%)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자의 경우 기혼자 대비 인터넷(31.7%)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38〉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성별	남성	82.7	18.4	16.7	0.6
	여성	81.0	15.1	14.3	3.6
결혼 여부	기혼	84.7	13.5	12.1	1.8
	미혼	71.0	32.4	31.7	1.4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 향후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는 모든 연령에서 7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에서 89.0%로 가장 높음.
- 그러나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31.2%)과 같은 직판채널(31.2%)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39〉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연령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20대	70.6	31.2	31.2	0.9
30대	76.4	24.8	23.6	1.8
40대	83.2	16.8	14.1	2.2
50대	88.4	11.0	9.8	1.8
60대 이상	89.0	4.4	3.7	1.5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 향후 채널 선호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80% 내외 수준으로 가장 높음.
- 직판채널을 통한 가입 의향은 군지역(4.6%) 대비 대도시(16.8%)와 중·소도시(1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40〉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대도시	81.9	17.5	16.8	2.6
중·소도시	79.9	19.0	16.9	1.3
군지역	95.4	4.6	4.6	0.0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직업군에서 높은 가운데, 은퇴자(89.7%)와 자영업(89.2%)에서 특히 높음.
- 반면, 인터넷(22.7%) 등 직판채널 선호도(23.9%)는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41〉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직업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화이트칼라	77.7	23.9	22.7	1.2
블루칼라	81.4	16.7	16.0	1.3
자영업	89.2	10.8	8.3	1.0
농/임/어업	100.0	0.0	0.0	0.0
주부	76.8	15.9	14.6	6.1
은퇴자	89.7	7.7	7.7	2.6
무직/기타	68.4	31.6	31.6	0.0

주: 농/임/어업,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 향후 대면채널 선호도는 모든 학력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75%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88.9% > 고졸 86.3% > 대재 이상 78.0%) 높은 특징을 보임.
- 반면 직판채널, 특히 인터넷 채널(중졸 이하 0.0% < 고졸 10.0% < 대재 이상 22.0%)에 대한 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42〉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학력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중졸 이하	88.9	0.0	0.0	0.0
고졸	86.3	10.6	10.0	2.5
대재 이상	78.0	24.0	22.0	1.3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 향후 가입 채널 선호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면채널이 가장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직판채널(22.4%)에 대한 선호도가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43〉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저소득	84.6	10.6	10.6	1.6
중소득	85.2	12.9	12.2	2.7
고소득	79.0	22.4	20.2	1.1

■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 보험 종목별로 향후 채널 선호도를 살펴보면, 모든 보험 종목에서 대면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한편, 장기손해 상해보험(25.5%)과 장기손해 저축성보험(20.6%)은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가 타 보험 종목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44〉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도: 종목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전체	인터넷	
자동차 보험	82.0	17.2	15.7	—
장기손해 상해보험	71.4	25.5	24.5	1.0
장기손해 건강보험	79.6	9.3	9.3	4.6
장기손해 종합보험	88.9	11.1	11.1	—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70.6	20.6	20.6	8.8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81.8	—	—	18.2
상해보험	74.6	18.6	16.9	5.1
통합보험	85.5	13.0	13.0	1.4

주: 장기손해 어린이보험은 통계량이 적어 신뢰성이 낮음.

라. 향후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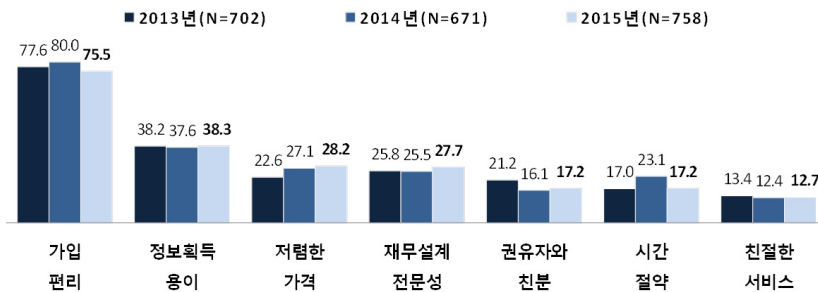
- 향후 1년 내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입경로에 대한 선호 이유를 항목별로 파악하여 향후 참고 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의향자(N=758)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입 경로의 이유를 살펴보면, 가입 편리성이 75.5%로 가장 많이 꼽힘.
-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성(38.3%), 저렴한 가격(28.2%), 그리고 재무 설계 전문성(27.7%) 등의 순임.

〈그림 III-4〉 손해보험 가입 채널 선호 이유(복수응답)

(단위: %)



- 향후 보험 가입 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이유 역시, 가입 편리성(75.1%)을 가장 많이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획득 용이성(41.5%), 재무 설계 전문성(33.1%), 권유자와의 친분(20.9%) 등의 순임.
- 보험 설계사 방문을 통한 간편한 가입과 설계사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이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됨.

- 한편, 직판채널에 대한 선호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89.2%)과 함께 가입 편리성(79.2%)을 많이 꼽아, 가격 경쟁력에서 대면채널 대비 우위를 나타냄.

〈표 Ⅲ-45〉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가입 편리성	75.1	79.2	76.9
정보획득 용이성	41.5	22.3	69.2
저렴한 가격	16.2	89.2	30.8
재무 설계 전문성	33.1	6.9	7.7
시간 절약	17.2	23.1	15.4
권유자와 친분	20.9	1.5	0.0
친절한 서비스	14.6	4.6	23.1

주: 1) 은행채널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기타 항목은 제외함(이하 동일).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

- 보험 종목별 향후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선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종목에서 가입 편리성을 가장 많이 꼽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면채널 선호 이유로 가입의 편리성(75.8%), 정보획득 용이성(35.8%), 재무 설계의 전문성(25.4%), 권유자와의 친분(21.5%), 그리고 시간 절약(15.7%) 등이 꼽힘.

〈표 Ⅲ-46〉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대면채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가입 편리성	75.8	63.0	43.9
정보획득 용이성	35.8	47.6	42.9
저렴한 가격	11.8	19.0	17.3
재무 설계 전문성	25.4	40.2	46.9
시간 절약	15.7	12.7	14.3
권유자와 친분	21.5	15.9	19.4
친절한 서비스	12.0	11.6	17.3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직판채널

- 모든 보험 종목에서 직판채널의 선호 이유로 가입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을 가장 많이 꼽음.

〈표 Ⅲ-47〉 손해보험 채널별 선호 이유: 직판채널(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가입 편리성	72.8	77.5	63.2
정보획득 용이성	20.4	30.0	15.8
저렴한 가격	87.4	87.5	73.7
재무 설계 전문성	2.9	0.0	5.3
시간 절약	14.6	15.0	36.8
권유자와 친분	0.0	0.0	0.0
친절한 서비스	0.0	2.5	0.0

주: 1) 직판채널은 표본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음.

2)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향후 손해보험 가입 의향

가. 개요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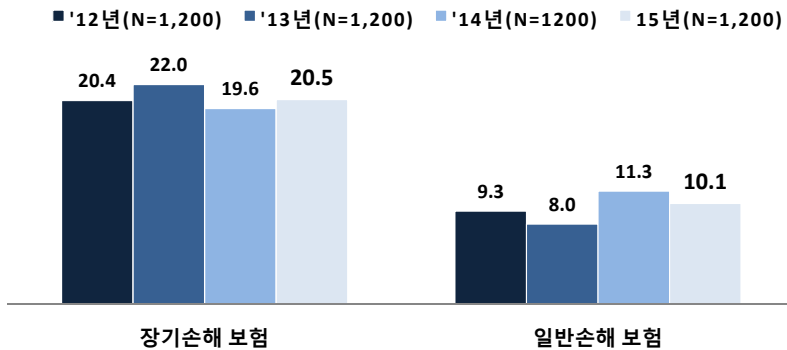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상품의 종목별 가입 의향을 조사함으로써 손해보험의 잠재적 수요를 예측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1년 이내 손해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손해보험은 20.5%, 일반손해보험은 10.1%로 나타남.

〈그림 Ⅲ-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전년대비 0.9%p 상승한 반면,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1.2%p 하락함.

〈표 Ⅲ-48〉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14년	19.6	11.3
2015년	20.5	10.1
2014년 대비 가입 의향률(%p)	+0.9	-1.2

- 보험 종목별 비가입자의 향후 가입 의향을 살펴보면, 장기손해 건강보험이 13.8%로 가장 높고, 그 외 다른 종목의 가입 의향은 10% 이하로 낮음.

〈표 Ⅲ-49〉 손해보험 종목 가입 여부별 가입 의향

(단위: %)

구분	현 가입률	가입 의향	
		가입자	비가입자
장기손해 상해보험	32.5	7.7	8.4
장기손해 건강보험	53.0	4.7	13.8
장기손해 종합보험	3.3	12.5	3.4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3.5	7.1	2.7
장기손해 어린이보험	1.2	7.1	0.8
상해보험	1.3	20.0	4.7
통합보험	5.4	1.5	6.0

- 장기손해보험의 현재 가입률이 가장 낮은 20대 젊은 계층과 저소득 계층에서 향후 가입 의향이 높은 가운데, 일반손해보험의 현재 가입률이 가장 높은 40대 계층과 고소득 계층에서 향후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계층의 잠재적 보험 가입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들 계층의 실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험별로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요구됨.

〈표 Ⅲ-50〉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 및 소득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현 가입률	가입 의향	현 가입률	가입 의향
연령	20대	60.6	28.3	3.0	8.6
	30대	72.0	25.8	8.9	9.3
	40대	79.4	19.8	10.7	11.1
	50대	78.1	17.4	6.2	12.4
	60대 이상	52.4	13.9	3.7	8.8
소득	저소득	56.6	24.3	3.0	8.5
	중소득	69.8	19.2	7.1	10.0
	고소득	72.6	19.9	7.7	10.9

나.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남성(21.4%)이 여성(19.6%)보다 높고, 미혼자(29.2%)가 기혼자(18.3%)보다 9.9%p 높음.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남녀,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10% 내외로 비슷한 수준임.

〈표 Ⅲ-5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성별, 결혼 여부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성별	남성	21.4	9.8
	여성	19.6	10.4
결혼 여부	기혼	18.3	10.8
	미혼	29.2	7.4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20대 28.3%, 30대 25.8%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40대(11.1%), 50대(12.4%)에서 가입 의향이 다른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표 Ⅲ-52〉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연령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20대	28.3	8.6
30대	25.8	9.3
40대	19.8	11.1
50대	17.4	12.4
60대 이상	13.9	8.8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모든 지역에서 15% 이상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대도시 및 중소지역 대비 군지역(1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53〉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대도시	17.9	5.8
중·소도시	23.6	13.1
군지역	17.7	17.7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가입 의향은 모든 직업군에서 15% 이상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10% 내외 수준인 가운데, 다른 직업 대비 주부(12.4%)의 가입 의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Ⅲ-54〉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직업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화이트칼라	24.3	9.9
블루칼라	24.9	9.4
자영업	16.5	10.1
농/임/어업	28.6	7.1
주부	15.7	12.4
은퇴자	17.9	10.7
무직/기타	17.9	5.4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24.3%로 중소득(19.2%), 고소득(19.9%)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 가입 의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 의향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표 Ⅲ-55〉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의향: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저소득	24.3	8.5
중소득	19.2	10.0
고소득	19.9	10.9

4. 손해보험 상품 니즈

가. 손해보험 보상 위험 분석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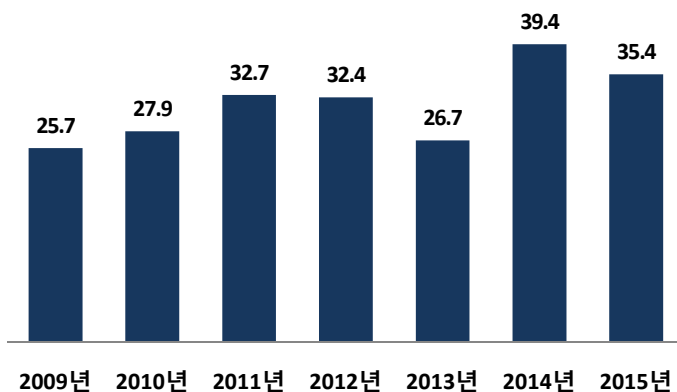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험자의 보험금 지급 항목 등을 파악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석 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 가구(N=1,101) 중 35.4%가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금 지급 경험 비율은 2014년(39.4%) 대비 4.0%p 하락함.

〈그림 Ⅲ-6〉 손해보험 보상 경험

(N=1,101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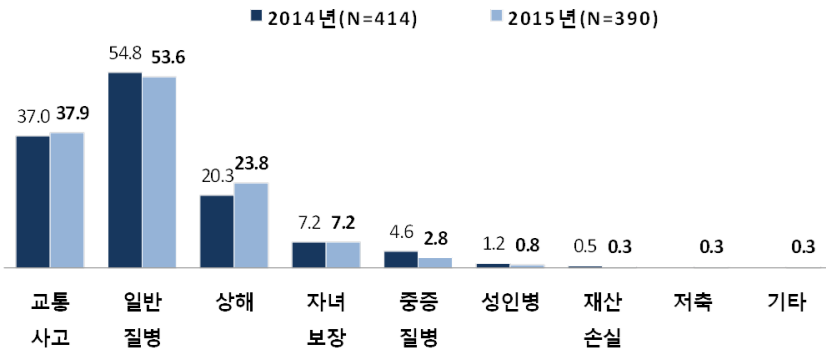


■ 보험금 지급 항목으로는 여전히 일반질병(53.6%)과 교통사고(37.9%), 상해(23.8%)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자녀 보장(7.2%), 그리고 중증질병(2.8%) 등은 10% 이하로 나타남.

○ 일반질병에 의한 보험금 지급 경험은 전년대비 1.2%p 감소한 반면, 교통사고(+0.9%p), 상해(+3.5%p)에 의한 보험금 지급 경험은 늘어남.

〈그림 Ⅲ-7〉 손해보험 보상 항목(복수응답)

(단위: %)



3) 손해보험 보상 위험

■ 손해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 40대(39.2%), 50대(39.7%), 그리고 60대 이상(35.8%)의 보험금 수령 경험이 20대(28.9%), 30대(31.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반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모든 연령대에서 50%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60.0%)에서 높았음.

○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30대(44.1%), 상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은 30대(25.0%)와 40대(2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56〉 손해보험 보상 위험: 연령별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일반질병	53.6	55.8	48.5	60.0	47.8	55.1
교통사고	37.9	40.4	44.1	28.0	40.2	41.0
상해	23.8	23.1	25.0	26.0	23.9	20.5
자녀보장	7.2	5.8	13.2	10.0	6.5	0.0
중증질병	2.8	5.8	2.9	3.0	2.2	1.3
성인병	0.8	0.0	0.0	0.0	1.1	2.6
재산손실	0.3	0.0	0.0	0.0	1.1	0.0
저축	0.3	0.0	0.0	1.0	0.0	0.0
기타	0.3	0.0	0.0	1.0	0.0	0.0
손해보험 전체	35.4	28.9	31.5	39.2	39.7	35.8

주: 손해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20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직업별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은 자영업(38.9%)과 화이트칼라(35.8%), 주부(35.3%)가 35% 수준으로 다른 직업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57〉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직업별

(단위: %)

구분	전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일반질병	53.6	52.2	48.0	46.9	100.0	62.0	68.8	73.3
교통사고	37.9	38.1	38.7	46.9	0.0	23.9	56.3	26.7
상해	23.8	28.3	30.7	17.3	0.0	22.5	6.3	26.7
자녀보장	7.2	7.1	4.0	8.2	0.0	12.7	0.0	0.0
중증질병	2.8	1.8	4.0	2.0	0.0	2.8	0.0	13.3
성인병	0.8	0.0	0.0	1.0	0.0	1.4	6.3	0.0
재산손실	0.3	0.9	0.0	0.0	0.0	0.0	0.0	0.0
저축	0.3	0.0	0.0	1.0	0.0	0.0	0.0	0.0
기타	0.3	0.0	0.0	1.0	0.0	0.0	0.0	0.0
손해보험 전체	35.4	35.8	32.9	38.9	14.3	35.3	35.6	33.3

주: 손해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이며,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보상 위험: 지역, 가구 소득별

- 지역 규모에 따른 보상 경험은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져 군지역(45.1%), 가구 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져 고소득(3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질병으로 인한 보상 경험은 중·소도시(56.7%)와 중소득(56.9%)에서 가장 높음.
- 교통사고는 지역별로 중·소도시(42.2%)가 대도시(32.5%), 군지역(4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별로는 중소득(40.0%)이 고소득(37.4%), 저소득(34.0%)에 비해 보험금 지급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8〉 손해보험 보상 위험: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전체	거주 지역별			가구 소득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일반질병	53.6	51.5	56.7	48.8	49.1	56.9	52.4
교통사고	37.9	32.5	42.2	41.5	34.0	40.0	37.4
상해	23.8	25.4	23.9	17.1	32.1	20.0	24.3
자녀보장	7.2	8.9	5.6	7.3	1.9	6.9	8.7
중증질병	2.8	4.1	2.2	0.0	5.7	3.1	1.9
성인병	0.8	1.2	0.6	0.0	1.9	0.8	0.5
재산손실	0.3	0.6	0.0	0.0	0.0	0.0	0.5
저축	0.3	0.6	0.0	0.0	0.0	0.0	0.5
기타	0.3	0.6	0.0	0.0	0.0	0.0	0.5
손해보험 전체	35.4	33.7	35.4	45.1	30.8	32.7	38.8

주: 손해보험 전체는 보상 경험률임.

나.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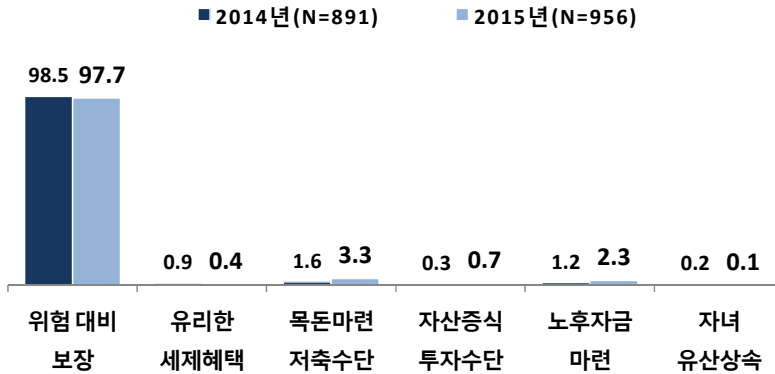
- 보험소비자의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보험 상품 판매 및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7.7%)이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보험 가입 이유로 꼽음.
 ○ 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손해보험의 특성상 사고 및 상해 등에 대비한 보장성 성격의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저축, 노후 대비, 그리고 투자 수단으로써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8〉 손해보험 상품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그리고 일반손해보험 등 보험 종목과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임.

〈표 Ⅲ-59〉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위험보장	저축수단	노후자금마련	세제혜택	자산증식	유산상속
자동차보험	98.0	0.8	0.2	0.7	0.3	—
장기손해보험	96.2	3.8	2.6	0.2	0.6	0.1
일반손해보험	97.5	—	2.5	—	—	—

주: 기타는 제외함(이하 동일).

3) 장기손해보험⁵⁾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 남녀노소 모두에서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높음.

〈표 Ⅲ-60〉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성별, 연령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위험보장	96.3	96.2	97.5	96.9	96.2	95.8	95.1
저축수단	4.4	3.1	4.2	3.7	3.4	4.2	3.5
노후자금 마련	1.9	3.3	0.8	3.7	1.0	4.2	2.8
세제혜택	0.5	0.0	0.0	0.0	0.5	0.0	0.7
자산증식	0.9	0.3	0.0	0.0	1.4	1.1	0.0
유산상속	0.2	0.0	0.0	0.0	0.0	0.5	0.0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이유로 가입했다는 응답이 모든 직업군에서 90% 이상으로 높음.

〈표 Ⅲ-61〉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위험보장	95.7	99.4	94.2	92.3	97.1	93.8	95.7
저축수단	3.1	1.8	6.3	7.7	2.2	6.3	8.7
노후자금 마련	2.8	2.4	2.1	0.0	3.6	3.1	0.0
세제혜택	0.4	0.0	0.5	0.0	0.0	0.0	0.0
자산증식	0.4	0.6	1.0	7.7	0.0	0.0	0.0
유산상속	0.4	0.0	0.0	0.0	0.0	0.0	0.0

주: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5)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가입 이유로 위험보장을 선택하여 특성별 분석이 불가능하여 생략함.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학력별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위험에 대비한 보장은 모든 학력층에서 95% 이상으로 높음.

〈표 Ⅲ-62〉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위험보장	97.9	95.7	96.4
저축수단	0.0	4.6	3.6
노후자금 마련	2.1	2.8	2.4
세제혜택	0.0	0.0	0.5
자산증식	2.1	0.6	0.5
유산상속	0.0	0.0	0.2

주: 중졸 이하는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신뢰도가 낮음.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가구 소득별

- 모든 소득층에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음.

〈표 Ⅲ-63〉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위험보장	97.0	94.6	97.2
저축수단	3.0	5.4	2.8
노후자금 마련	3.0	2.4	2.5
세제혜택	0.0	0.7	0.0
자산증식	0.8	0.7	0.5
유산상속	0.0	0.0	0.3

■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채널별

-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위하여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모든 채널에서 높게 나타남.

〈표 Ⅲ-64〉 장기손해보험 가입 이유: 채널별

(단위: %)

구분	대면	직판	은행
위험보장	96.2	93.5	100.0
저축수단	3.8	6.5	0.0
노후자금 마련	2.7	3.2	0.0
세제혜택	0.3	0.0	0.0
자산증식	0.7	0.0	0.0
유산상속	0.1	0.0	0.0

주: 직판, 은행 채널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1) 조사 목적

- 손해보험회사를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로 구분하여 대형사, 중·소형사, 그리고 직판사별 가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각 회사별 잠재 수요 예측 및 마케팅 자료에 참고하도록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가입자(N=836) 10명 중 8명(82.3%) 이상이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그리고 동부화재 4개 대형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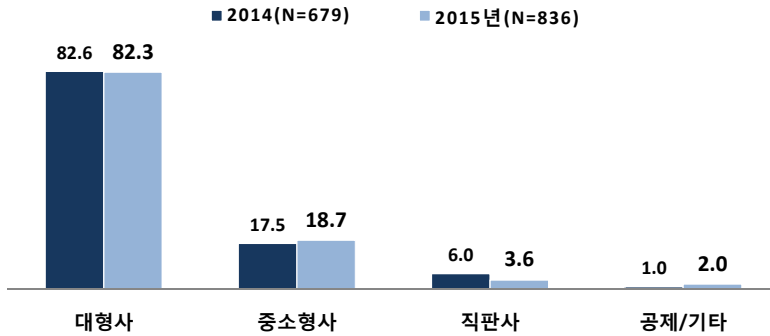
- 보험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해상 22.4%, 동부화재 19.0%, LIG손해보험 12.8% 순으로 조사됨.⁶⁾

○ 손해보험 시장 내 대형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여전히 압도적이나, 중·소형사와 공제/기타 회사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이는 설문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실제 원수보험료 점유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Ⅲ-9〉 최근 3년 내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N=836 / 단위: %)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성별

- 최근 3년 내 대형사 가입률은 남녀 모두에서 높은 가운데, 남성(84.5%)의 가입률이 여성보다 더 높음.

〈표 Ⅲ-65〉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성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남성	84.5	15.9	4.8	2.2
여성	79.0	22.8	1.8	1.8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연령별

- 대형사 가입률은 모든 연령에서 80% 내외로 높음.
- 중·소형사 가입률은 18% 수준인 가운데, 40대(21.1%)가 가장 높고, 60대 이상(14.5%)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표 Ⅲ-66〉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연령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20대	82.2	19.5	5.1	2.5
30대	80.4	18.5	4.3	1.6
40대	77.9	21.1	4.4	2.0
50대	85.9	18.9	1.6	2.7
60대 이상	86.2	14.5	2.8	1.4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거주 지역별

- 대형사를 통한 손해보험 가입률은 모든 지역에서 80% 내외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대도시가 84.5%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Ⅲ-67〉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대도시	84.5	18.7	2.8	1.6
중·소도시	80.7	18.0	5.0	1.8
군지역	79.1	22.4	0.0	6.0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직업별

- 모든 직업군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70% 내외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중·소형사 가입률은 주부(2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68〉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직업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화이트칼라	82.7	18.4	4.8	2.6
블루칼라	80.2	20.9	4.1	3.5
자영업	87.6	12.4	3.2	1.4
농/임/어업	66.7	33.3	0.0	0.0
주부	71.4	28.6	1.8	0.9
은퇴자	97.0	9.1	0.0	0.0
무직/기타	78.3	26.1	4.3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학력별

-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대형사 가입률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중·소형사 가입률은 대재 이상(18.9%), 직판사 가입률은 중졸 이하(5.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Ⅲ-69〉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학력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중졸 이하	76.3	18.4	5.3	0.0
고졸	84.3	18.5	2.2	1.7
대재 이상	81.1	18.9	4.6	2.5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회사군별 최근 3년 내 가입률: 가구 소득별

- 모든 소득 계층에서 대형사를 통한 손해보험 가입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Ⅲ-70〉 손해보험 회사군별 가입률: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직판사	공제/기타
저소득	83.5	13.2	3.3	3.3
중소득	83.1	19.5	2.6	1.0
고소득	81.3	19.7	4.4	2.4

라.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분석

1) 조사 목적

- 최근 3년 이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만족도를 보험 종목별로 파악하여 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최근 3년 내 가입한 보험 상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동차보험 3.91점, 장기손해보험 3.92점, 일반손해보험 3.90점으로 모두 3.9점 이상 수준임.
- 모든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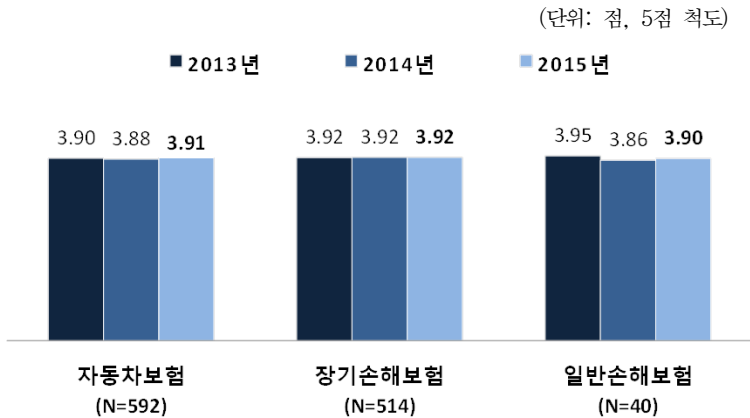
〈표 Ⅲ-71〉 손해보험 종목별 가입률 및 만족도

구분	3년 내 가입률(%)	상품만족도(점, 5점 척도)
자동차보험 ²⁾	100.0	3.91
장기손해보험	42.8	3.92
일반손해보험	3.3	3.90

주: 1) 최근 3년 내 가입률로 전체 가입률과 차이가 있음.

2)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입률임.

〈그림 Ⅲ-10〉 손해보험 종목별 만족도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성별

- 장기손해보험 만족도는 3.9점 내외 수준으로 남녀가 비슷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Ⅲ-72〉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성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자동차보험	3.92	3.88
장기손해보험	3.94	3.90
일반손해보험	4.00	3.80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령별

- 자동차보험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3.8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가 3.96점으로 가장 높았음.
- 장기손해보험 만족도는 40대(4.00점)가 가장 높음.

〈표 Ⅲ-73〉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연령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동차보험	3.88	3.91	3.87	3.96	3.91
장기손해보험	3.95	3.93	4.00	3.88	3.83
일반손해보험	4.00	3.89	3.69	4.20	3.75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모두 지역별 만족도가 3.9점 이상으로 나타남.

〈표 Ⅲ-74〉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자동차보험	3.90	3.90	4.02
장기손해보험	3.93	3.91	3.94
일반손해보험	4.13	3.69	3.86

주: 군지역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직업별

- 화이트칼라는 자동차보험(3.94점)과 장기손해보험(3.97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표 Ⅲ-75〉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직업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자동차보험	3.94	3.85	3.89	4.00	4.00	3.94	3.91
장기손해보험	3.97	3.93	3.89	4.00	3.92	3.83	3.75
일반손해보험	4.14	3.80	3.64	—	3.89	—	—

주: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학력별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모두 학력별 만족도가 3.8점 이상으로 나타남.

〈표 Ⅲ-76〉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학력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자동차보험	4.00	3.87	3.93
장기손해보험	4.13	3.85	3.96
일반손해보험	4.00	3.60	4.09

주: 중졸 이하,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만족도는 고소득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77〉 손해보험 상품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자동차보험	3.88	3.89	3.93
장기손해보험	3.92	3.91	3.93
일반손해보험	3.40	3.71	4.15

주: 일반손해보험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마.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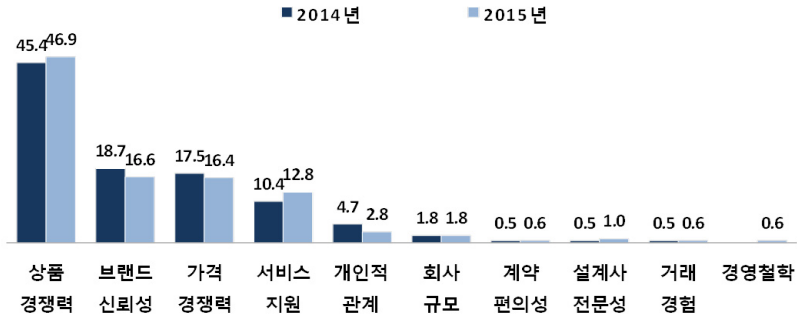
- 향후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보험 니즈 파악의 참고로 활용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소비자는 무엇보다 상품의 경쟁력(46.9%)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16.6%), 가격 경쟁력(16.4%), 서비스 지원(12.8%), 그리고 개인적 관계(2.8%) 등의 순임.
- 상품 경쟁력은 전년대비 1.5%p 상승한 반면,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성은 2.1%p 하락함.
 - 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보험회사 브랜드 신뢰도보다 상품의 보장 내용 및 소비자의 니즈 여부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회사규모, 경영 철학, 계약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손해보험회사의 선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N=1,200 / 단위: %)



3) 세부 분석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성별

○ 남녀 모두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상품 경쟁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78〉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상품 경쟁력	50.1	43.8
브랜드 신뢰성	15.9	17.3
가격 경쟁력	16.0	16.8
서비스 지원	12.1	13.3
개인적 관계	2.5	3.0
회사규모	1.2	2.5
과거 거래경험	0.3	0.8
설계사 전문성	1.0	1.0
계약의 편리성	0.3	0.8
경영철학	0.5	0.7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연령별

○ 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의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모든 연령층에서 40%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Ⅲ-79〉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상품 경쟁력	49.5	52.9	44.7	40.9	47.6
브랜드 신뢰성	13.6	12.9	19.5	16.9	18.7
가격 경쟁력	19.2	16.9	15.6	18.6	12.8
서비스 지원	13.1	10.2	12.2	14.0	13.9
개인적 관계	1.5	2.2	2.3	5.0	2.6
회사규모	2.0	1.3	2.3	0.8	2.6
과거 거래경험	0.5	0.9	0.8	0.8	0.0
설계사 전문성	0.0	1.3	0.4	1.7	1.5
계약의 편리성	0.5	0.9	0.8	0.4	0.4
경영철학	0.0	0.4	1.5	0.8	0.0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거주 지역별

- 상품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대도시(47.6%)와 중·소도시(45.9%)에 비해 군지역(49.0%)이 더 높음.
- 반면, 서비스 지원은 대도시(14.6%)가 중·소도시(11.6%), 군지역(8.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80〉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거주 지역별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상품 경쟁력	47.6	45.9	49.0
브랜드 신뢰성	14.8	18.5	15.6
가격 경쟁력	15.2	17.4	17.7
서비스 지원	14.6	11.6	8.3
개인적 관계	2.9	2.4	4.2
회사규모	1.6	1.8	3.1
과거 거래경험	0.7	0.4	1.0
설계사 전문성	1.1	0.9	1.0
계약의 편리성	0.7	0.5	0.0
경영철학	0.7	0.5	0.0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별

- 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모든 직업에서 40% 이상으로 높음.

〈표 Ⅲ-8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상품 경쟁력	44.6	55.1	44.6	50.0	41.0	50.0	55.4
브랜드 신뢰성	18.9	10.2	16.5	28.6	21.2	19.6	7.1
가격 경쟁력	17.1	15.5	18.3	7.1	15.2	12.5	17.9
서비스 지원	12.0	12.7	13.3	7.1	13.8	12.5	12.5
개인적 관계	2.4	2.9	3.2	0.0	2.3	5.4	1.8
회사규모	1.2	1.6	2.2	0.0	2.8	0.0	3.6
과거 거래경험	0.3	1.2	0.7	0.0	0.5	0.0	0.0
설계사 전문성	0.9	0.8	0.4	7.1	2.3	0.0	0.0
계약의 편리성	0.9	0.0	0.7	0.0	0.5	0.0	1.8
경영철학	1.8	0.0	0.0	0.0	0.5	0.0	0.0

주: 농/임/어업, 주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학력별

- 학력과 상관없이, 상품 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음.

〈표 Ⅲ-82〉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상품 경쟁력	47.5	46.9	47.1
브랜드 신뢰성	18.8	17.2	15.5
가격 경쟁력	11.9	15.7	17.7
서비스 지원	14.9	12.8	12.4
개인적 관계	1.0	3.8	2.0
회사규모	4.0	1.8	1.5
과거 거래경험	0.0	0.2	1.1
설계사 전문성	2.0	0.7	1.1
계약의 편리성	0.0	0.5	0.7
경영철학	0.0	0.4	0.9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 가구 소득별

-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상품 경쟁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83〉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사항(1순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상품 경쟁력	46.4	49.4	45.3
브랜드 신뢰성	16.2	16.2	17.1
가격 경쟁력	15.7	12.6	19.7
서비스 지원	14.0	14.7	10.7
개인적 관계	3.0	3.6	2.0
회사규모	2.1	1.9	1.5
과거 거래경험	0.4	0.7	0.6
설계사 전문성	1.7	0.5	1.1
계약의 편리성	0.4	0.5	0.7
경영철학	0.0	0.0	1.3

5. 자동차보험

가.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1) 조사 목적

-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소비자 특성별로 분석하고, 향후 자동차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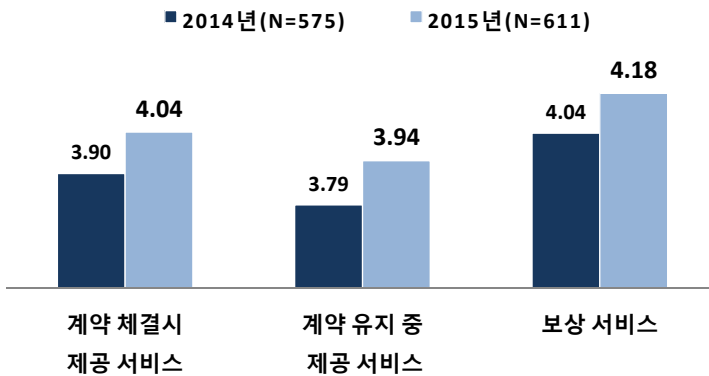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 가입자(N=611)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계약 체결 시 서비스 4.04점,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94점, 보상 서비스가 4.18점으로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만족도가 고르게 나타남.

○ 전년대비 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 유지 중 제공되는 서비스, 보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상승함.

〈그림 Ⅲ-12〉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단위: 점, 5점 척도)



주: 보상서비스는 보상 경험자의 만족도를 측정함.

3)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가운데, 보상 서비스의 경우 남성(4.18점)의 만족도가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Ⅲ-84〉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성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04	4.05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93	4.00
보상서비스	4.18	4.17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서비스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크지는 않은 가운데,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군지역(4.14점) 만족도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Ⅲ-85〉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거주 지역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08	3.99	4.18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95	3.90	4.14
보상서비스	4.27	4.08	4.25

주: 보상서비스 내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보상서비스를 제외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학력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표 Ⅲ-86〉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4.20	4.04	4.04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95	3.93	3.95
보상서비스	4.75	4.04	4.27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와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만족도는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Ⅲ-87〉 자동차보험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계약 체결 시 제공 서비스	3.96	4.00	4.09
계약 유지 중 제공 서비스	3.85	3.92	3.99
보상서비스	4.29	4.14	4.19

주: 보상서비스 내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 변경 의향

1) 조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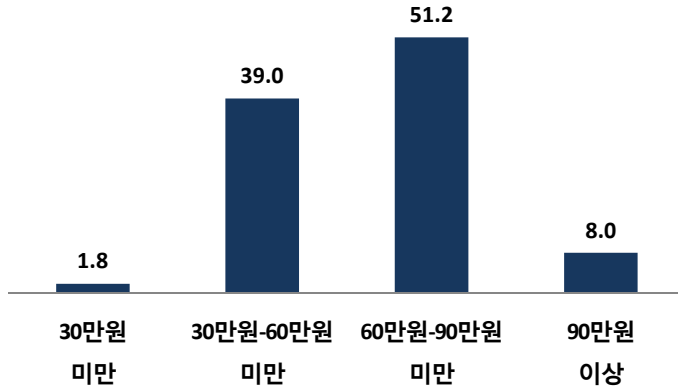
- 기존 손해보험회사를 다른 손해보험회사로 변경할지 또는 기존 손해보험회사를 다시 선택할지에 대한 의향과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의 충성도 제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 가입자(N=611)의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60만 원에서 9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1.2%로 가장 많았고, 30만 원에서 60만 원 미만이 39.0%, 90만 원 이상이 8.0%, 30만 원 미만이 1.8%로 평균 약 6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Ⅲ-13〉 연간 자동차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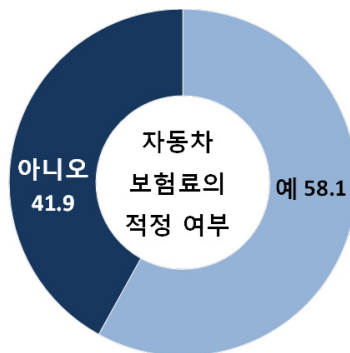
(N=611 / 단위: %)



- 자동차보험회사 가입자 10명 중 약 6명(58.1%)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20대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50.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Ⅲ-14〉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여부

(N=267 / 단위: %)



〈표 Ⅲ-88〉 자동차 보험료의 적정 여부: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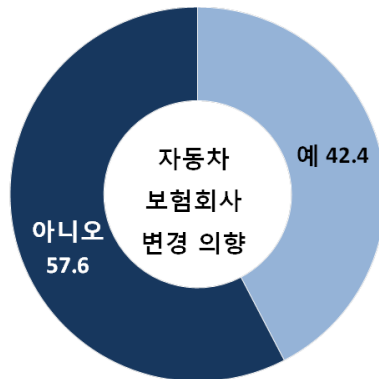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비싸다	80.8	56.9	55.6	57.9	50.0
비싸지 않다	19.2	43.1	44.4	42.1	50.0

- 자동차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10명 중 약 4명 이상(42.4%)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그림 Ⅲ-15〉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N=321 / 단위: %)



-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N=136)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가격별로 조사한 결과, 현 수준의 80~90% 미만인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 수준의 90% 이상(39.7%)에서는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한편, 현 보험료 수준의 70~80% 미만(17.6%), 현 수준의 70% 미만(1.5%)에서는 변경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89〉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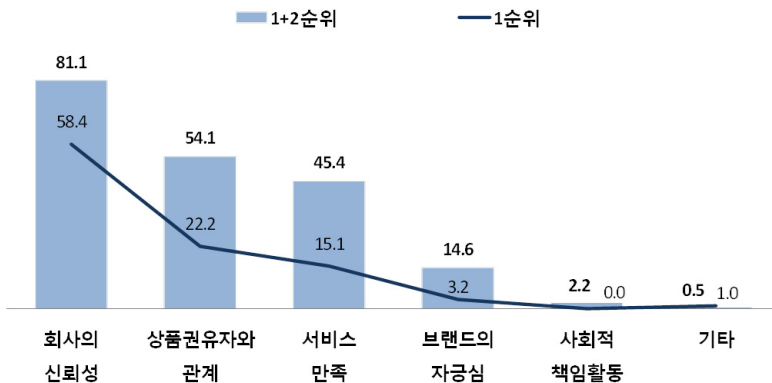
(N=136, 단위: %)

구분	현 수준의 70% 미만	현 수준의 70~80% 미만	현 수준의 80~90% 미만	현 수준의 90% 이상
변경 의향 있다	1.5	17.6	41.2	39.7
변경 의향 없다	98.5	82.4	58.8	60.3

- 한편, 보험료가 저렴하더라도 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응답자(N=185)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58.4%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상품 권유자와의 관계(22.2%),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15.1%),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16〉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비의향 이유(1순위)

(N=185 / 단위: %)



3) 세부 분석

■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에 대해서는 군지역이 67.6%로 대도시(57.1%)과 중·소도시(5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62.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27.1%로 가장 낮았음.

- 또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변경 의향의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20대: 62.90% > 30대: 47.9% > 40대: 44.3% > 50대: 37.7% > 60대 이상: 27.1%).
-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화이트칼라(48.2%)와 블루칼라(50.0%)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90〉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 특성별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지역 규모	대도시	42.9	57.1
	중·소도시	44.4	55.6
	군지역	32.4	67.6
응답자 연령	20대	62.9	37.1
	30대	47.9	52.1
	40대	44.3	55.7
	50대	37.7	62.3
	60대 이상	27.1	72.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8.2	51.8
	블루칼라	50.0	50.0
	자영업	38.9	61.1
	농/임/어업	33.3	66.7
	주부	26.7	73.3
	은퇴자	17.6	82.4
	무직/기타	25.0	75.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연령별

- 보험회사의 신뢰성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중·소도시(51.3%), 남성(59.2%), 40대(75.0%)에서 높았음.
- 한편, 상품 권유자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이라는 응답은 군지역(28.0%), 남성(23.9%), 60대 이상(2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91〉 자동차보험회사 변경 의향이 없는 이유: 특성별

(단위: %)

특성별		회사의 신뢰성	상품 권유자와의 관계	서비스 만족	브랜드 자긍심	기타
지역 규모	대도시	63.8	16.3	15.0	5.0	0.0
	중·소도시	51.3	26.3	18.8	1.3	2.6
	군지역	64.0	28.0	4.0	4.0	0.0
성별	남성	59.2	23.9	13.4	2.1	1.4
	여성	55.8	16.3	20.9	7.0	0.0
응답자 연령	20대	53.8	15.4	23.1	0.0	7.7
	30대	54.1	24.3	16.2	2.7	2.7
	40대	75.0	15.9	6.8	2.3	0.0
	50대	54.2	22.9	18.8	4.2	0.0
	60대 이상	51.2	27.9	16.3	4.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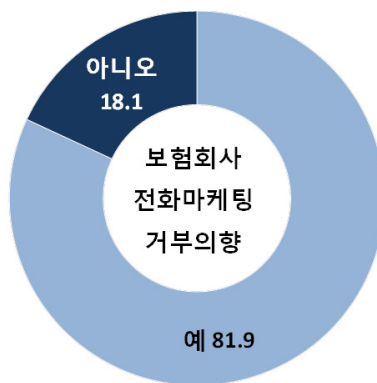
주: 군지역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81.9%, 거부할 의향이 없다는 18.1%로 나타남.

〈그림 Ⅲ-17〉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N=1,200 / 단위: %)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줄이고자 전화마케팅을 거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군지역(86.5%), 30대(84.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Ⅲ-92〉 보험회사의 전화마케팅 거부 의향 여부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지역 규모	대도시	80.8	19.2
	중·소도시	82.2	17.8
	군지역	86.5	13.5
응답자 연령	20대	84.3	15.7
	30대	84.9	15.1
	40대	80.9	19.1
	50대	81.0	19.0
	60대 이상	79.5	20.5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83.5	16.5
	블루칼라	82.0	18.0
	자영업	80.6	19.4
	농/임/어업	92.9	7.1
	주부	80.2	19.8
	은퇴자	82.1	17.9
	무직/기타	82.1	17.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IV. 생명 · 손해보험 공통

1. 실손의료보험

가. 현재 건강상태

-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 74.9%, 보통이다 21.8%, 건강하지 않다 3.3%로 대략 10명 중에서 7명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응답함.
-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건강하다는 응답은 남성(80.9%),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아져 20대(92.4%)와 30대(90.2%),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80.3%)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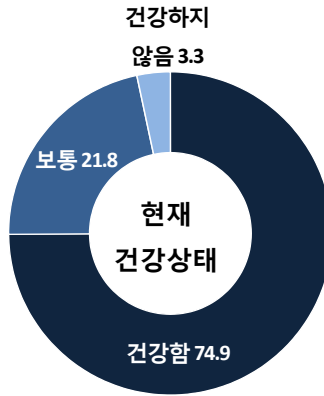
〈표 IV-1〉 현재 건강상태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건강함	보통	건강하지 않음
전체		(1,200)	74.9	21.8	3.3
성별	남성	(593)	80.9	17.2	1.9
	여성	(607)	69.0	26.2	4.8
응답자 연령	20대	(198)	92.4	7.6	0.0
	30대	(225)	90.2	9.8	0.0
	40대	(262)	79.4	18.3	2.3
	50대	(242)	71.5	24.0	4.5
	60대 이상	(273)	48.4	43.2	8.4
가구 소득	저소득	(235)	58.7	33.6	7.7
	중소득	(421)	77.2	19.7	3.1
	고소득	(543)	80.3	18.2	1.5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그림 IV-1〉 현재 건강상태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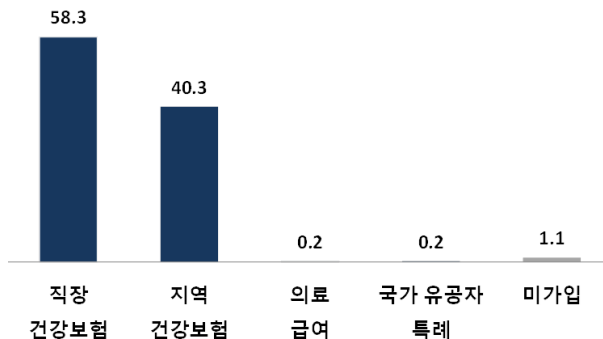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종류로는 직장 건강보험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건강보험(40.3%), 의료급여(0.2%), 국가유공자 특례(0.2%)의 순으로 나타남(미가입: 1.1%).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아져 20대(82.8%)와 30대(81.8%), 40대(62.2%), 화이트칼라(94.0%)와 블루칼라(79.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N=1,200 / 단위: %)



〈표 IV-2〉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	의료 급여	국가 유공자 특례	미가입
전체		(1200)	58.3	40.3	0.2	0.2	1.1
응답자 연령	20대	(198)	82.8	14.6	0.0	0.0	2.5
	30대	(225)	81.8	18.2	0.0	0.0	0.0
	40대	(262)	62.2	37.0	0.0	0.0	0.8
	50대	(242)	51.2	47.5	0.4	0.4	0.4
	60대 이상	(273)	23.8	73.6	0.4	0.4	1.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4)	94.0	5.7	0.3	0.0	0.0
	블루칼라	(245)	79.2	20.8	0.0	0.0	0.0
	자영업	(278)	15.5	84.5	0.0	0.0	0.0
	농/임/어업	(14)	35.7	64.3	0.0	0.0	0.0
	주부	(217)	47.5	50.2	0.0	0.0	2.3
	은퇴자	(56)	21.4	73.2	1.8	0.0	3.6
	무직/기타	(56)	51.8	33.9	0.0	3.6	10.7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다.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 지난 1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했다 39.1%(개인 실손의료보험 37.5% + 단체 실손의료보험 1.6%), 가입하지 않았다 60.9%로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는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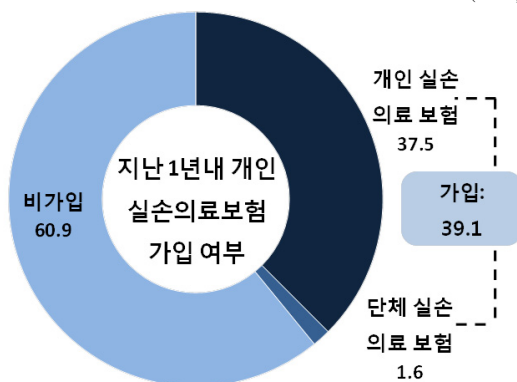
○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0대(78.4%), 은퇴자(78.6%)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가입했다는 응답은 20대(43.9%)와 30대(45.8%), 40대(46.6%), 화이트칼라(47.3%)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20대(42.4%)와 30대(44.4%), 40대(45.0%), 화이트칼라(43.4%)와 블루칼라(41.2%), 주부(41.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N=1,200 / 단위: %)



〈표 IV-3〉 지난 1년 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개인 실손의료보험	단체 실손의료보험	
전체		(1200)	37.5	1.6	60.9
응답자 연령	20대	(198)	42.4	1.5	56.1
	30대	(225)	44.4	1.4	54.2
	40대	(262)	45.0	1.6	53.4
	50대	(242)	37.6	2.9	59.5
	60대 이상	(273)	20.9	0.7	78.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4)	43.4	3.9	52.7
	블루칼라	(245)	41.2	0.4	58.4
	자영업	(278)	32.0	0.7	67.3
	농/임/어업	(14)	7.1	0.0	92.9
	주부	(217)	41.0	0.9	58.1
	은퇴자	(56)	19.6	1.8	78.6
	무직/기타	(56)	25.0	0.0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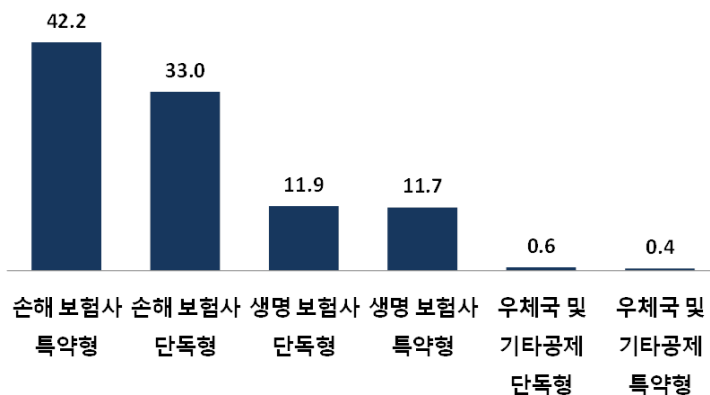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사 특약형(42.2%)과 단독형(33.0%)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응답으로 생명보험사 단독형(11.9%)과 특약형(11.7%), 우체국 및 기타공제 단독형(0.6%)과 특약형(0.4%)으로 나타남.

〈그림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형태

(N=46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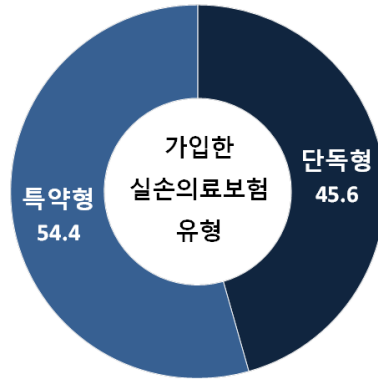


마.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에 대해서는 특약형(54.4%)이 단독형(45.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가입 유형이 특약형이라는 응답은 40대(59.8%), 자영업(58.2%),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59.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N=469 / 단위: %)



〈표 IV-4〉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단독형	특약형
전체		(469)	45,6	54,4
응답자 연령	20대	(87)	47,1	52,9
	30대	(103)	46,6	53,4
	40대	(122)	40,2	59,8
	50대	(98)	48,0	52,0
	60대 이상	(59)	49,2	50,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43,0	57,0
	블루칼라	(102)	47,1	52,9
	자영업	(91)	41,8	58,2
	농/임/어업	(1)	100,0	0,0
	주부	(91)	49,5	50,5
	은퇴자	(12)	58,3	41,7
	무직/기타	(14)	50,0	50,0
가구 소득	저소득	(55)	52,7	47,3
	중소득	(179)	49,7	50,3
	고소득	(234)	41,0	59,0
	모름/무응답	(1)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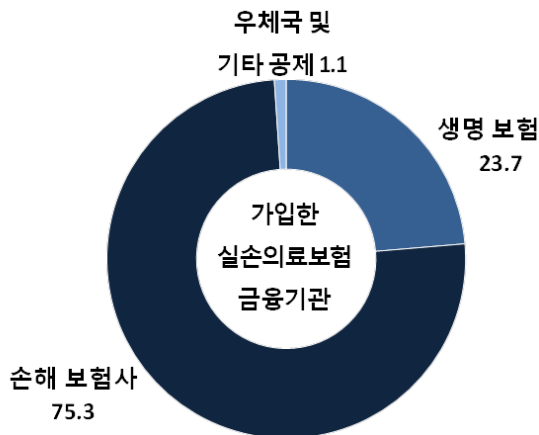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75.3%), 생명보험사(23.7%), 우체국 및 기타 공제(1.1%)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으로 손해보험사라는 응답은 50대(78.6%)와 60대 이상(81.4%),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8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N=469 / 단위: %)



〈표 IV-5〉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금융 기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전체		(469)	23.7	75.3	1.1
응답자 연령	20대	(87)	23.0	74.7	2.3
	30대	(103)	26.2	72.8	1.0
	40대	(122)	27.9	72.1	0.0
	50대	(98)	19.4	78.6	2.0
	60대 이상	(59)	18.6	81.4	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21.5	77.8	0.6
	블루칼라	(102)	26.5	71.6	2.0
	자영업	(91)	26.4	72.5	1.1
	농/임/어업	(1)	0.0	100.0	0.0
	주부	(91)	23.1	76.9	0.0
	은퇴자	(12)	16.7	83.3	0.0
	무직/기타	(14)	21.4	71.4	7.1
가구 소득	저소득	(55)	18.2	80.0	1.8
	중소득	(179)	21.2	78.2	0.6
	고소득	(234)	26.9	71.8	1.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사.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대면(94.2%)을 통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채널로는 직판(2.3%), 은행(0.6%) 등의 순으로 나타남(기타: 2.8%).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이 대면이라는 응답은 50대(99.0%)와 60대 이상(98.3%), 자영업(97.8%)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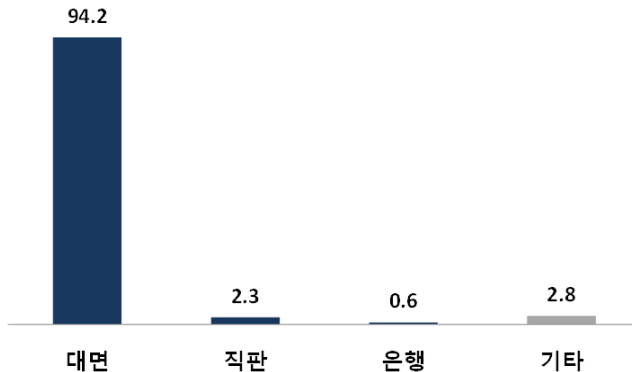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대면	직판	은행	기타
전체		(469)	94.2	2.3	0.6	2.8
응답자 연령	20대	(87)	93.1	0.0	1.1	5.7
	30대	(103)	93.2	2.9	1.9	1.9
	40대	(122)	90.2	5.7	0.0	4.1
	50대	(98)	99.0	1.0	0.0	0.0
	60대 이상	(59)	98.3	0.0	0.0	1.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92.4	5.1	0.0	2.5
	블루칼라	(102)	95.1	2.0	1.0	2.0
	자영업	(91)	97.8	0.0	0.0	2.2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주부	(91)	94.5	1.1	1.1	3.3
	은퇴자	(12)	100.0	0.0	0.0	0.0
	무직/기타	(14)	78.6	0.0	7.1	14.3
가구 소득	저소득	(55)	96.4	0.0	0.0	3.6
	중소득	(179)	97.2	0.0	0.6	2.2
	고소득	(234)	91.9	4.7	0.9	2.6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V-7〉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채널

(N=46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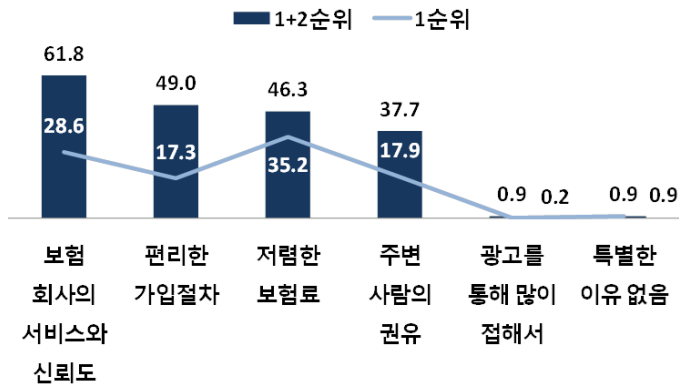


아.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사유

-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35.2%)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28.6%), 주변 사람의 권유(17.9%), 편리한 가입절차(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저렴한 보험료라는 응답은 40대(41.0%)와 60대 이상(40.7%),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40.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8〉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선택 사유

(N=469 / 단위: %)



〈표 IV-7〉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1순위)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저렴한 보험료	보험 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	주변 사람의 권유	편리한 가입절차	광고를 통해 많이 접해서	특별한 이유 없음
전체	(469)	35.2	28.6	17.9	17.3	0.2	0.9
응답자 연령	20대	(87)	33.3	27.6	20.7	18.4	0.0
	30대	(103)	26.2	36.9	16.5	20.4	0.0
	40대	(122)	41.0	27.0	13.1	18.0	0.0
	50대	(98)	35.7	25.5	18.4	19.4	0.0
	60대 이상	(59)	40.7	23.7	25.4	5.1	1.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36.1	27.8	20.9	14.6	0.6
	블루칼라	(102)	35.3	25.5	17.6	20.6	1.0
	자영업	(91)	34.1	35.2	16.5	13.2	1.1
	농/임/어업	(1)	0.0	0.0	100.0	0.0	0.0
	주부	(91)	36.3	25.3	14.3	24.2	0.0
	은퇴자	(12)	41.7	25.0	16.7	0.0	8.3
	무직/기타	(14)	21.4	42.9	14.3	21.4	0.0
가구 소득	저소득	(55)	40.0	16.4	21.8	20.0	1.8
	중소득	(179)	37.4	28.5	14.5	19.0	0.0
	고소득	(234)	32.5	31.6	19.7	15.0	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에 대해서 3년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35.2%), 비갱신형(12.2%), 1년(9.2%)의 순으로 나타남.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가 3년이라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20대(56.3%), 블루칼라(47.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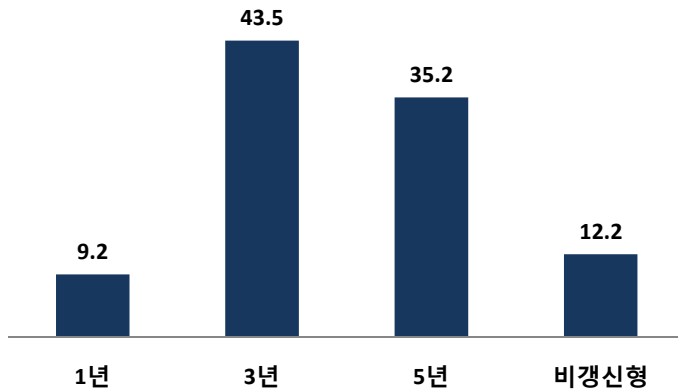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년	3년	5년	비갱신형
전체		(469)	9.2	43.5	35.2	12.2
응답자 연령	20대	(87)	9.2	56.3	28.7	5.7
	30대	(103)	9.7	48.5	34.0	7.8
	40대	(122)	7.4	42.6	35.2	14.8
	50대	(98)	9.2	35.7	37.8	17.3
	60대 이상	(59)	11.9	30.5	42.4	15.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7.6	44.9	32.9	14.6
	블루칼라	(102)	10.8	47.1	32.4	9.8
	자영업	(91)	11.0	42.9	33.0	13.2
	농/임/어업	(1)	0.0	0.0	100.0	0.0
	주부	(91)	8.8	39.6	39.6	12.1
	은퇴자	(12)	16.7	8.3	75.0	0.0
	무직/기타	(14)	0.0	64.3	28.6	7.1
가구 소득	저소득	(55)	14.5	36.4	34.5	14.5
	중소득	(179)	5.6	45.3	36.9	12.3
	고소득	(234)	10.7	43.6	34.2	11.5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V-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갱신 주기

(N=46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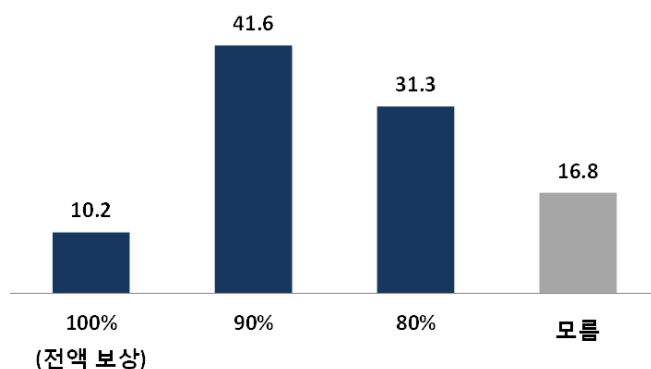
차.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에 대해서는 90%(41.6%), 80% (31.3%), 100%(10.2%) 순으로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한다는 응답이 나타남(모름: 16.8%).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이 90%라는 응답은 여성(45.0%), 주부(53.8%), 중소득(45.8%)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0〉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

(N=469 / 단위: %)



〈표 IV-9〉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의료비 보장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00% (전액 보상)	90%	80%	모름
전체		(469)	10.2	41.6	31.3	16.8
성별	남성	(229)	10.5	38.0	32.3	19.2
	여성	(240)	10.0	45.0	30.4	14.6
응답자 연령	20대	(87)	4.6	41.4	28.7	25.3
	30대	(103)	11.7	41.7	34.0	12.6
	40대	(122)	7.4	43.4	36.9	12.3
	50대	(98)	19.4	37.8	30.6	12.2
	60대 이상	(59)	6.8	44.1	20.3	28.8
	모름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11.4	38.0	33.5	17.1
	블루칼라	(102)	12.7	44.1	30.4	12.7
	자영업	(91)	8.8	34.1	36.3	20.9
	농/임/어업	(1)	0.0	0.0	0.0	100.0
	주부	(91)	7.7	53.8	28.6	9.9
	은퇴자	(12)	16.7	33.3	8.3	41.7
	무직/기타	(14)	0.0	42.9	21.4	35.7
가구 소득	저소득	(55)	14.5	38.2	21.8	25.5
	중소득	(179)	7.8	45.8	31.3	15.1
	고소득	(234)	11.1	38.9	33.8	16.2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카.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은 7.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성별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부 금액은 남성(7.4만 원)보다 여성(7.8만 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0〉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성별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남성	여성
월납 기준 납부 금액	7.6	7.4	7.8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연령별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부 금액은 50대 연령층이 8.1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V-11〉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연령별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월납 기준 납부 금액	7.6	6.7	7.7	7.7	8.1	7.9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직업별

-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납부 금액은 자영업(9.9만 원), 블루칼라(7.4만 원), 주부(7.2만 원), 화이트칼라(6.9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2〉 실손의료보험 평균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직업별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기타
월납 기준 납부 금액	7.6	6.9	7.4	9.9	3.0	7.2	6.9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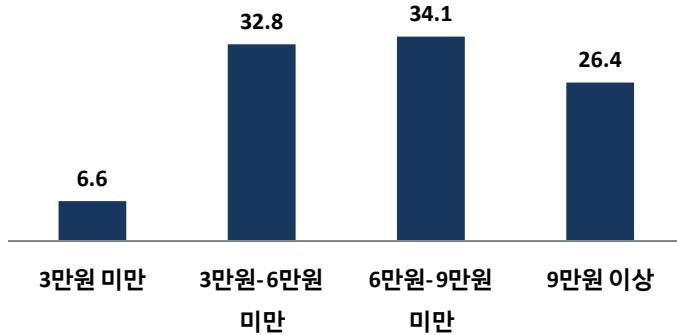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 수준으로 6만 원~9만 원 미만(34.1%)과 3만 원~6만 원 미만(32.8%)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응답으로는 9만 원 이상(26.4%), 3만 원 미만(6.6%)의 순으로 나타남.

○ 실손의료보험 월납 납부 금액이 6만 원~9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 (42.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1〉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N=469 / 단위: %)



〈표 IV-13〉 실손의료보험 월납 기준 납부 금액 수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3만 원 미만	3만 원~ 6만 원 미만	6만 원~ 9만 원 미만	9만 원 이상
전체		(469)	6.6	32.8	34.1	26.4
성별	남성	(229)	10.5	38.0	32.3	19.2
	여성	(240)	10.0	45.0	30.4	14.6
응답자 연령	20대	(87)	12.6	36.8	29.9	20.7
	30대	(103)	3.9	34.0	33.0	29.1
	40대	(122)	4.9	36.1	35.2	23.8
	50대	(98)	6.1	30.6	32.7	30.6
	60대 이상	(59)	6.8	22.0	42.4	28.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8)	11.4	38.0	33.5	17.1
	블루칼라	(102)	12.7	44.1	30.4	12.7
	자영업	(91)	8.8	34.1	36.3	20.9
	농/임/어업	(1)	0.0	0.0	0.0	100.0
	주부	(91)	7.7	53.8	28.6	9.9
	은퇴자	(12)	16.7	33.3	8.3	41.7
	무직/기타	(14)	0.0	42.9	21.4	35.7
가구 소득	저소득	(55)	14.5	38.2	21.8	25.5
	중소득	(179)	7.8	45.8	31.3	15.1
	고소득	(234)	11.1	38.9	33.8	16.2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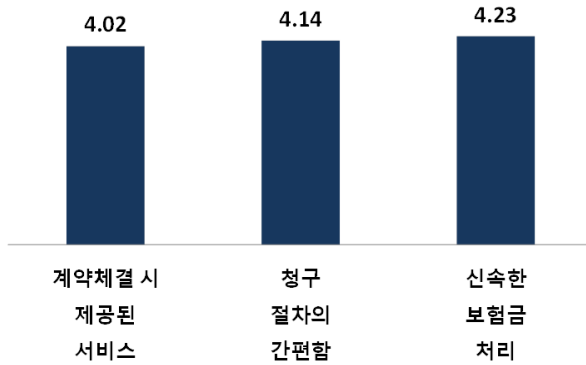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타.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신속한 보험금 처리가 4.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구 절차의 간편함(4.14점),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4.02점)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2〉 실손의료보험회사 서비스 만족도

(N=469 / 단위: 점, 5점 척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성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는 4.0점 이상으로 남녀가 비슷하였으나, 신속한 보험금 처리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14〉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성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남성	여성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4.02	4.03
청구절차의 간편함	4.13	4.15
신속한 보험금 처리	4.19	4.26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3.8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와 신속한 보험금 처리서비스 만족도는 40대(각각 4.11점, 4.29점)가 가장 높음.
- 청구절차의 간편한 서비스 만족도는 50대(4.22점)가 가장 높음.

〈표 IV-15〉 실손의료보험사 서비스 만족도: 연령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3.89	4.02	4.11	4.03	4.05
청구절차의 간편함	3.96	4.15	4.12	4.22	4.20
신속한 보험금 처리	4.12	4.18	4.29	4.22	4.27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 금융 기관별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는 4.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경우 신속한 보험금 처리서비스 만족도(각각 4.38, 4.19점)가 다른 서비스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6〉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금융 기관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및 기타 공제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4.01	4.03	4.20
청구절차의 간편함	4.08	4.15	5.00
신속한 보험금 처리	4.38	4.19	4.00

주: 우체국 및 기타공제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사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에 대한 직업별 만족도가 4.0점 내외 수준으로 나타남.

〈표 IV-17〉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직업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3.97	4.09	4.00	4.00	4.08	4.17	3.79
청구절차의 간편함	4.23	4.12	4.03	5.00	4.11	4.20	3.83
신속한 보험금 처리	4.33	4.22	4.03	4.00	4.29	4.40	3.83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에 대한 학력별 만족도는 4.0점 이상으로 나타남.

〈표 IV-18〉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학력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비스	4.05	4.05	4.00	4.00
청구절차의 간편함	4.29	4.08	4.17	4.00
신속한 보험금 처리	4.36	4.16	4.26	5.00

주: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는 저소득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IV-19〉 실손의료보험 회사 서비스 만족도: 가구 소득별

(단위: 점, 5점 척도)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모름/무응답
계약 체결시 제공된 서비스	4.05	4.05	4.00	4.00
청구절차의 간편함	4.32	4.07	4.14	4.00
신속한 보험금 처리	4.36	4.22	4.2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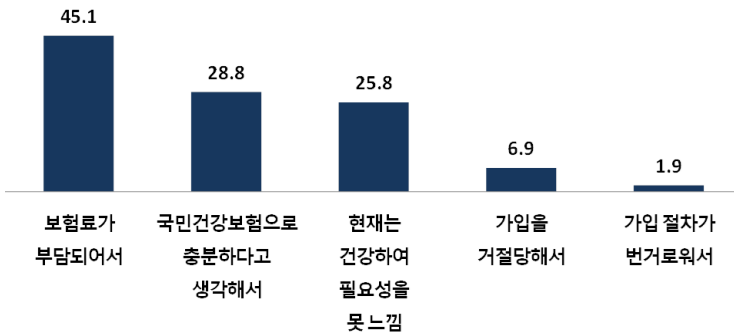
파.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28.8%),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25.8%), 가입을 거절당해서(6.9%),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1.9%) 등의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보험료가 부담되어서’라는 응답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아져 50대(49.0%)와 60대 이상(58.8%), 주부(55.1%)와 은퇴자(53.8%),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져 중졸 이하(69.1%),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층(53.9%)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3〉 실손의료보험 비가입 이유

(N=539 / 단위: %)



〈표 IV-20〉 실손의료보험 미가입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국민건강 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	가입을 거절당해서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
전체		(539)	45.1	28.8	25.8	6.9	1.9
응답자 연령	20대	(90)	27.8	27.8	60.0	0.0	2.2
	30대	(84)	34.5	23.8	50.0	0.0	1.2
	40대	(87)	40.2	44.8	21.8	1.1	2.3
	50대	(96)	49.0	29.2	17.7	3.1	4.2
	60대 이상	(182)	58.8	23.6	3.8	18.1	0.5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3)	31.7	32.5	43.1	0.0	0.8
	블루칼라	(95)	41.1	36.8	33.7	2.1	2.1
	자영업	(140)	50.7	26.4	12.9	10.7	2.9
	농/임/어업	(8)	62.5	0.0	25.0	12.5	0.0
	주부	(98)	55.1	26.5	20.4	6.1	0.0
	은퇴자	(39)	53.8	23.1	0.0	20.5	5.1
	무직/기타	(36)	38.9	22.2	38.9	13.9	2.8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8)	69.1	11.8	4.4	19.1	1.5
	고졸	(258)	45.0	33.3	20.5	7.8	1.9
	대재 이상	(212)	37.3	28.8	39.2	1.9	1.9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52)	53.9	25.0	11.2	12.5	1.3
	중소득	(172)	43.6	30.8	29.7	7.0	1.7
	고소득	(215)	40.0	29.8	33.0	2.8	2.3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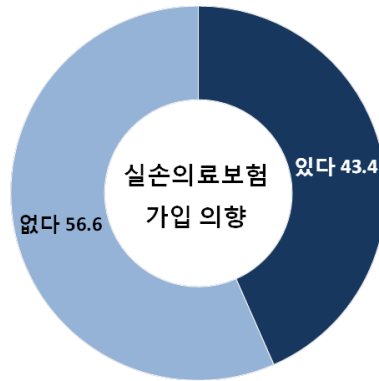
하.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을 질문한 결과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3.4%,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56.6%로 응답자 5명 중 2명 정도는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아져 20대(68.9%)와 30대(65.5%), 화이트칼라(63.4%), 블루칼라(50.5%), 중소득(50.6%)과 고소득(47.4%), 미혼(72.1%)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14〉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N=539 / 단위: %)



〈표 IV-21〉 향후 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가입 의향 있음	가입 의향 없음
전체		(539)	43.4	56.6
응답자 연령	20대	(90)	68.9	31.1
	30대	(84)	65.5	34.5
	40대	(87)	42.5	57.5
	50대	(96)	40.6	59.4
	60대 이상	(182)	22.5	77.5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3)	63.4	36.6
	블루칼라	(95)	50.5	49.5
	자영업	(140)	32.1	67.9
	농/임/어업	(8)	12.5	87.5
	주부	(98)	33.7	66.3
	은퇴자	(39)	30.8	69.2
	무직/기타	(36)	47.2	52.8
가구 소득	저소득	(152)	29.6	70.4
	중소득	(172)	50.6	49.4
	고소득	(215)	47.4	52.6
결혼여부	기혼	(428)	36.0	64.0
	미혼	(111)	72.1	27.9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정년제

가. 직장 정년제 여부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년제가 있다’는 응답이 55.5%, ‘없다’는 응답은 44.5%로 나타남.

○ 특히, 남성(63.8%), 30대(58.8%)와 40대(61.1%), 화이트칼라(73.1%)가 ‘정년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66.5%),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65.3%) ‘정년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V-22〉 직장 정년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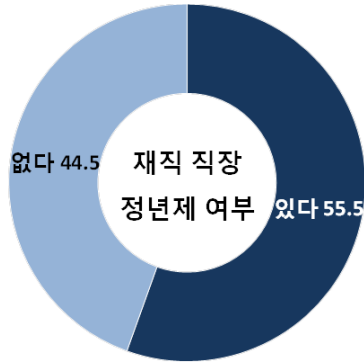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593)	55.5	44.5
성별	남성	(351)	63.8	36.2
	여성	(242)	43.4	56.6
응답자 연령	20대	(146)	58.2	41.8
	30대	(148)	58.8	41.2
	40대	(149)	61.1	38.9
	50대	(101)	56.4	43.6
	60대 이상	(49)	18.4	81.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4)	73.1	26.9
	블루칼라	(245)	34.7	65.3
	농/임/어업	(14)	0.0	10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	15.0	85.0
	고졸	(195)	37.9	62.1
	대재 이상	(376)	66.5	33.5
	모름/무응답	(2)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34.4	65.6
	중소득	(182)	48.9	51.1
	고소득	(320)	65.3	34.7
	모름/무응답	(1)	0.0	100.0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V-15〉 재직 직장 정년제 여부

(N=593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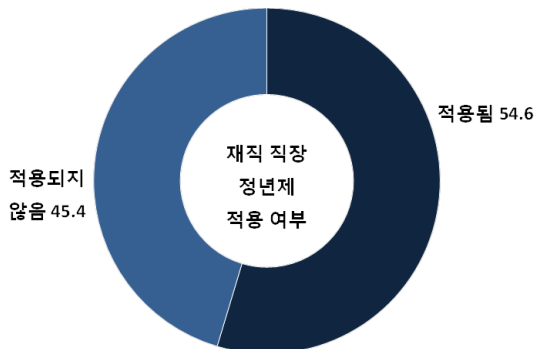


나. 재직 직장 정년제 적용 여부

- ‘자신에게 정년제가 적용된다’는 응답은 54.6%, ‘적용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남.
- 특히, 남성(62.1%), 40대(61.7%), 화이트칼라(71.9%)가 ‘자신에게 정년제가 적용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65.4%),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고소득 63.4%) ‘자신에게 정년제가 적용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6〉 재직 직장 정년제 적용 여부

(N=593 / 단위: %)



〈표 IV-23〉 재직 직장 정년제 적용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전체		(593)	54.6	45.4
성별	남성	(351)	62.1	37.9
	여성	(242)	43.8	56.2
응답자 연령	20대	(146)	56.8	43.2
	30대	(148)	57.4	42.6
	40대	(149)	61.7	38.3
	50대	(101)	55.4	44.6
	60대 이상	(49)	16.3	83.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4)	71.9	28.1
	블루칼라	(245)	34.3	65.7
	농/임/어업	(14)	0.0	10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	15.0	85.0
	고졸	(195)	37.4	62.6
	대재 이상	(376)	65.4	34.6
	모름/무응답	(2)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33.3	66.7
	중소득	(182)	50.0	50.0
	고소득	(320)	63.4	36.6
	모름/무응답	(1)	0.0	100.0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재직하는 직장에서 자신의 정년제 적용여부는 직장 내 정년제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근로자 모두에게 질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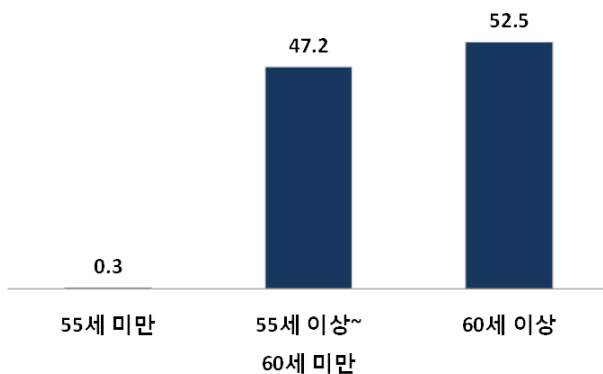
다. 재직 직장 정년제 적용 연령

■ 정년적용 대상자의 정년연령은 ‘60세 이상’(52.5%), ‘55세 이상 60세 미만’(47.2%), ‘55세 미만’(0.3%)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55.7%), 40대(58.7%)와 50대(60.7%), 블루칼라(59.5%), 고졸(67.1%), 고소득층(57.6%)에서 ‘정년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7〉 직장 정년제 적용 연령

(N=324 / 단위: %)



〈표 IV-24〉 직장 정년제 적용 나이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5세 미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324)	0.3	47.2	52.5
성별	남성	(218)	0.5	48.6	50.9
	여성	(106)	0.0	44.3	55.7
응답자 연령	20대	(83)	0.0	53.0	47.0
	30대	(85)	0.0	58.8	41.2
	40대	(92)	1.1	40.2	58.7
	50대	(56)	0.0	39.3	60.7
	60대 이상	(8)	0.0	0.0	10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40)	0.4	49.6	50.0
	블루칼라	(84)	0.0	40.5	59.5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	0.0	0.0	100.0
	고졸	(73)	0.0	32.9	67.1
	대재 이상	(246)	0.4	52.0	47.6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가구 소득	저소득	(30)	0.0	46.7	53.3
	중소득	(91)	0.0	59.3	40.7
	고소득	(203)	0.5	41.9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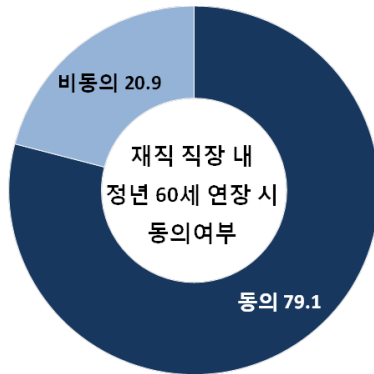
주: 60대 이상,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라. 재직 직장 내 정년 60세 연장 시 동의 여부

- 60세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79.1%,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9%로 나타났음.
- 특히, 중소기업층(85.3%)에서 ‘60세 정년 연장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8〉 재직 직장 내 정년 60세 연장 시 동의 여부

(N=382 / 단위: %)



〈표 IV-25〉 재직 직장 내 정년 60세 연장 시 동의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동의	비동의
전체		(382)	79.1	20.9
성별	남성	(223)	79.8	20.2
	여성	(159)	78.0	22.0
응답자 연령	20대	(107)	76.6	23.4
	30대	(113)	81.4	18.6
	40대	(95)	78.9	21.1
	50대	(67)	79.1	20.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12)	81.6	18.4
	블루칼라	(163)	76.7	23.3
	농/임/어업	(7)	57.1	42.9

〈표 IV-25〉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동의	비동의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50.0	50.0
	고졸	(123)	78.9	21.1
	대재 이상	(256)	79.3	20.7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8)	70.8	29.2
	중소득	(136)	85.3	14.7
	고소득	(197)	76.6	23.4
	모름/무응답	(1)	100.0	0.0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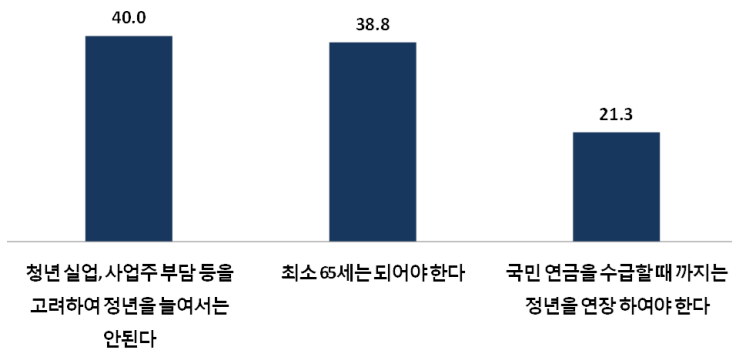
1)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 현행 정년 연장제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최소 65세는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청년실업,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늘여서는 안 된다’(38.8%),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까지는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21.3%)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여성(48.6%), 화이트칼라(43.6%)가 ‘최소 65세는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19〉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N=80 / 단위: %)



〈표 IV-26〉 정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최소 65세는 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늘여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수급할 때까지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체		(80)	40.0	38.8	21.3
성별	남성	(45)	33.3	46.7	20.0
	여성	(35)	48.6	28.6	22.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9)	43.6	41.0	15.4
	블루칼라	(38)	31.6	39.5	28.9
	농/임/어업	(3)	100.0	0.0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고졸	(26)	38.5	34.6	26.9
	대재 이상	(53)	39.6	41.5	18.9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 고졸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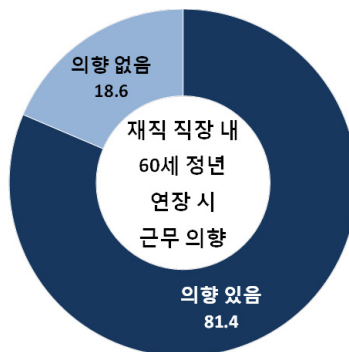
마.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4%, ‘근무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8.6%로 나타남.

○ 특히, 남성의 경우(85.2%)와 연령이 높을수록(40대 87.4%, 50대 89.6%), 저소득(87.5%), 중소득(87.5%)에서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20〉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N=382 / 단위: %)



〈표 IV-27〉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382)	81.4	18.6
성별	남성	(223)	85.2	14.8
	여성	(159)	76.1	23.9
응답자 연령	20대	(107)	73.8	26.2
	30대	(113)	78.8	21.2
	40대	(95)	87.4	12.6
	50대	(67)	89.6	1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12)	84.9	15.1
	블루칼라	(163)	76.1	23.9
	농/임/어업	(7)	100.0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고졸	(123)	80.5	19.5
	대재 이상	(256)	81.6	18.4
	모름/무응답	(1)	100.0	0.0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1) 조기퇴직 계획 시 퇴직연령

■ 정년연장이 되어도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조기퇴직선호자)의 예상되는 퇴직연령은 평균 48.7세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 48.8세, 여성 48.7세로 나타나 큰 차이는 없음.

○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50.1세, 블루칼라 47.6세로 나타나 블루칼라가 조기퇴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남.

〈표 IV-28〉 조기퇴직 계획 시 평균 퇴직연령: 성별

(단위: 세)

구분	평균	남성	여성
평균 퇴직연령	48.7	48.8	48.7

〈표 IV-29〉 조기퇴직 계획 시 평균 퇴직연령: 직업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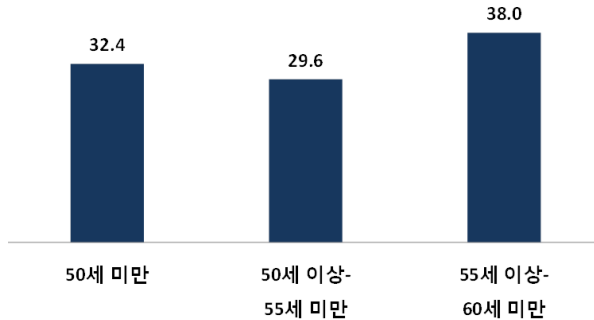
구분	평균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평균 퇴직연령	48.7	50.1	47.6

■ 조기퇴직선호자의 조기퇴직 예상연령을 보면, '55세 이상 60세 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세 미만' 32.4%, '50세 이상 55세 미만' 29.6%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고졸(41.7%)의 경우 '55세 이상 60세 미만'에 조기퇴직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1〉 조기퇴직 계획 시 퇴직연령

(N=71 / 단위: %)



〈표 IV-30〉 조기퇴직 계획 시 퇴직연령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50세 미만	50세 이상~55세 미만	55세 이상~60세 미만
전체		(71)	32.4	29.6	38.0
성별	남성	(33)	33.3	27.3	39.4
	여성	(38)	31.6	31.6	36.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2)	21.9	37.5	40.6
	블루칼라	(39)	41.0	23.1	35.9
응답자 교육 수준	고졸	(24)	29.2	29.2	41.7
	대재 이상	(47)	34.0	29.8	36.2

주: 고졸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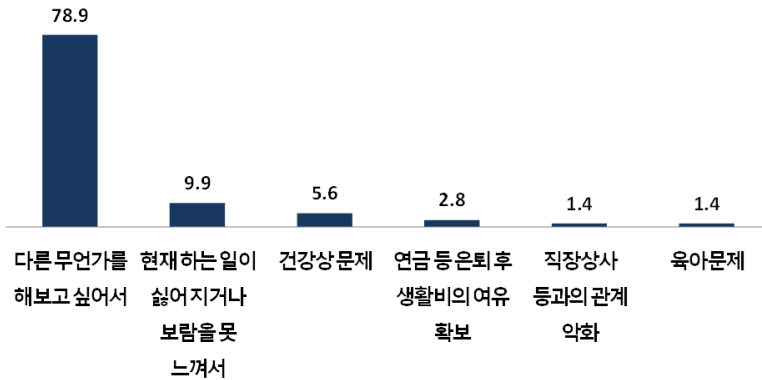
2) 조기퇴직 계획 이유

■ 조기퇴직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78.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현재하는 일이 싫어지거나 보람을 못 느껴서’(9.9%), ‘건강상 문제’(5.6%), ‘연금 등 은퇴 후 생활비의 여유 확보’(2.8%), ‘직장상사 등과의 관계 악화’(1.4%), ‘육아문제’(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남성(93.9%), 블루칼라(84.6%)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2〉 조기퇴직 계획 이유

(N=71 / 단위: %)



〈표 IV-31〉 조기퇴직 계획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현재하는 일이 싫어지거나 보람을 못 느껴서	건강상 문제	연금 등 은퇴 후 생활비의 여유 확보	직장 상사 등과의 관계 악화	육아 문제
전체	(71)	78.9	9.9	5.6	2.8	1.4	1.4
성별							
남성	(33)	93.9	3.0	0.0	0.0	3.0	0.0
여성	(38)	65.8	15.8	10.5	5.3	0.0	2.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2)	71.9	15.6	6.3	3.1	0.0	3.1
블루칼라	(39)	84.6	5.1	5.1	2.6	2.6	0.0
응답자 교육수준							
고졸	(24)	75.0	12.5	8.3	4.2	0.0	0.0
대재 이상	(47)	80.9	8.5	4.3	2.1	2.1	2.1

주: 고졸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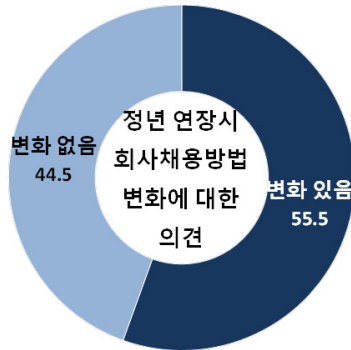
바.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에 대한 의견

■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5.5%,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5%로 나타남.

○ 특히, 50대(62.7%), 화이트칼라(60.4%), 대재 이상(58.8%)에서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음.

〈그림 IV-23〉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에 대한 의견

(N=382 / 단위: %)



〈표 IV-32〉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에 대한 의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변화 있음	변화 없음
전체		(382)	55.5	44.5
성별	남성	(223)	58.3	41.7
	여성	(159)	51.6	48.4
응답자 연령	20대	(107)	53.3	46.7
	30대	(113)	53.1	46.9
	40대	(95)	55.8	44.2
	50대	(67)	62.7	37.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12)	60.4	39.6
	블루칼라	(163)	47.9	52.1
	농/임/어업	(7)	85.7	14.3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고졸	(123)	48.8	51.2
	대재 이상	(256)	58.6	41.4
	모름/무응답	(1)	0.0	100.0

〈표 IV-32〉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변화 있음	변화 없음
가구 소득	저소득	(48)	50.0	50.0
	중소득	(136)	53.7	46.3
	고소득	(197)	57.9	42.1
	모름/무응답	(1)	100.0	0.0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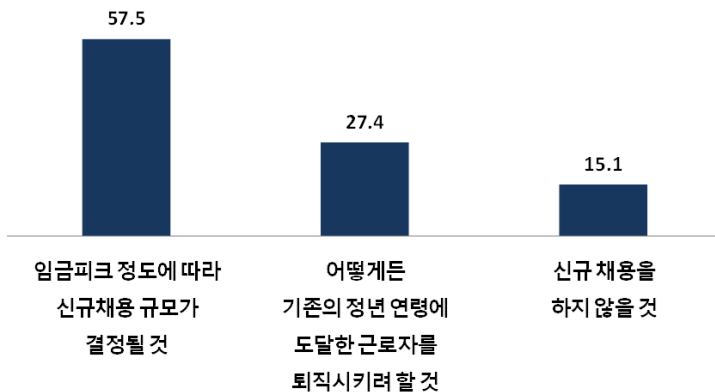
1)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대한 의견

■ 정년 연장에 따라 채용방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어떻게든 기존의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려 할 것’(27.4%),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15.1%)의 순이었음.

○ 특히, 40대(66.0%), 화이트칼라(63.3%), 대재 이상(62.0%), 고소득층(64.0%)에서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4〉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대한 의견

(N=212 / 단위: %)



〈표 IV-33〉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	어떻게든 기존의 정년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려 할 것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
전체		(212)	57.5	27.4	15.1
성별	남성	(130)	56.9	28.5	14.6
	여성	(82)	58.5	25.6	15.9
응답자 연령	20대	(57)	59.6	26.3	14.0
	30대	(60)	60.0	25.0	15.0
	40대	(53)	66.0	22.6	11.3
	50대	(42)	40.5	38.1	21.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8)	63.3	22.7	14.1
	블루칼라	(78)	48.7	33.3	17.9
	농/임/어업	(6)	50.0	50.0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50.0	50.0	0.0
	고졸	(60)	46.7	35.0	18.3
	대재이상	(150)	62.0	24.0	14.0
가구 소득	저소득	(24)	58.3	29.2	12.5
	중소득	(73)	47.9	35.6	16.4
	고소득	(114)	64.0	21.9	14.0
	무직/기타	(1)	0.0	0.0	100.0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사.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응답이 62.3%,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7.7%로 나타남.

○ 특히, 20대(65.4%), 화이트칼라(66.5%), 대재 이상(66.0%), 고소득층(69.5%)에서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음.

〈표 IV-34〉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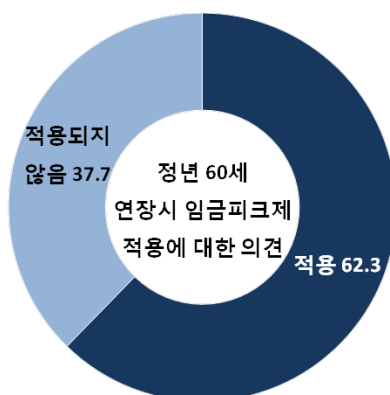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전체		(382)	62.3	37.7
성별	남성	(223)	64.6	35.4
	여성	(159)	59.1	40.9
응답자 연령	20대	(107)	65.4	34.6
	30대	(113)	61.1	38.9
	40대	(95)	62.1	37.9
	50대	(67)	59.7	40.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12)	66.5	33.5
	블루칼라	(163)	55.8	44.2
	농/임/어업	(7)	85.7	14.3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100.0	0.0
	고졸	(123)	53.7	46.3
	대재 이상	(256)	66.0	34.0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8)	56.3	43.8
	중소득	(136)	54.4	45.6
	고소득	(197)	69.5	30.5
	모름/무응답	(1)	0.0	100.0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그림 IV-25〉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N=382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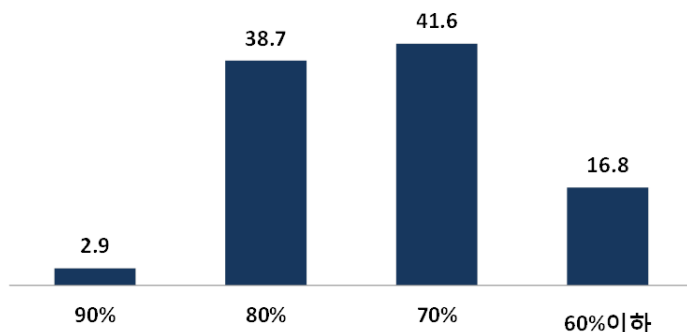
1)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

■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은 최종보수기준 70%(41.6%)와 80%(38.7%)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60% 이하(16.8%), 90%(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30대(47.8%)와 40대(47.5%), 중소득층(49.4%)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최종보수의 70%를 합리적 수준으로 보았음.

〈그림 IV-26〉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

(N=238 / 단위: %)



〈표 IV-35〉 임금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90%	80%	70%	60% 이하
전체		(238)	2.9	38.7	41.6	16.8
성별	남성	(144)	2.1	37.5	44.4	16.0
	여성	(94)	4.3	40.4	37.2	18.1
응답자 연령	20대	(70)	4.3	38.6	34.3	22.9
	30대	(69)	2.9	39.1	47.8	10.1
	40대	(59)	0.0	37.3	47.5	15.3
	50대	(40)	5.0	40.0	35.0	2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41)	3.5	38.3	42.6	15.6
	블루칼라	(91)	1.1	38.5	42.9	17.6
	농/임/어업	(6)	16.7	50.0	0.0	33.3

〈표 IV-35〉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90%	80%	70%	60% 이하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0.0	100.0	0.0	0.0
	고졸	(66)	4.5	33.3	37.9	24.2
	대재 이상	(169)	2.4	39.6	43.8	14.2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7)	0.0	44.4	40.7	14.8
	중소득	(74)	2.7	35.1	50.0	12.2
	고소득	(137)	3.6	39.4	37.2	19.7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아.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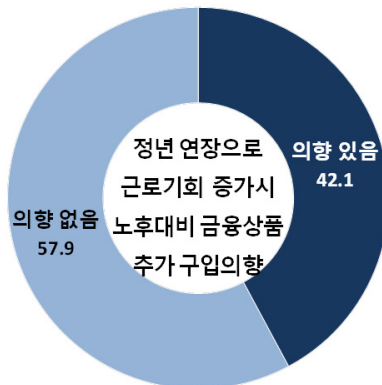
■ 정년 연장으로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42.1%였으며, ‘의향이 없는 경우’는 57.9%로 나타남.

○ 특히, 20대(49.5%), 저소득층(54.2%)의 경우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 구입할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40대(61.1%)와 50대(68.7%), 고졸(63.4%), 중소득층(61.8%)에서는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27〉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N=382 / 단위: %)



〈표 IV-36〉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382)	42.1	57.9
성별	남성	(223)	40.8	59.2
	여성	(159)	44.0	56.0
응답자 연령	20대	(107)	49.5	50.5
	30대	(113)	44.2	55.8
	40대	(95)	38.9	61.1
	50대	(67)	31.3	68.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12)	43.4	56.6
	블루칼라	(163)	41.7	58.3
	농/임/어업	(7)	14.3	85.7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	50.0	50.0
	고졸	(123)	36.6	63.4
	대재 이상	(256)	44.5	55.5
	모름/무응답	(1)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48)	54.2	45.8
	중소득	(136)	38.2	61.8
	고소득	(197)	41.6	58.4
	모름/무응답	(1)	100.0	0.0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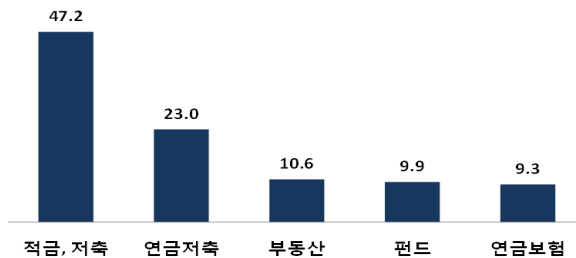
1)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계획 시 금융상품 유형

■ 소득이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구입할 금융상품으로는 적금 · 저축(47.2%), 연금저축(23.0%), 부동산(10.6%), 펀드(9.9%), 연금보험(9.3%)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저소득층(61.5%)에서 적금 · 저축을 구입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28〉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계획 시 금융상품 유형

(N=161 / 단위: %)



〈표 IV-37〉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계획 시 금융상품 유형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적금·저축	연금저축	부동산	펀드	연금보험
전체		(161)	47.2	23.0	10.6	9.9	9.3
성별	남성	(91)	47.3	23.1	8.8	9.9	11.0
	여성	(70)	47.1	22.9	12.9	10.0	7.1
응답자 연령	20대	(53)	47.2	22.6	9.4	13.2	7.5
	30대	(50)	46.0	22.0	10.0	12.0	10.0
	40대	(37)	43.2	21.6	10.8	8.1	16.2
	50대	(21)	57.1	28.6	14.3	0.0	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92)	47.8	18.5	12.0	9.8	12.0
	블루칼라	(68)	45.6	29.4	8.8	10.3	5.9
	농/임/어업	(1)	100.0	0.0	0.0	0.0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0.0
	고졸	(45)	44.4	20.0	17.8	13.3	4.4
	대재 이상	(114)	48.2	24.6	7.0	8.8	11.4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26)	61.5	15.4	3.8	3.8	15.4
	중소득	(52)	46.2	28.8	13.5	1.9	9.6
	고소득	(82)	42.7	22.0	11.0	17.1	7.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주: 1) 50대,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2)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생활비에 사용하기에 모자랄 것’이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 등에 사용할 것’(37.6%),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게 될 것’(10.9%), ‘부채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것’(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여성(57.3%), 20대(59.3%)와 40대(58.6%), 블루칼라(58.9%), 고졸(60.3%),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층 59.1%)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모자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8〉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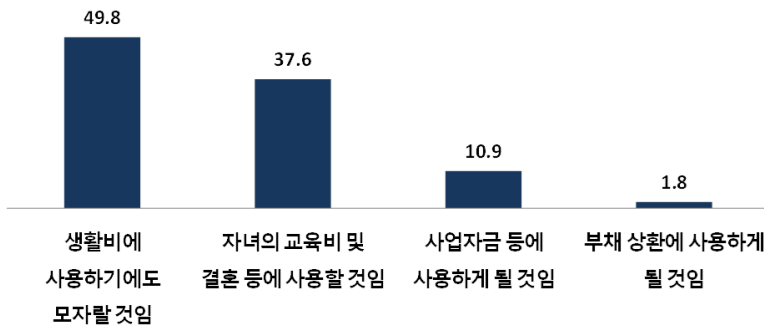
특성별		사례 수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모자랄 것임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 등에 사용할 것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게 될 것임	부채 상환에 사용하게 될 것임
전체		(221)	49.8	37.6	10.9	1.8
성별	남성	(132)	44.7	39.4	14.4	1.5
	여성	(89)	57.3	34.8	5.6	2.2
응답자 연령	20대	(54)	59.3	27.8	7.4	5.6
	30대	(63)	38.1	41.3	20.6	0.0
	40대	(58)	58.6	36.2	3.4	1.7
	50대	(46)	43.5	45.7	10.9	0.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20)	41.7	46.7	10.8	0.8
	블루칼라	(95)	58.9	26.3	11.6	3.2
	농/임/어업	(6)	66.7	33.3	0.0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	100.0	0.0	0.0	0.0
	고졸	(78)	60.3	33.3	3.8	2.6
	대재 이상	(142)	43.7	40.1	14.8	1.4
가구 소득	저소득	(22)	59.1	18.2	18.2	4.5
	중소득	(84)	51.2	35.7	11.9	1.2
	고소득	(115)	47.0	42.6	8.7	1.7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그림 IV-29〉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N=221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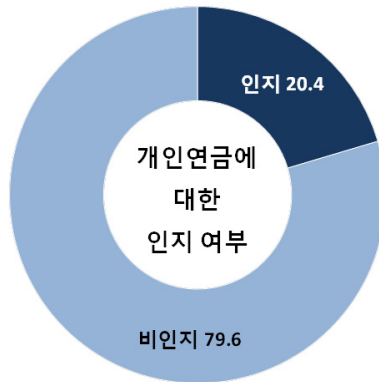


자.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여부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79.6%, 인지하는 비율이 20.4%로 나타남.
- 특히, 30대(25.7%)와 40대(23.5%), 화이트칼라(24.6%)에서 크레바스연금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20대(87.0%), 블루칼라(87.3%), 고졸(85.1%),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저소득 84.4%)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0〉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여부

(N=593 / 단위: %)



〈표 IV-39〉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전체		(593)	20.4	79.6
성별	남성	(351)	22.2	77.8
	여성	(242)	17.8	82.2
응답자 연령	20대	(146)	13.0	87.0
	30대	(148)	25.7	74.3
	40대	(149)	23.5	76.5
	50대	(101)	19.8	80.2
	60대 이상	(49)	18.4	81.6

〈표 IV-39〉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인지	비인지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4)	24.6	75.4
	블루칼라	(245)	12.7	87.3
	농/임/어업	(14)	57.1	42.9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0)	30.0	70.0
	고졸	(195)	14.9	85.1
	대재 이상	(376)	22.6	77.4
	모름/무응답	(2)	50.0	50.0
가구 소득	저소득	(90)	15.6	84.4
	중소득	(182)	19.2	80.8
	고소득	(320)	22.5	77.5
	모름/무응답	(1)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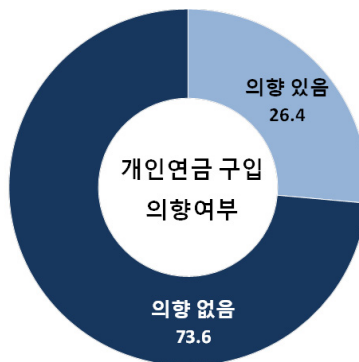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차.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 의향

-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할 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73.6%,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26.4%로 조사됨.
- 특히, 20대(36.9%)와 30대(37.3%), 화이트칼라(32.9%),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32.7%) 구입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50대(77.3%)와 60대 이상(87.2%), 은퇴자(83.9%),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92.1%, 고졸 76.5%), 저소득층(79.6%)에서 구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1〉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 의향

(N=1,200 / 단위: %)



〈표 IV-40〉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1200)	26.4	73.6
성별	남성	(593)	26.5	73.5
	여성	(607)	26.4	73.6
응답자 연령	20대	(198)	36.9	63.1
	30대	(225)	37.3	62.7
	40대	(262)	26.7	73.3
	50대	(242)	22.7	77.3
	60대 이상	(273)	12.8	87.2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34)	32.9	67.1
	블루칼라	(245)	26.1	73.9
	자영업	(278)	22.3	77.7
	농/임/어업	(14)	7.1	92.9
	주부	(217)	24.9	75.1
	은퇴자	(56)	16.1	83.9
응답자 교육 수준	무직/기타	(56)	30.4	69.6
	중졸 이하	(101)	7.9	92.1
	고졸	(548)	23.5	76.5
	대재 이상	(548)	32.7	67.3
	모름/무응답	(3)	33.3	66.7
가구 소득	저소득	(235)	20.4	79.6
	중소득	(421)	28.5	71.5
	고소득	(543)	27.4	72.6
	모름/무응답	(1)	0.0	10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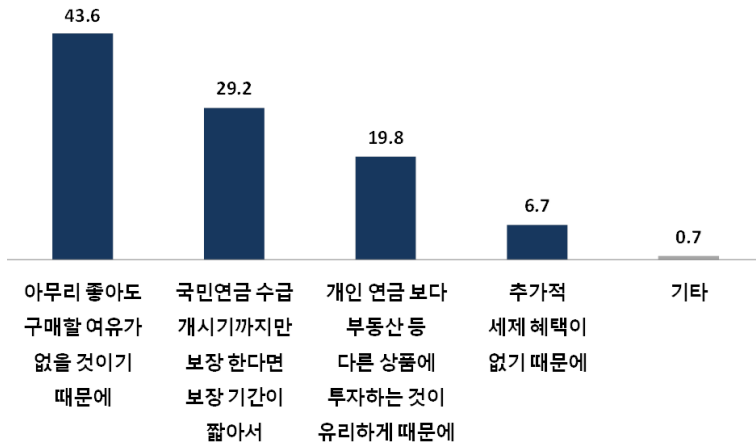
1)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하지 않는 이유

-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기까지만 보장한다면 보장 기간이 짧아서’(29.2%), ‘개인연금보다 부동산 등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19.8%), ‘추가적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6.7%) 등의 순이었음.

-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50대 47.1%, 60대 이상 55.0%), 은퇴자(53.2%), 주부(49.7%),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75.3%),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62.6%) 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그림 IV-3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하지 않는 이유

(N=883 / 단위: %)



〈표 IV-41〉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구입하지 않는 이유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기까지만 보장한다면 보장 기간이 짧아서	개인연금보다 부동산 등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가적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타
전체		(883)	43.6	29.2	19.8	6.7	0.7
성별	남성	(436)	40.8	30.5	20.6	7.1	0.9
	여성	(447)	46.3	28.0	19.0	6.3	0.4
응답자 연령	20대	(125)	33.6	35.2	22.4	8.0	0.8
	30대	(141)	36.2	31.9	20.6	9.2	2.1
	40대	(192)	38.0	31.8	23.4	6.8	0.0
	50대	(187)	47.1	29.9	18.2	4.3	0.5
	60대 이상	(238)	55.0	21.8	16.4	6.3	0.4

〈표 IV-41〉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만 보장한다면 보장 기간이 짧아서	개인연금보다 부동산 등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가적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타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24)	33.9	34.4	23.2	7.6	0.9
	블루칼라	(181)	46.4	26.0	18.8	7.7	1.1
	자영업	(216)	40.3	29.6	24.5	5.1	0.5
	농/임/어업	(13)	76.9	23.1	0.0	0.0	0.0
	주부	(163)	49.7	26.4	16.6	6.7	0.6
	은퇴자	(47)	53.2	31.9	6.4	8.5	0.0
	무직/기타	(39)	56.4	23.1	15.4	5.1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3)	75.3	12.9	8.6	2.2	1.1
	고졸	(419)	45.3	28.4	19.6	6.4	0.2
	대재 이상	(369)	33.6	34.1	23.0	8.1	1.1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87)	62.6	21.4	9.6	5.3	1.1
	중소득	(301)	44.2	25.9	21.9	7.6	0.3
	고소득	(394)	34.3	35.3	23.1	6.6	0.8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구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2) 추가적인 혜택 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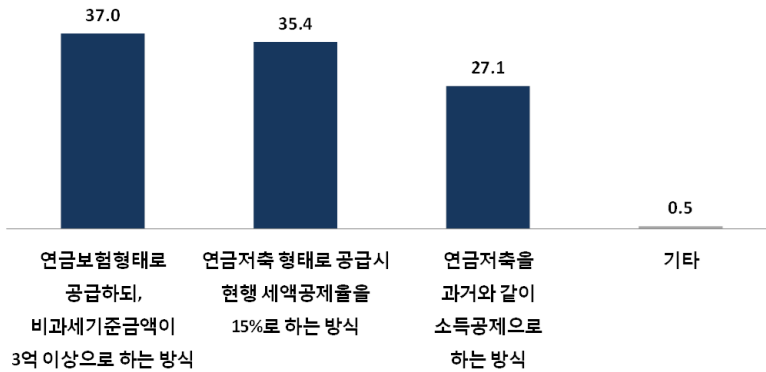
■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유인으로
는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기준 금액이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37.0%), ‘연금저축 형태로 공급하되, 현행 세액공제율을 15%로 하여야 한다’(35.4%), ‘연금저축을 과거와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해주어야 한다’(2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30대(41.8%)와 40대(40.6%), 화이트칼라(41.1%), 학력이 높을수록(대
재 이상 40.1%)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기준 금액이 3억 이상은 되
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한편, 20대(47.2%)와 60대 이상(38.7%), 주부(41.1%), 은퇴자(38.3%),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38.7%) ‘연금저축 형태로 공급하되, 현행 세액공제율을 15%로 하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IV-33〉 추가적인 혜택 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N=883/ 단위: %)



〈표 IV-42〉 추가적인 혜택 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 기준 금액이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이 15%는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을 과거와 같이 소득 공제 방식으로 해주어야 한다	기타
전체		(883)	37.0	35.4	27.1	0.5
성별	남성	(436)	36.7	34.2	28.7	0.5
	여성	(447)	37.4	36.7	25.5	0.4
응답자 연령	20대	(125)	36.0	47.2	16.0	0.8
	30대	(141)	41.8	26.2	31.9	0.0
	40대	(192)	40.6	31.8	27.6	0.0
	50대	(187)	38.0	34.2	27.3	0.5
	60대 이상	(238)	31.1	38.7	29.4	0.8

〈표 IV-42〉의 계속

특성별		사례 수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 기준 금액이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이 15%는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을 과거와 같이 소득 공제 방식으로 해 주어야 한다	기타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24)	41.1	30.4	28.1	0.4
	블루칼라	(181)	36.5	35.9	27.1	0.6
	자영업	(216)	37.0	31.0	31.5	0.5
	농/임/어업	(13)	23.1	46.2	30.8	0.0
	주부	(163)	36.8	41.1	21.5	0.6
	은퇴자	(47)	27.7	38.3	34.0	0.0
	무직/기타	(39)	33.3	56.4	10.3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3)	34.4	38.7	24.7	2.2
	고졸	(419)	35.1	37.2	27.7	0.0
	대재 이상	(369)	40.1	32.2	27.1	0.5
	모름/무응답	(2)	0.0	100.0	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87)	33.2	38.0	27.8	1.1
	중소득	(301)	36.2	35.2	28.2	0.3
	고소득	(394)	39.6	34.5	25.6	0.3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가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3)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
은 평균 17.45만 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여성(16.13만 원)보다 남성(18.79만 원)이 크레바스연금의 가입
예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43〉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성별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남성	여성
월평균 가입 금액	17.45	18.79	16.13

- 연령별로 보면, 30대(20.99만 원), 20대(19.71만 원), 40대(18.76만 원), 50대(16.12만 원), 60대 이상(14.14만 원) 순으로 크레바스연금의 가입예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44〉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연령별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월평균 가입 금액	17.45	19.71	20.99	18.76	16.12	14.14

-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19.29만 원)와 자영업자(18.05만 원)가 크레바스 연금의 가입예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45〉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직업별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월평균 가입 금액	17.45	19.29	17.27	18.05	11.31	16.82	16.70	13.49

주: 농/임/어업, 은퇴자, 무직/기타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 가구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가구 소득이 높아질수록 크레바스연금의 가입예상 금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IV-46〉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가구 소득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모름/무응답
월평균 가입 금액	17.45	13.50	17.88	19.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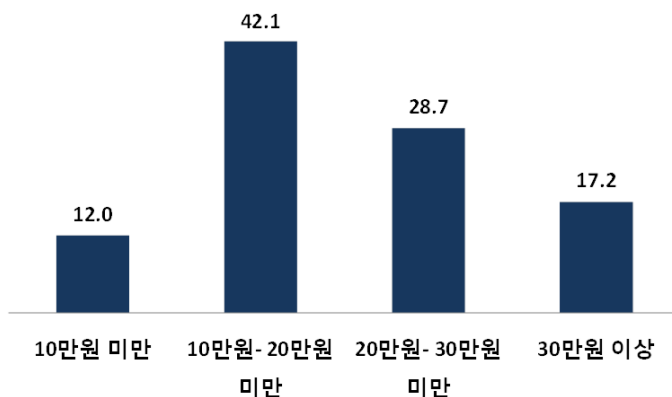
4)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의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42.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28.7%), ‘30만 원 이상’(17.2%), ‘10만 원 미만’(12.0%)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20대(48.0%)와 50대(46.0%), 60대 이상(48.7%), 은퇴자(46.8%),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48.4%, 고졸 47.5%),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저소득 51.9%)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IV-34〉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N=883 / 단위: %)



〈표 IV-47〉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단위: %)

특성별		사례 수	10만 원 미만	10만 원~ 20만 원 미만	20만 원~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전체		(883)	12.0	42.1	28.7	17.2
성별	남성	(436)	9.6	39.9	29.8	20.6
	여성	(447)	14.3	44.3	27.5	13.9
응답자 연령	20대	(125)	4.8	48.0	29.6	17.6
	30대	(141)	10.6	29.1	36.2	24.1
	40대	(192)	8.3	35.9	32.8	22.9
	50대	(187)	11.2	46.0	27.3	15.5
	60대 이상	(238)	20.2	48.7	21.4	9.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24)	6.7	38.8	30.4	24.1
	블루칼라	(181)	12.7	44.8	27.1	15.5
	자영업	(216)	13.4	38.9	26.4	21.3
	농/임/어업	(13)	7.7	84.6	7.7	0.0
	주부	(163)	13.5	42.3	31.9	12.3
	은퇴자	(47)	17.0	46.8	31.9	4.3
	무직/기타	(39)	20.5	46.2	28.2	5.1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3)	32.3	48.4	14.0	5.4
	고졸	(419)	11.7	47.5	27.9	12.9
	대재 이상	(369)	7.3	34.4	33.1	25.2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187)	24.6	51.9	16.0	7.5
	중소득	(301)	10.6	40.9	30.9	17.6
	고소득	(394)	7.1	38.3	33.0	21.6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3. 빅데이터 관련 보험 상품

가. 건강정보 제공을 전제로 제휴업체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보험 상품

1) 가입 의향

■ 건강정보 제공 및 제휴업체 혜택 하에서 건강보험 상품 가입 의향에 대해서는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75.2%로 가입 의향이 있다는 의견(24.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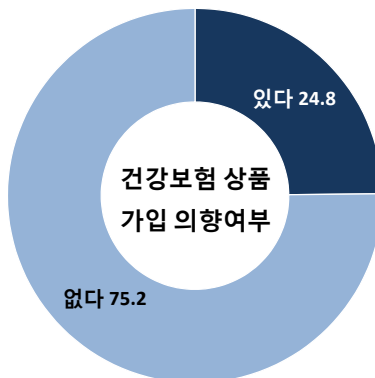
○ 건강정보 제공 및 제휴업체 혜택 하에서 건강보험 상품 가입 의향에 대해서는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50대(79.3%)와 60대 이상(78.0%), 블루칼라(8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8〉 건강정보 제공을 전제로 제휴업체 혜택이 주어지는 건강보험 상품 내용

※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개인의 건강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고객은 보험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의료, 건강, 쇼핑, 레저 분야의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IV-35〉 건강정보 제공 및 제휴업체 혜택 하에서 건강보험 상품 가입 의향

(N=1,200 / 단위: %)



〈표 IV-49〉 건강정보 제공 및 제휴업체 혜택 하에서 건강보험 상품 가입 의향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24.8	75.2
응답자 연령	20대	28.3	71.7
	30대	24.9	75.1
	40대	29.0	71.0
	50대	20.7	79.3
	60대 이상	22.0	78.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6.9	73.1
	블루칼라	20.0	80.0
	자영업	25.9	74.1
	농/임/어업	42.9	57.1
	주부	24.9	75.1
	은퇴자	25.0	75.0
	무직/기타	23.2	76.8
가구 소득	저소득	22.6	77.4
	중소득	27.6	72.4
	고소득	23.8	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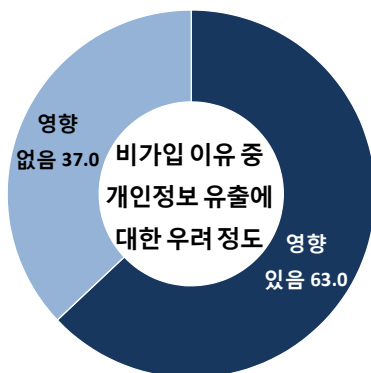
2)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3.0%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 37.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20대(71.8%), 화이트칼라(68.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36〉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N=902 / 단위: %)



〈표 IV-50〉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단위: %)

특성별		영향 있음	영향 없음
전체		63.0	37.0
응답자 연령	20대	71.8	28.2
	30대	65.7	34.3
	40대	57.0	43.0
	50대	63.5	36.5
	60대 이상	59.6	4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8.0	32.0
	블루칼라	60.2	39.8
	자영업	64.6	35.4
	농/임/어업	12.5	87.5
	주부	60.7	39.3
	은퇴자	59.5	40.5
	무직/기타	60.5	39.5

나.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1) 가입 의향

■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71.3%,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8.8%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75.3%), 60대 이상(75.8%)와 50대(75.2%), 블루칼라(76.7%),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져 중졸 이하(86.1%) 학력층, 월평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져 저소득층(7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1〉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상품 내용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게 되면 개인의 운전행태에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된다. 보험회사는 개인의 운전행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활용해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위험한 운전을 하는 고객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표 IV-52〉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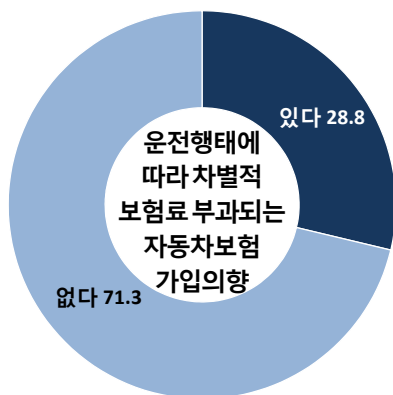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28.8	71.3
성별	남성	32.9	67.1
	여성	24.7	75.3
응답자 연령	20대	30.3	69.7
	30대	31.6	68.4
	40대	33.6	66.4
	50대	24.8	75.2
	60대 이상	24.2	75.8

〈표 IV-52〉의 계속

특성별		있다	없다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1.7	68.3
	블루칼라	23.3	76.7
	자영업	32.4	67.6
	농/임/어업	28.6	71.4
	주부	26.3	73.7
	은퇴자	26.8	73.2
	무직/기타	28.6	71.4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3.9	86.1
	고졸	28.8	71.2
	대재 이상	31.4	68.6
가구 소득	저소득	24.7	75.3
	중소득	29.0	71.0
	고소득	30.2	69.8

〈그림 IV-37〉 개인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 의향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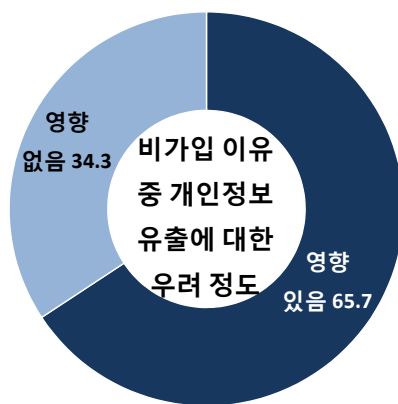
2)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 영향이 있다는 의견은 65.7%로 나타난 반면, 없다는 의견은 34.3%로 나타남.

-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 영향이 있다는 의견은 30대(72.7%)와 20대(71.0%), 화이트칼라(7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IV-38〉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N=855 / 단위: %)



〈표 IV-53〉 개인정보 유출이 보험상품 비가입에 미치는 정도

(단위: %)

특성별		영향 있음	영향 없음
전체		65.7	34.3
응답자 연령	20대	71.0	29.0
	30대	72.7	27.3
	40대	62.6	37.4
	50대	63.7	36.3
	60대 이상	61.4	38.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70.2	29.8
	블루칼라	65.4	34.6
	자영업	62.8	37.2
	농/임/어업	60.0	40.0
	주부	66.3	33.8
	은퇴자	61.0	39.0
	무직/기타	60.0	40.0

4.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가.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로 자가(70.3%), 전세(24.6%), 월세(5.1%) 순으로 나타남.
-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로 자가 의견은 군지역(92.7%), 60대 이상(89.0%)과 50대(83.5%), 40대(73.3%), 은퇴자(82.1%)와 자영업(77.7%),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져 고소득층(79.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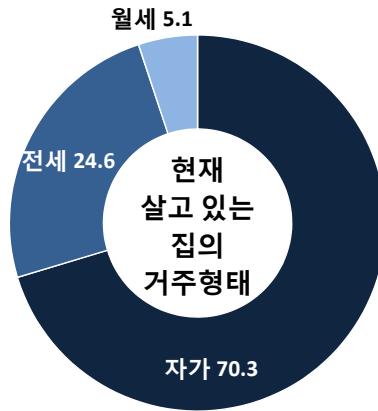
〈표 IV-54〉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단위: %)

특성별		자가	전세	월세
전체		70.3	24.6	5.1
지역규모	대도시	66.4	27.1	6.5
	중·소도시	70.4	25.6	4.0
	군지역	92.7	4.2	3.1
응답자 연령	20대	64.1	23.7	12.1
	30대	35.6	57.8	6.7
	40대	73.3	22.5	4.2
	50대	83.5	12.4	4.1
	60대 이상	89.0	10.6	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2.9	30.8	6.3
	블루칼라	65.3	27.8	6.9
	자영업	77.7	16.9	5.4
	농/임/어업	100.0	0.0	0.0
	주부	71.0	27.2	1.8
	은퇴자	82.1	17.9	0.0
	무직/기타	78.6	14.3	7.1
가구 소득	저소득	61.7	24.7	13.6
	중소득	63.4	32.5	4.0
	고소득	79.6	18.4	2.0

〈그림 IV-39〉 살고 있는 집의 거주 형태

(N=1,200 / 단위: %)



1) 살고 있는 집의 금액

- 살고 있는 집의 금액의 경우, 자가는 평균 26,578만 원, 전세 보증금은 평균 13,922만 원, 보증금 있는 월세는 평균 보증금 2,430만 원, 월세는 평균 30만 원, 보증금 없는 월세는 40만 원 정도로 나타남.

〈표 IV-55〉 살고 있는 집의 금액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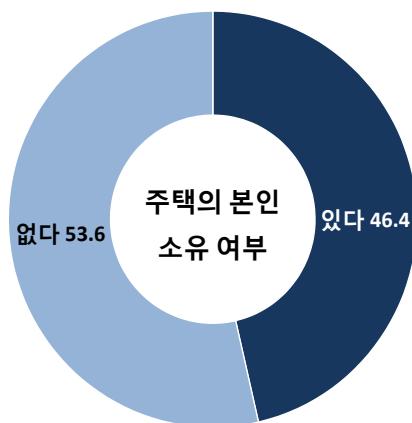
특성별	자가	전세 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전체	26,578.2	13,922.0	2,430.0	29.6	40.0

나.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이 53.6%, 있다는 응답이 46.4%로 나타남.
-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에 대해서 없다는 응답은 여성(61.3%),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20대(96.5%)와 30대(81.3%)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0〉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N=1,200 / 단위: %)



〈표 IV-56〉 주택의 본인 소유 여부

(단위: %)

특성별		있다	없다
전체		46.4	53.6
성별	남성	54.3	45.7
	여성	38.7	61.3
응답자 연령	20대	3.5	96.5
	30대	18.7	81.3
	40대	54.6	45.4
	50대	69.4	30.6
	60대 이상	72.2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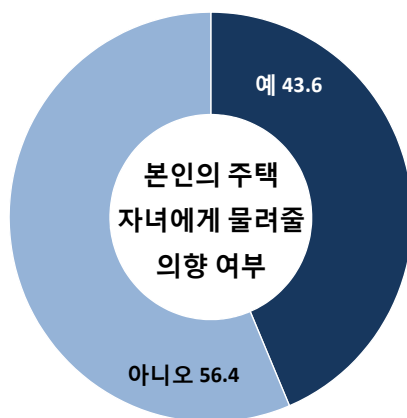
1)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56.4%로, 의향이 있다는 의견 43.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20대 (85.7%), 은퇴자(60.0%)와 블루칼라(5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1〉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N=557 / 단위: %)



〈표 IV-57〉 본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줄 의향

(단위: %)

특성별		예	아니오
전체		43.6	56.4
성별	남성	42.5	57.5
	여성	45.1	54.9
응답자 연령	20대	14.3	85.7
	30대	33.3	66.7
	40대	33.6	66.4
	50대	50.6	49.4
	60대 이상	48.2	51.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2.1	57.9
	블루칼라	40.2	59.8
	자영업	42.8	57.2
	농/임/어업	45.5	54.5
	주부	50.6	49.4
	은퇴자	40.0	60.0
	무직/기타	63.6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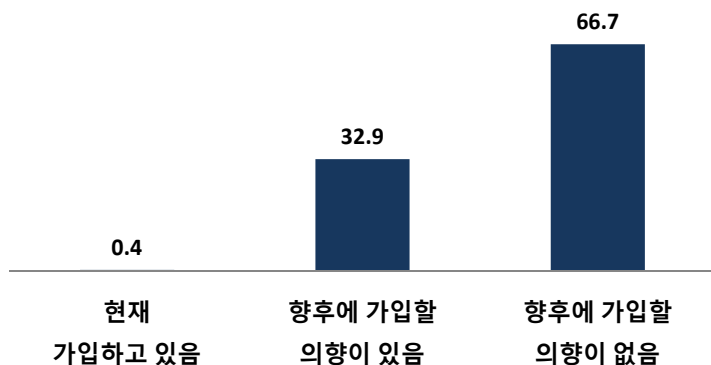
다.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

■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에 대해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32.9%, 현재 가입하고 있다는 0.4%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에 대해서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군 지역(71.9%), 60대 이상(74.0%), 자영업(70.9%)과 은퇴자(69.6%), 소득이 낮을수록 높아져 저소득층(7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2〉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

(N=1,200 / 단위: %)



〈표 IV-58〉 주택연금 가입 및 이용 의향

(단위: %)

특성별		현재 가입하고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전체		0.4	32.9	66.7
지역규모	대도시	0.2	31.5	68.4
	중·소도시	0.5	35.4	64.1
	군지역	1.0	27.1	71.9
성별	남성	0.5	34.2	65.3
	여성	0.3	31.6	68.0

〈표 IV-58〉의 계속

특성별		현재 가입하고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응답자 연령	20대	0.0	35.9	64.1
	30대	0.4	31.6	68.0
	40대	0.8	38.5	60.7
	50대	0.0	34.3	65.7
	60대 이상	0.7	25.3	74.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0.3	38.9	60.8
	블루칼라	1.2	31.0	67.8
	자영업	0.4	28.8	70.9
	농/임/어업	0.0	35.7	64.3
	주부	0.0	32.3	67.7
	은퇴자	0.0	30.4	69.6
	무직/기타	0.0	30.4	69.6
가구 소득	저소득	0.9	25.5	73.6
	중소득	0.2	33.0	66.7
	고소득	0.4	35.9	63.7

1)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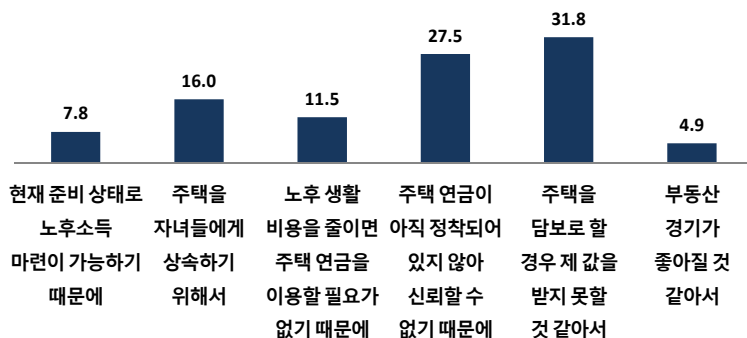
■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31.8%)와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27.5%)를 주로 꼽았음.

○ 그 외 이유로는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16.0%), 노후 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11.5%), 현재 준비 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7.8%),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택연금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의 의견은 40대(35.2%)와 30대(34.6%), 블루칼라(3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3〉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N=752 / 단위: %)



〈표 IV-59〉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특성별		현재 준비 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노후생활 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전체		7.8	16.0	11.5	27.5	31.8	4.9
응답자 연령	20대	8.7	5.5	11.8	35.4	33.9	3.1
	30대	10.5	3.9	14.4	29.4	34.6	5.9
	40대	8.2	11.3	13.2	25.8	35.2	5.7
	50대	5.0	24.5	12.6	24.5	28.9	4.4
	60대 이상	6.9	28.7	6.9	24.8	27.7	5.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9.4	8.4	10.3	31.5	32.5	6.4
	블루칼라	6.0	12.7	12.7	28.9	36.1	3.6
	자영업	11.2	20.3	11.7	27.4	25.4	3.0
	농/임/어업	0.0	44.4	0.0	33.3	22.2	0.0
	주부	4.8	21.1	12.2	21.8	33.3	6.8
	은퇴자	5.1	30.8	7.7	17.9	28.2	10.3
	무직/기타	5.1	7.7	15.4	30.8	41.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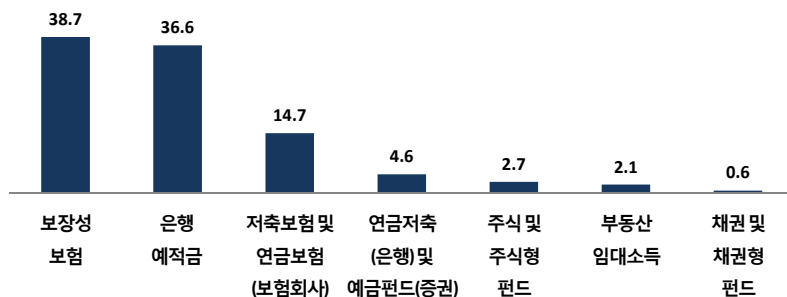
라.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

■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38.7%)과 은행 예·적금(36.6%)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14.7%), 연금저축 및 예금펀드(4.6%), 주식 및 주식형 펀드(2.7%), 부동산 임대소득(2.1%), 채권 및 채권형 펀드(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의 응답은 60대 이상(41.6%), 월평균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높아져 저소득층(4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4〉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

(N=1,176 / 단위: %)



〈표 IV-60〉 보유한 금융자산 보유율

(단위: %)

특성별		보장성 보험	은행 예·적금	저축 보험 및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및 예금 펀드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부동산 임대 소득	채권 및 채권형 펀드
전체		38.7	36.6	14.7	4.6	2.7	2.1	0.6
응답자 연령	20대	39.7	38.8	12.8	4.1	3.5	0.6	0.4
	30대	37.7	36.0	16.9	4.3	3.8	0.5	0.9
	40대	37.0	35.1	17.3	6.4	3.3	0.3	0.3
	50대	37.6	35.1	17.5	4.3	2.1	2.2	0.8
	60대 이상	41.6	38.4	8.7	3.3	0.9	6.3	0.5

〈표 IV-60〉의 계속

특성별		보장성 보험	은행 예·적금	저축 보험 및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및 예금 펀드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부동산 임대 소득	채권 및 채권형 펀드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6.4	35.5	16.9	5.7	4.2	0.8	0.6
	블루칼라	40.5	39.0	12.5	3.9	2.4	1.2	0.3
	자영업	38.8	36.0	14.2	4.7	2.3	3.3	0.3
	농/임/어업	42.4	42.4	15.2	0.0	0.0	0.0	0.0
	주부	38.7	36.1	16.7	4.6	1.3	1.7	0.7
	은퇴자	41.2	34.4	9.2	2.3	2.3	9.2	1.5
	무직/기타	41.7	39.4	10.2	1.6	2.4	3.1	1.6
가구 소득	저소득	44.8	41.1	7.3	2.4	1.0	2.8	0.4
	중소득	39.0	36.6	14.6	4.7	2.5	1.8	0.5
	고소득	36.3	35.0	17.4	5.2	3.4	2.0	0.7

1) 보유한 금융자산별 보유율

■ 은행 예·적금과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유율이 90% 이상으로 나온 가운데, 나머지 금융자산은 보유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IV-61〉 보유한 금융자산별 보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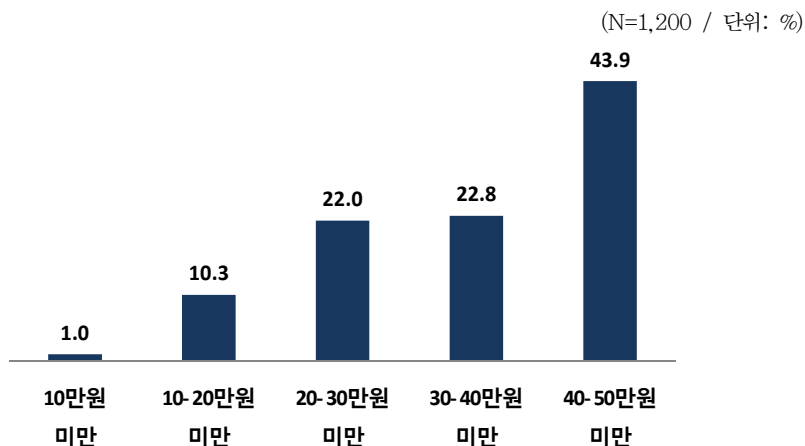
구분	보유	미보유
은행 예·적금	92.2	7.8
연금저축(은행) 및 예금펀드(증권)	11.5	88.5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보험회사)	37.2	62.8
보장성 보험	97.4	2.6
채권 및 채권형 펀드	1.4	98.6
주식 및 주식형 펀드	6.8	93.3
부동산 임대소득	5.2	94.8

마)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

■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에 대해 40~50만 원 미만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40만 원 미만(22.8%), 20~30만 원 미만(22.0%), 10~20만 원 미만(10.3%), 10만 원 미만(1.0%) 순으로 나타남.

○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에 대해 40~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40대(53.8%)와 50대(50.0%), 화이트칼라(59.0%),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져 고소득층(6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5〉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



〈표 IV-62〉 보유한 금융자산 납입금액

(단위: %)

특성별		10만 원 미만	10~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40만 원 미만	40~50만 원 미만
전체		1.0	10.3	22.0	22.8	43.9
응답자 연령	20대	0.5	9.1	28.3	18.7	43.4
	30대	0.9	5.3	22.2	27.1	44.4
	40대	1.1	4.2	14.1	26.7	53.8
	50대	1.2	6.6	18.2	24.0	50.0
	60대 이상	1.1	24.5	28.2	17.2	28.9

〈표 IV-62〉의 계속

특성별		10만 원 미만	10~20만 원 미만	20~30만 원 미만	30~40만 원 미만	40~50만 원 미만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0.0	3.0	15.9	22.2	59.0
	블루칼라	2.9	12.2	25.7	24.9	34.3
	자영업	0.7	9.7	23.4	21.6	44.6
	농/임/어업	0.0	21.4	7.1	28.6	42.9
	주부	0.5	12.0	22.1	24.4	41.0
	은퇴자	3.6	23.2	28.6	21.4	23.2
	무직/기타	0.0	26.8	32.1	16.1	25.0
가구 소득	저소득	3.8	31.5	39.1	13.6	11.9
	중소득	0.5	8.6	25.4	30.4	35.2
	고소득	0.2	2.6	12.0	20.6	64.6

1) 보유한 금융자산별 납입금액

- 대부분 금융자산 납입금액이 10~40만 원과 40~70만 원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높았음.

〈표 IV-63〉 보유한 금융자산별 납입금액

(단위: %)

구분	10만 원 미만	10~40만 원 미만	40~70만 원 미만	7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은행 예·적금	0.6	48.4	28.9	7.2	14.8
연금저축(은행) 및 예금펀드(증권)	1.4	18.8	42.8	19.6	17.4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 (보험회사)	3.4	13.7	35.7	19.3	11.7
보장성 보험	6.0	16.5	18.2	18.6	13.9
채권 및 채권형 펀드	17.6	17.6	35.3	5.9	23.5
주식 및 주식형 펀드	17.3	30.9	18.5	3.7	29.6
부동산 임대소득	1.6	11.3	30.6	21.0	35.5

5. 노후소득(은퇴, 노후생활) 등의 준비

가. 현재 소득 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현재 월 소득의 70~90% 미만이라는 응답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현재 월 소득의 50~70% 미만(37.5%), 현재 월 소득의 50% 미만(15.6%), 현재 월 소득의 90% 이상(4.7%)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에 대해 현재 월 소득의 70~90% 미만이라는 응답은 30대(47.6%), 블루칼라(4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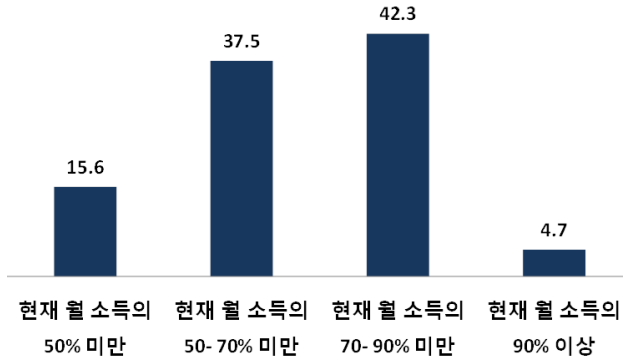
〈표 IV-64〉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단위: %)

특성별		현재 월 소득의 50% 미만	현재 월 소득의 50~70% 미만	현재 월 소득의 70~90% 미만	현재 월 소득의 90% 이상	평균
전체		15.6	37.5	42.3	4.7	61.1
응답자 연령	20대	14.6	33.3	42.4	9.6	63.1
	30대	15.6	35.1	47.6	1.8	60.7
	40대	17.9	37.0	42.4	2.7	60.7
	50대	14.9	43.0	40.5	1.7	59.8
	60대 이상	14.7	38.1	39.2	8.1	61.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7.1	39.2	40.1	3.6	60.3
	블루칼라	14.7	34.3	46.9	4.1	61.8
	자영업	16.9	35.3	44.6	3.2	60.9
	농/임/어업	7.1	28.6	64.3	0.0	68.2
	주부	13.8	42.9	37.8	5.5	60.5
	은퇴자	14.3	37.5	39.3	8.9	60.8
	무직/기타	14.3	33.9	37.5	14.3	63.9

〈그림 IV-46〉 현재 소득수준 대비 노후소득 수준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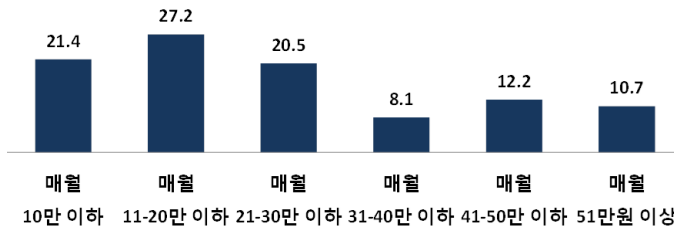
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에 대해 매월 11~20만 원 이하의 응답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매월 10만 원 이하(21.4%), 매월 21~30만 원 이하(20.5%), 매월 41~50만 원 이하(12.2%), 매월 51만 원 이상(10.7%), 매월 31~40만 원 이하(8.1%)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에 대해 매월 11~20만 원 이하의 응답은 30대(36.0%), 블루칼라(31.8%)와 은퇴자(3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7〉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N=1,200 / 단위: %)



〈표 IV-65〉 노후소득 준비를 위한 현재 저축액 규모

(단위: %, 만 원)

특성별		매월 10만 원 이하	매월 11~20 만 원 이하	매월 21~30 만 원 이하	매월 31~40 만 원 이하	매월 41~50 만 원 이하	매월 51만 원 이상	평균
전체		21.4	27.2	20.5	8.1	12.2	10.7	31.9
응답자 연령	20대	44.9	20.2	12.6	2.5	9.6	10.1	25.6
	30대	18.7	36.0	18.7	8.0	8.4	10.2	29.8
	40대	12.2	25.2	27.1	9.9	14.5	11.1	35.0
	50대	11.2	26.4	21.9	10.7	15.3	14.5	37.1
	60대 이상	24.5	27.5	20.1	8.1	12.1	7.7	30.4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7.7	26.9	20.1	6.6	14.1	14.7	34.6
	블루칼라	26.1	31.8	18.4	9.8	9.0	4.9	26.9
	자영업	15.8	24.5	23.4	9.7	14.7	11.9	35.4
	농/임/어업	50.0	28.6	7.1	0.0	7.1	7.1	22.9
	주부	13.4	29.5	25.3	8.8	11.5	11.5	33.6
	은퇴자	26.8	30.4	16.1	7.1	10.7	8.9	28.8
	무직/기타	69.6	8.9	7.1	1.8	7.1	5.4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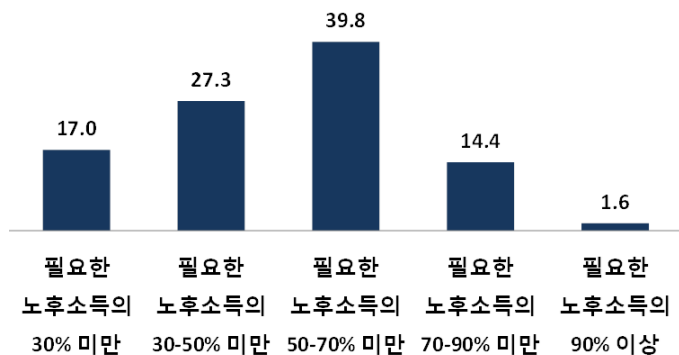
다.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

■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에 대해 필요한 노후소득의 50~70% 미만 (39.8%), 30~50% 미만(27.3%), 30% 미만(17.0%), 70~90% 미만(14.4%), 90% 이상(1.6%)의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에 대해 필요한 노후소득의 50~70% 미만의 응답은 50대(43.4%), 주부(47.0%),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층 (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48〉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

(N=1,200 / 단위: %)



〈표 IV-66〉 현재 노후준비 대비 노후소득 마련 정도

(단위: %)

특성별		필요한 노후소득의 30% 미만	필요한 노후소득의 30~50% 미만	필요한 노후소득의 50~70% 미만	필요한 노후소득의 70~90% 미만	필요한 노후소득의 90% 이상	평균
전체		17.0	27.3	39.8	14.4	1.6	45.5
응답자 연령	20대	19.2	26.3	39.9	14.1	0.5	44.1
	30대	16.9	27.6	40.4	15.1	0.0	44.7
	40대	17.9	27.5	37.4	15.6	1.5	45.7
	50대	15.3	26.4	43.4	13.2	1.7	46.0
	60대 이상	16.1	28.2	38.1	13.9	3.7	46.6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5.0	27.8	39.5	17.1	0.6	46.5
	블루칼라	17.1	30.6	37.1	14.3	0.8	44.4
	자영업	18.0	26.6	36.3	16.2	2.9	46.2
	농/임/어업	57.1	28.6	14.3	0.0	0.0	24.6
	주부	12.9	27.2	47.0	10.1	2.8	46.6
	은퇴자	21.4	26.8	37.5	12.5	1.8	44.5
	무직/기타	25.0	12.5	50.0	12.5	0.0	43.4
가구 소득	저소득	22.6	28.5	32.8	12.8	3.4	43.0
	중소득	19.7	30.9	35.9	12.6	1.0	42.9
	고소득	12.3	23.9	45.9	16.6	1.3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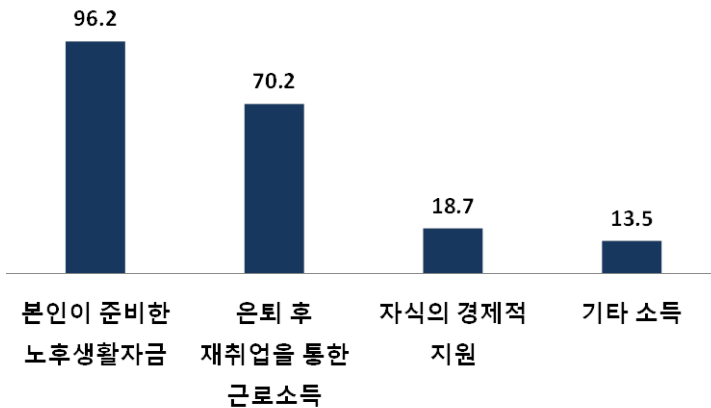
라.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 필요 정도

1)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에 대해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이 9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70.2%), 자식의 경제적 지원(18.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49〉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단위: %)



주: 1)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2) 재취업에는 창업이 포함됨.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지역규모

-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은 대도시(72.5%)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과 자식의 경제적 지원은 군지역(각 97.9%, 22.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67〉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지역규모

(단위: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95.3	96.7	97.9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72.5	67.9	69.8
자식의 경제적 지원	17.2	19.4	22.9
기타 소득	15.7	12.3	7.3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성별

- 여성의 경우,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 자금(96.5%)과 자식의 경제적 지원(21.4%)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75.5%)이 높게 나타남.

〈표 IV-68〉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성별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95.8	96.5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75.5	64.9
자식의 경제적 지원	15.9	21.4
기타 소득	13.5	13.5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연령별

-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경우, 30대(7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의 경우, 40대(9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60대 이상(33.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69〉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연령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93.4	96.4	97.3	96.7	96.3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73.7	75.6	71.4	75.2	57.5
자식의 경제적 지원	9.1	9.8	14.5	23.1	33.0
기타 소득	9.6	11.6	13.4	14.0	17.6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직업별

-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의 경우, 화이트칼라(97.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경우, 블루칼라(7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은퇴자(2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0〉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직업별

(단위: %)

구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자영업	농/임/ 어업	주부	은퇴자	무직/ 기타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97.0	95.9	95.0	100.0	96.8	96.4	94.6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72.2	77.1	69.8	57.1	65.0	58.9	64.3
자식의 경제적 지원	14.1	13.9	19.1	57.1	24.9	26.8	23.2
기타 소득	12.9	11.0	15.8	0.0	12.9	12.5	23.2

주: 농/임/어업의 경우 사례 수가 작아 해석에 유의.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학력별

-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높아져 대재 이상(96.5%)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경우, 고졸(7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져 중졸 이하(38.6%)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1〉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학력별

(단위: %)

구분	중졸 이하	고졸	대재 이상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93.1	96.4	96.5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48.5	73.4	71.0
자식의 경제적 지원	38.6	20.1	13.5
기타 소득	19.8	12.6	13.1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가구 소득별

-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 고소득층(9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경우, 중소득(7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저소득(28.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2〉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필요 정도: 가구 소득별

(단위: %)

구분	저소득	중소득	고소득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94.5	96.2	96.9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63.4	73.6	70.3
자식의 경제적 지원	28.5	14.7	17.5
기타 소득	14.0	13.8	13.1

2)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월별 예상금액

■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월별 예상금액으로 150만 원 이상의 응답은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50만 원 미만(20.8%), 20~100만 원 미만(11.3%), 50만 원 미만(6.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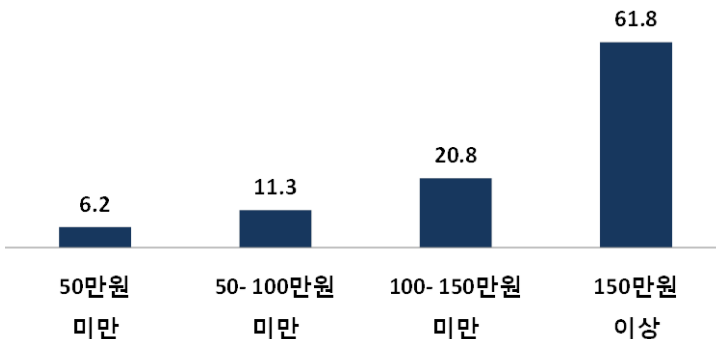
○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의 경우, 20~100만 원 미만(3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의 경우, 100~150만 원 미만(4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식의 경제적 지원의 경우, 50만 원 미만(3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0〉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월별 예상금액

(단위: %)



〈표 IV-73〉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원별 월별 예상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150만 원 미만	150만 원 이상	평균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19.6	34.2	27.5	18.7	92.7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3.8	30.6	47.3	18.3	100.4
자식의 경제적 지원	39.3	28.6	26.3	5.8	34.2
기타 소득	31.5	35.2	20.4	13.0	74.6

마.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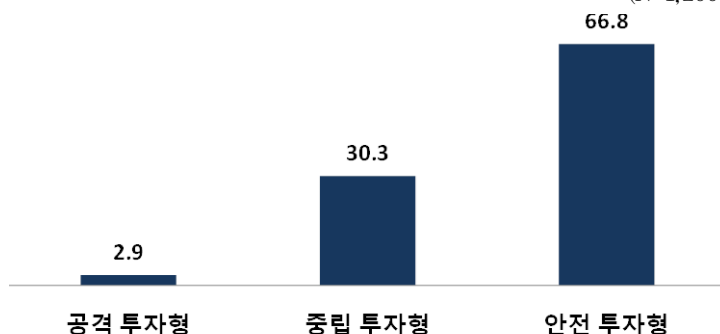
■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에 대해 안전 투자형이라는 의견은 6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립 투자형(30.3%), 공격 투자형(2.9%)의 순으로 나타남.

○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에 대해 안전 투자형이라는 응답은 여성(72.5%)이 남성(61.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그리고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에 대해 안전 투자형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82.4%)과 50대(71.9%) 연령층에서 비교적 높았고, 중졸 이하(89.1%)와 고졸(70.4%)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1〉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N=1,200 / 단위: %)



〈표 IV-74〉 자신의 평소 금융성향

(단위: %)

특성별		공격 투자형	중립 투자형	안전 투자형
전체		2.9	30.3	66.8
응답자 성별	남성	4.0	34.9	61.0
	여성	1.8	25.7	72.5
응답자 연령	20대	3.5	43.4	53.0
	30대	4.0	42.2	53.8
	40대	3.8	28.6	67.6
	50대	2.5	25.6	71.9
	60대 이상	1.1	16.5	82.4

〈표 IV-7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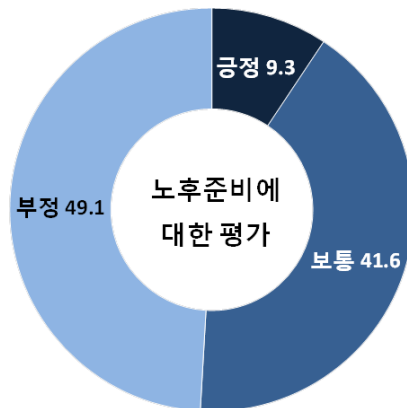
특성별		공격 투자형	중립 투자형	안전 투자형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2	37.1	58.7
	블루칼라	2.9	31.0	66.1
	자영업	2.2	26.3	71.6
	농/임/어업	0.0	35.7	64.3
	주부	2.8	26.7	70.5
	은퇴자	0.0	19.6	80.4
	무직/기타	3.6	28.6	67.9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	9.9	89.1
	고졸	2.6	27.0	70.4
	대재 이상	3.6	37.2	59.1

바.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49.1%, 보통 41.6%, 긍정 9.3%로 나타남.
-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으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은 20대(66.7%)와 30대(52.0%), 블루칼라(55.5%),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져 중졸 이하(53.5%)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2〉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N=1,200 / 단위: %)



〈표 IV-75〉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단위: %)

특성별		긍정	보통	부정
전체		9.3	41.6	49.1
응답자 연령	20대	5.6	27.8	66.7
	30대	8.0	40.0	52.0
	40대	11.1	43.1	45.8
	50대	9.5	47.9	42.6
	60대 이상	11.4	45.8	42.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1.1	39.5	49.4
	블루칼라	7.3	37.1	55.5
	자영업	10.1	51.1	38.8
	농/임/어업	7.1	28.6	64.3
	주부	7.4	45.2	47.5
	은퇴자	16.1	33.9	50.0
	무직/기타	5.4	23.2	71.4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9.9	36.6	53.5
	고졸	9.1	41.8	49.1
	대재 이상	9.1	42.3	48.5

1) 노후준비 부족 원인

■ 노후준비 부족 원인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41.3%)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19.0%),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나 정보 부족(11.2%),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10.5%), 국민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서(7.8%),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5.3%), 투자 실패나 사업 실패(2.5%), 자동차/가구 등의 내구재 구입(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이라는 응답은 40대(58.3%)와 50대(51.5%), 30대(45.3%), 주부(5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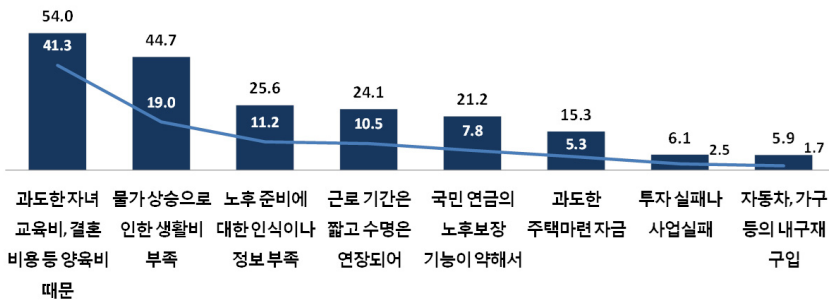
〈표 IV-76〉 노후준비 부족 원인(1순위)

(단위: %)

특성별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	근로 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	국민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서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
전체		41.3	19.0	11.2	10.5	7.8	5.3
응답자 연령	20대	22.7	21.2	22.0	16.7	7.6	6.1
	30대	45.3	16.2	10.3	4.3	5.1	12.8
	40대	58.3	14.2	8.3	5.8	6.7	2.5
	50대	51.5	12.6	2.9	12.6	8.7	3.9
	60대 이상	31.6	29.9	10.3	12.8	11.1	0.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0.6	17.0	12.1	11.5	6.1	7.3
	블루칼라	36.0	19.9	16.9	9.6	10.3	3.7
	자영업	38.9	20.4	8.3	12.0	6.5	5.6
	농/임/어업	22.2	33.3	22.2	0.0	11.1	11.1
	주부	56.3	12.6	3.9	7.8	10.7	5.8
	은퇴자	35.7	28.6	3.6	17.9	7.1	0.0
	무직/기타	37.5	27.5	17.5	10.0	2.5	2.5

〈그림 IV-53〉 노후준비 부족 원인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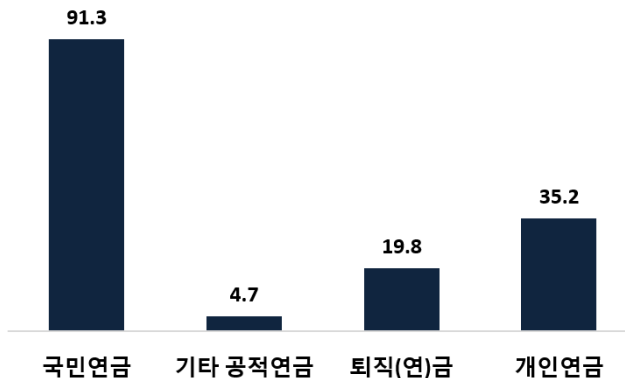
6. 연금제도

가. 연금 가입 실태

- 연금제도별 가구 가입률은 국민연금(91.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포함)(35.2%), 퇴직연금(19.8%), 기타 공적연금(4.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54〉 연금제도별 가입률

(N=1,200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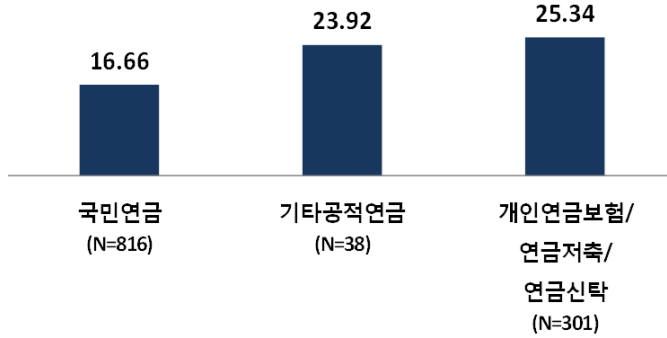


주: 본 조사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의 가입률을 계산하였으므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실제 가입률(가입대상자 중 가입자 비율)과 차이가 있음. 본 조사에서 가입률은 연금상품 가입률의 상대적 값만 의미가 있음.

- 노후생활 보장 연금 납입 보험료(응답자 기준)는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신탁(25만 3천 원), 기타 공적연금(23만 9천 원), 국민연금(16만 7천 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5〉 연금제도별 평균 납입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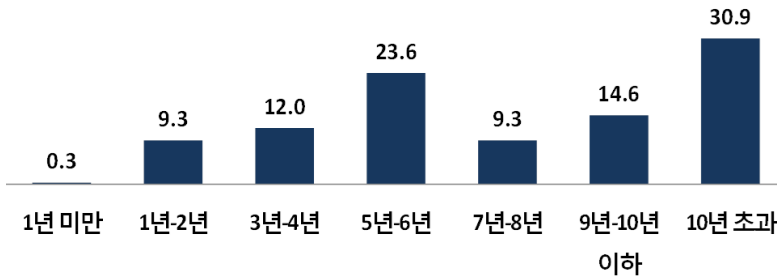
(단위: 평균-만 원)



- 개인연금 가입기간(응답자 기준)은 10년 초과(30.9%), 5년~6년(23.6%), 9년~10년(14.6), 3년~4년(12.0%), 7년~8년(9.3%), 1년~2년(9.3%), 1년 미만(0.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6〉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가입기간

(N=301 / 단위: %)



나. 연금제도별 가입 금융 기관

- 퇴직(연)금 가입 금융 기관(응답자 기준)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 금융 기관은 은행(35.3%)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보험회사(9.3%), 증권사(6.1%), 손해보험회사(2.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개인연금 가입 금융 기관은 생명보험회사(66.1%)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17.9%), 손해보험회사(9.6%), 증권사(3.3%), 기타(2.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77〉 사적연금 가입 금융 기관

(단위: %)

연금제도	은행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기타	모름	계
퇴직(연)금(n=148)	35.3	9.3	2.7	6.1	4.0	41.9	100.0
개인연금(n=301)	17.9	66.1	9.6	3.3	2.7	0.3	100.0

주: 퇴직(연)금에서 모름 41.9%의 대부분은 퇴직금 가입자로 추정됨.

다. 연금제도 만족도

1) 총괄

- 응답자의 공·사연금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기타 공적연금(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의 만족도(점수)가 4.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민연금의 만족도 점수는 퇴직(연)금과(3.69)와 개인연금(3.69)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3.53)를 기록함.

〈표 IV-78〉 연금제도 만족도

(단위: 평균-점,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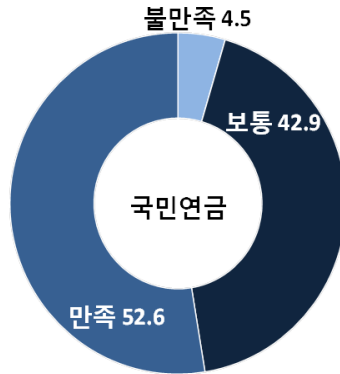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3.53	4.05	3.69	3.69

2) 국민연금 만족도

-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52.6%이고,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남.

〈그림 IV-57〉 국민연금 만족 수준

(n=816 / 단위: %)



■ 국민연금의 불만족은 상대적으로 40대, 은퇴자, 대재 이상 학력,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장기(40대), 연금수령액 수준이 노후생활에 대비하는데 부족(은퇴자), 보험료 납입액이 상대적으로 높음(대재), 보험료 납입의 부담(저소득 계층)의 계층별 상이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79〉 국민연금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4.5	42.9	52.6
응답자 연령	20대	4.4	41.9	53.7
	30대	5.5	44.5	50.0
	40대	5.7	47.4	46.9
	50대	4.1	45.9	50.0
	60대 이상	2.6	32.9	64.5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9	38.5	56.6
	블루칼라	4.2	51.4	44.4
	자영업	4.8	46.3	48.9
	농/임/어업	-	-	100.0
	주부	2.5	35.0	62.5
	은퇴자	6.1	24.2	69.7
	무직/기타	0.0	25.0	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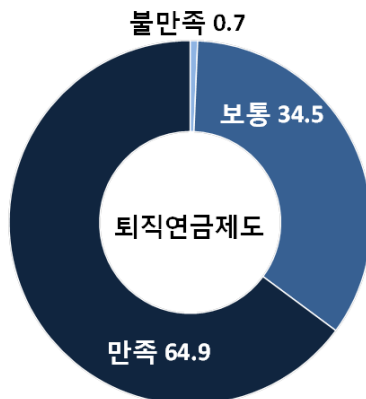
〈표 IV-79〉의 계속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4	22.2	73.3
	고졸	3.3	45.3	51.4
	대재 이상	5.7	42.8	51.6
가구 소득	저소득	5.8	35.1	59.1
	중소득	4.8	43.6	51.6
	고소득	3.9	45.4	50.8

- 퇴직(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4.9%이고,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0.7%로 나타남.

〈그림 IV-58〉 퇴직연금제도 만족 수준

(n=148 / 단위: %)



- 퇴직(연)금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은퇴자와 화이트칼라, 대재 이상 학력, 저소득 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화이트칼라와 대재 이상 학력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은 퇴직(연)금의 적립 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IV-80〉 퇴직연금제도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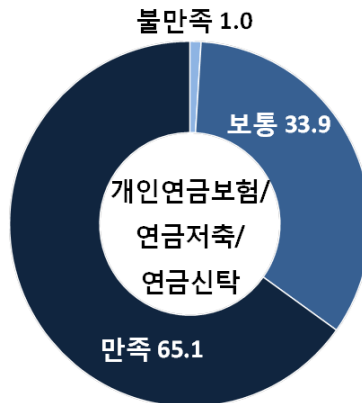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0.7	35.3	64.0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0.0	31.0	69.0
	블루칼라	0.0	50.0	50.0
	은퇴자	14.3	14.3	71.4
응답자 교육 수준	고졸	0.0	44.4	55.6
	대재 이상	0.9	32.5	66.7

■ 개인연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65.1%이고, 반면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만족도는 주부와 중소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59〉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n=301 / 단위: %)



〈표 IV-81〉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금신탁 만족 수준: 응답자 특성

(단위: %)

특성		불만족	보통	만족
전체		1.0	33.9	65.1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7	30.4	67.8
	블루칼라	0.0	49.1	50.9
	자영업	1.3	29.1	69.6
	주부	0.0	27.0	73.0
	은퇴자	0.0	44.4	55.6
	무직/기타	0.0	100.0	0.0
가구 소득	저소득	0.0	42.4	57.6
	중소득	0.0	32.7	67.3
	고소득	1.8	32.9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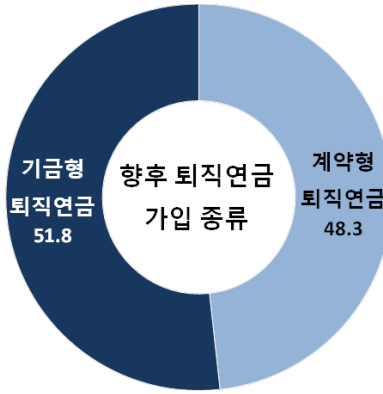
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수요

1) 기금형 퇴직연금 선호도

- 2014년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추진에 따라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에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함.
-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어떠한 종류에 가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51.8%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응답자의 48.3%가 계약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60〉 향후 퇴직연금 가입 종류

(N=1,200 / 단위: %)



-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응답은 30대(54.2%), 화이트칼라(5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계약형 퇴직연금에 대한 응답은 50대 이상(54.1%), 블루칼라(4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2〉 향후 퇴직연금 가입 종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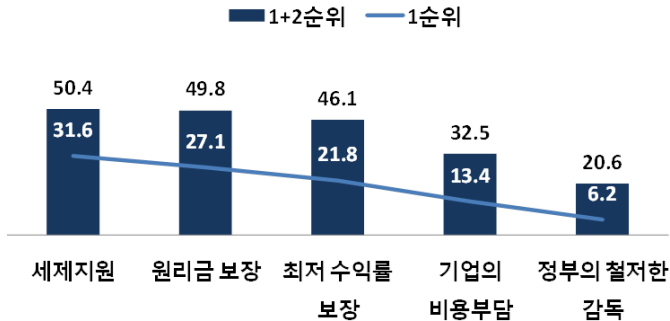
특성별		계약형 퇴직연금	기금형 퇴직연금
전체		48.3	51.8
응답자 연령	20대	48.0	52.0
	30대	45.8	54.2
	40대	46.2	53.8
	50대	54.1	45.9
	60대 이상	47.3	52.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47.9	52.1
	블루칼라	49.8	50.2

2) 기금형 퇴직연금 필요 정책

-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제지원(31.6%: 1순위 응답률 이하 동일)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61〉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N=1,200 / 단위: %)



- 다음으로 원리금 보장(27.1%), 최저 수익률 보장(21.8%), 기업의 비용부담 (13.4%), 정부의 철저한 감독(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83〉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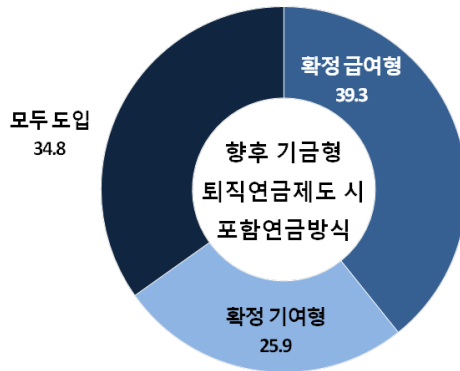
특성별		세제지원	원리금 보장	최저 수익률 보장	기업의 비용부담	정부의 철저한 감독
전체		31.6	27.1	21.8	13.4	6.2
응답자 연령	20대	26.8	24.7	23.2	17.2	8.1
	30대	33.3	27.6	23.1	11.1	4.9
	40대	30.5	27.5	25.6	12.2	4.2
	50대	32.2	26.9	19.0	15.7	6.2
	60대 이상	34.1	28.2	18.3	11.7	7.7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1.4	24.3	21.0	16.2	7.2
	블루칼라	33.9	26.5	21.6	12.7	5.3

3) 기금형 퇴직연금의 적용 연금 종류

-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어떠한 퇴직연금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확정급여형(39.3%)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확정급여 ·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34.8%), 확정기여형(25.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2〉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포함해야 할 연금방식

(N=1,200 / 단위: %)



-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확정급여형’이라는 응답은 블루칼라(4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84〉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포함해야 할 연금방식

(단위: %)

특성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
전체		39.3	25.9	34.8
응답자 연령	20대	40.4	24.7	34.8
	30대	40.9	28.9	30.2
	40대	36.6	27.1	36.3
	50대	40.5	26.0	33.5
	60대 이상	38.5	23.1	38.5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36.5	28.7	34.7
	블루칼라	44.5	23.3	32.2

7. 노후소득의 자산관리

가.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

■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31.9%), 구체적인 계획만 있음(21.3%)의 순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으로는 20대(69.7%), 블루칼라(5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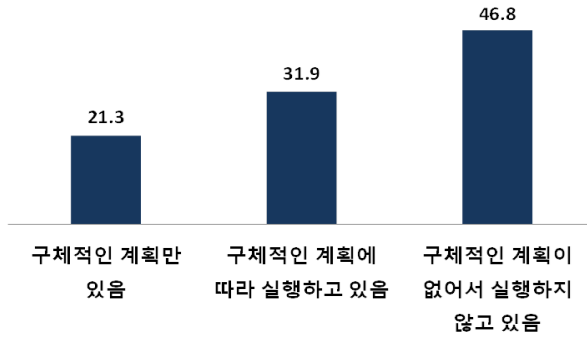
〈표 IV-85〉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

(단위: %)

특성별		구체적인 계획만 있음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있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실행하지 않고 있음
전체		21.3	31.9	46.8
응답자 성별	남성	20.4	31.4	48.2
	여성	22.2	32.5	45.3
응답자 연령	20대	13.6	16.7	69.7
	30대	21.8	30.7	47.6
	40대	27.1	34.7	38.2
	50대	26.4	34.3	39.3
	60대 이상	16.5	39.2	44.3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25.4	31.4	43.1
	블루칼라	20.4	24.9	54.7
	자영업	21.9	37.4	40.6
	농/임/어업	28.6	42.9	28.6
	주부	20.3	34.6	45.2
	은퇴자	12.5	44.6	42.9
	무직/기타	8.9	12.5	78.6

〈그림 IV-63〉 노후소득 목표액 달성계획 실행 여부

(N=1,200 / 단위: %)



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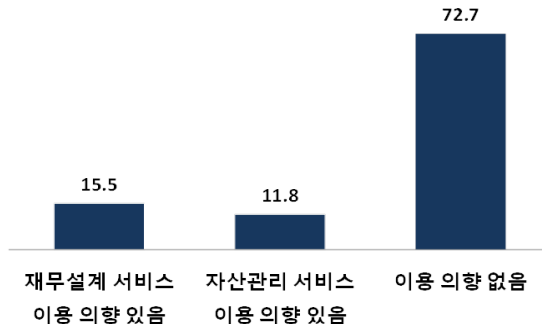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5.5%,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이 11.8%로 나타났고, 이용 의향 없음이 72.7%로 나타남.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은 20대와 30대(약 19%), 화이트칼라(19.8%)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한 응답으로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60대 이상(83.9%), 블루칼라(76.3%)와 자영업(7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64〉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N=1,200 / 단위: %)



〈표 IV-86〉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특성별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 있음	이용 의향 없음
전체		15.5	11.8	72.7
응답자 성별	남성	14.3	11.8	73.9
	여성	16.6	11.9	71.5
응답자 연령	20대	19.2	10.1	70.7
	30대	19.6	16.0	64.4
	40대	18.7	12.2	69.1
	50대	13.6	13.2	73.1
	60대 이상	8.1	8.1	83.9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9.8	12.6	67.7
	블루칼라	13.1	10.6	76.3
	자영업	10.4	13.3	76.3
	농/임/어업	35.7	0.0	64.3
	주부	18.4	14.7	66.8
	은퇴자	7.1	5.4	87.5
	무직/기타	17.9	3.6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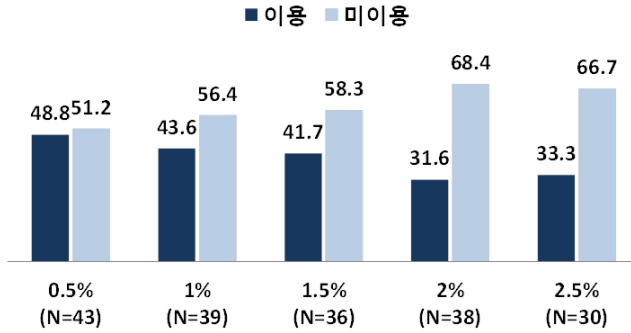
1)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

■ 재무설계 서비스 이용 용의가 있는 응답자의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

-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에서는 수수료 수준 0.5%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3.6%), 1.5%(41.7%), 2%(31.6%), 2.5%(3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5〉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단위: %)



〈표 IV-87〉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단위: %)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미이용
0.5%	48.8	51.2
1.0%	43.6	56.4
1.5%	41.7	58.3
2.0%	31.6	68.4
2.5%	33.3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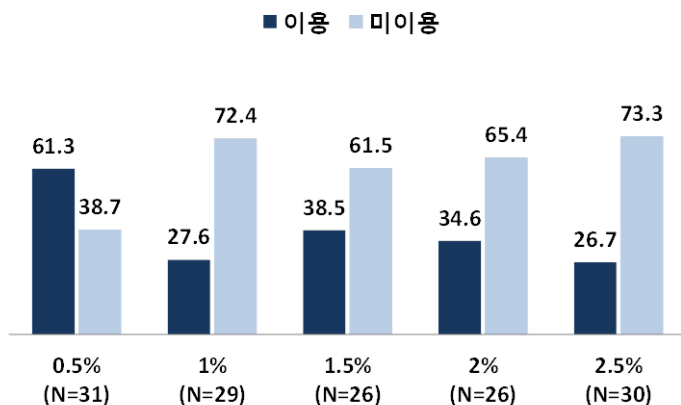
2)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용의가 있는 응답자의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에서는 수수료 0.5% 수준에서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38.5%), 2%(34.6%), 1%(27.6%), 2.5%(26.7%)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6〉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여부

(단위: %)



〈표 IV-88〉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단위: %)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미이용
0.5%	61.3	38.7
1.0%	27.6	72.4
1.5%	38.5	61.5
2.0%	34.6	65.4
2.5%	26.7	73.3

3)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은행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험회사(27.9%), 증권회사(20.9%) 순으로 나타남.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의견으로 은행이라는 응답은 여성(57.1%), 50대(60.0%)와 20대(59.3%), 화이트칼라(60.8%), 중졸 이하(66.7%)와 대졸 이상(5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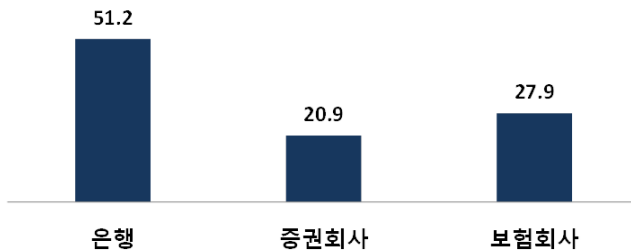
〈표 IV-89〉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단위: %)

특성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전체		51.2	20.9	27.9
지역규모	대도시	63.0	16.7	20.4
	중·소도시	37.3	26.9	35.8
	군지역	87.5	0.0	12.5
응답자 성별	남성	45.5	25.8	28.8
	여성	57.1	15.9	27.0
응답자 연령	20대	59.3	29.6	11.1
	30대	45.5	21.2	33.3
	40대	42.3	19.2	38.5
	50대	60.0	13.3	26.7
	60대 이상	46.2	23.1	30.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60.8	23.5	15.7
	블루칼라	33.3	40.0	26.7
	자영업	42.3	11.5	46.2
	농/임/어업	50.0	0.0	50.0
	주부	44.4	22.2	33.3
	은퇴자	0.0	0.0	100.0
	무직/기타	100.0	0.0	0.0
응답자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6.7	0.0	33.3
	고졸	43.9	22.0	34.1
	대재 이상	54.4	21.5	24.1

〈그림 IV-67〉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N=129 / 단위: %)



4)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응답은 은행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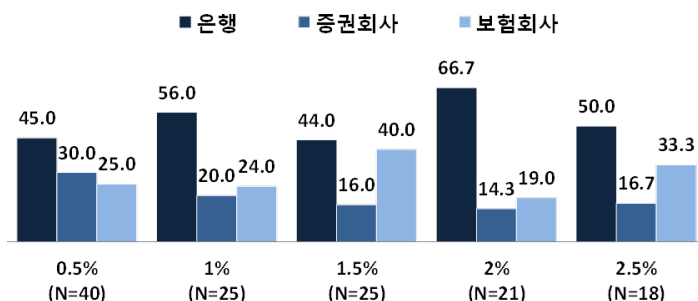
○ 은행의 경우, 2.0%(66.7%), 1.0%(56.0%), 2.5%(50.0%), 0.5%(45.0%), 1.5%(44.0%)의 순으로 나타남.

○ 증권회사의 경우, 0.5%(30.0%), 1.0%(20.0%), 2.5%(16.7%), 1.5%(16.0%), 2.0%(14.3%)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의 경우, 1.5%(40.0%), 2.5%(33.3%), 0.5%(25.0%), 1.0%(24.0%), 2.0%(19.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68〉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N=129 / 단위: %)



〈표 IV-90〉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단위: %)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0.5%	45.0	30.0	25.0
1.0%	56.0	20.0	24.0
1.5%	44.0	16.0	40.0
2.0%	66.7	14.3	19.0
2.5%	50.0	1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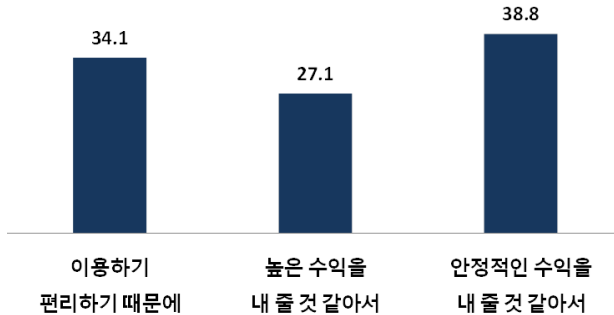
5)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38.8%)와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34.1%)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높은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27.1%) 등으로 나타남.

〈그림 IV-69〉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N=12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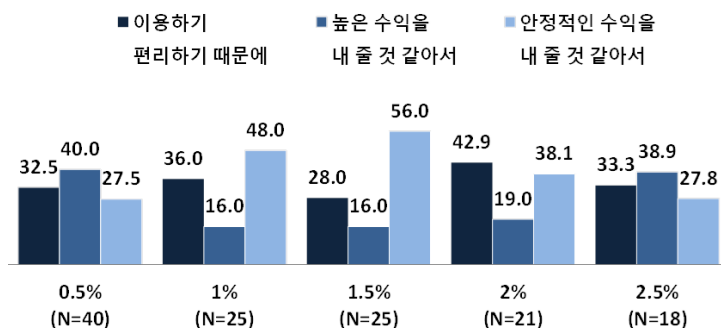
6) 수수료 수준별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로 수수료 수준 0.5% 그룹의 경우, 높은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40.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리고 1%, 1.5% 그룹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각 48.0%, 56.0%), 2% 그룹의 경우,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42.9%), 2.5% 그룹의 경우, 높은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38.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70〉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N=129 / 단위: %)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인 경우, 2.0%(42.9%), 1.0%(36.0%), 2.5%(33.3%), 0.5%(32.5%), 1.5%(28.0%)의 순으로 나타남.
- 높은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의 경우, 0.5%(10.0%), 2.5%(38.9%), 1.0%(16.0%), 1.5%(16.0%), 2.0%(19.0%)의 순으로 나타남.
- 안정적인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의 경우, 1.5%(56.0%), 1.0%(48.0%), 2.0%(38.1%), 2.5%(27.8%), 0.5%(27.5%)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91〉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금융 기관 선택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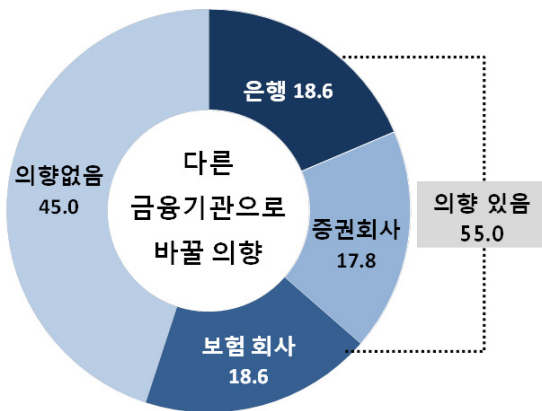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
0.5%	32.5	40.0	27.5
1.0%	36.0	16.0	48.0
1.5%	28.0	16.0	56.0
2.0%	42.9	19.0	38.1
2.5%	33.3	38.9	27.8

7)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5.0%로 의향이 없다(45.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V-71〉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N=129 / 단위: %)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이 있다 중 은행(18.6%)에 대한 응답은 남성(22.7%), 60대 이상(30.8%)과 20대(22.2%), 은퇴자(50.0%)와 블루칼라(2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이 있다 중 보험회사(18.6%)에 대한 응답은 40대(26.9%), 화이트칼라(21.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이 있다 중 증권회사(18.6%)에 대한 응답은 대도시(27.8%)와 군지역(25.0%), 20대(33.3%)와 30대(21.2%), 화이트칼라(2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92〉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단위: %)

특성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전체		18.6	17.8	18.6	45.0
응답자 성별	남성	22.7	13.6	21.2	42.4
	여성	14.3	22.2	15.9	47.6
응답자 연령	20대	22.2	33.3	18.5	25.9
	30대	21.2	21.2	15.2	42.4
	40대	15.4	7.7	26.9	50.0
	50대	10.0	13.3	20.0	56.7
	60대 이상	30.8	7.7	7.7	53.8
응답자 직업	화이트칼라	17.6	23.5	21.6	37.3
	블루칼라	26.7	20.0	13.3	40.0
	자영업	15.4	7.7	15.4	61.5
	농/임/어업	50.0	0.0	0.0	50.0
	주부	18.5	11.1	14.8	55.6
	은퇴자	50.0	0.0	0.0	50.0
	무직/기타	0.0	50.0	50.0	0.0

8)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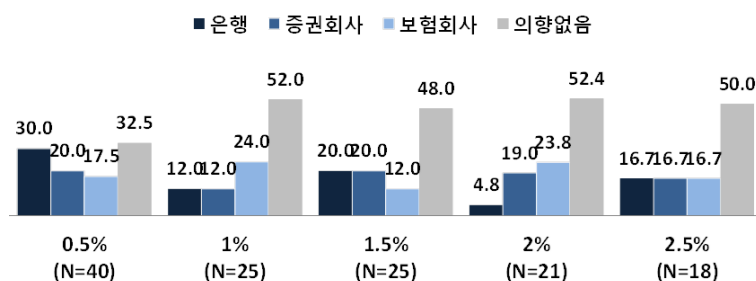
■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에 대해서 앞서 선택하지 않았던 금융 기관에서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변경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 수수료 수준 0.5% 그룹의 경우 30%가 은행으로 변경하겠다고 응답함.
- 1% 그룹의 경우 보험회사로(24.0%), 1.5% 그룹의 경우 은행(20.0%)과 증권회사로(20.0%), 2% 그룹의 경우 보험회사(23.8%)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5% 그룹의 경우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모두 16.7%를 나타냄.
 - 은행으로 옮기겠다는 응답은 0.5%(30.0%), 1.5%(20.0%), 2.5%(16.7%), 1.0%(12.0%), 2.0%(4.8%)의 순으로 나타남.

- 증권회사로 옮기겠다는 응답은 0.5%(20.0%), 1.5%(20.0%), 2.0%(19.0%), 2.5%(16.7%), 1.0%(12.0%)의 순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로 옮기겠다는 응답은 1.0%(24.0%), 2.0%(23.8%), 0.5%(17.5%), 2.5%(16.7%), 1.5%(12.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72〉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N=129 / 단위: %)



〈표 IV-93〉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금융 기관 변경 의향

(단위: %)

서비스 수수료 수준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0.5%	30.0	20.0	17.5	32.5
1.0%	12.0	12.0	24.0	52.0
1.5%	20.0	20.0	12.0	48.0
2.0%	4.8	19.0	23.8	52.4
2.5%	16.7	16.7	16.7	50.0

부 록: 설문지



코리아리서치

우)135-91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12 허버허바빌딩 3층
TEL : (02)3415-5100, FAX : (02)3415-5150, <http://WWW.KR.CO.KR>

2015년도 보험 소비자 설문 조사

ID A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매년 보험연구원이 소비자의 금융/보험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보험소비자의 수요변화 추세는 보험회사들의 상품 설계, 마케팅 정책 등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이 예상됩니다.

본 조사 자료는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응답자 성 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 소	※ 응답자 주소의 시/군/구까지 적어 주세요.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면접날짜	____월 ____일

SQ1. 거주지역	① 서울 ⑥ 대전 ⑪ 충남	② 부산 ⑦ 울산 ⑫ 전북	③ 대구 ⑧ 경기 ⑬ 전남	④ 인천 ⑨ 강원 ⑭ 경북	⑤ 광주 ⑩ 충북 ⑮ 경남
SQ2. 지역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지역		
SQ3. 성	① 남성	② 여성			
SQ4. 결혼여부	① 기혼	② 미혼			
SQ5. 세대주여부	○○님께서는 현재 ○○님 가구의 가구주이십니까? ① 예(가구주) ② 아니오(가구원)				
SQ6. 연령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본인 연령을 가구주 란에도 기재해 주세요.				
	본인 (만____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가구주 (만____세)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SQ7. 가족구성원	○○님 가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인 가구 ② 다인 가구 → 총 가족수: (____명) / 자녀 수: (총 ____명 = 아들 ____명 + 딸 ____명)				

면접원 성명		S/N확인		검증원 확인		코딩원 확인	
-----------	--	-------	--	-----------	--	-----------	--

♠ 생명보험 가입실태 ♠

문1. 본인을 포함하여 ○○님 댁(가구)에서는 현재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2번으로

② 없다  문12번으로

문2. (문1에서 ①번 응답자만) 본인을 포함하여 ○○님 댁(가구)에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2-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3	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6	교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2-8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변액유니버설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_ 건

문3.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댁(가구)에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에서 다음 항목(위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 | |
|--|---------------------|
| ①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 ② 일반질병 |
| ③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 ④ 상해 |
| ⑤ 치매 | ⑥ 사망 |
| ⑦ 저축(연금 포함) | ⑧ 교통사고(자동차, 기타 교통) |
| ⑨ 재산손실 | ⑩ 자녀(18세 미만)에 대한 보장 |
| ⑪ 기타(직접기재: _____) | |
| ⑫ 지급받은 경험 없음  문6번으로 | |

문4. (문3에서 ①~⑩번 응답자만) 보험금 지급 신청절차나 과정에서 가입당시 설계사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문4-1번으로

② 아니오  문5번으로

문4-1. (문4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해당 보험설계사나 직원의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하는 편 ③ 보통
④ 만족하는 편 ⑤ 매우 만족

문5. (문3에서 ①~⑩번 응답자만) 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 ① 3일 이하 ② 3일 초과~2주일 이하 ③ 2주일 초과~2개월 이하
④ 2개월 초과~6개월 이하 ⑤ 6개월 초과

문6. ○○님(본인)께서는 현재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7번으로 ② 없다 ➡ 문12번으로

문7. (문6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 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 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7-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3	종신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6	교육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7-8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변액유니버설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변액종신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보기1) 가입 경로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직접기재: _____)	)

(보기2) 가입 이유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④ 노후자금 마련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⑦ 기타(직접기재: _____)	)

문8. [보기카드 3] ○○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2년~2014년) 가입하신 생명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

(보기3)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 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현재 보험해지인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최근 3년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9번으로 가세요.**

보험 상품 종류		가입 회사 (보기3)	가입 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8-1	질병치료중점보장보험(암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8-2	재해중점보장보험		①	②	③	④	⑤
8-3	종신보험		①	②	③	④	⑤
8-4	저축성보험(저축중심, 보장성 저축)		①	②	③	④	⑤
8-5	연금보험(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제외)		①	②	③	④	⑤
8-6	교육보험		①	②	③	④	⑤
8-7	치명적 질병보험(CI)		①	②	③	④	⑤
8-8	변액 보험	변액연금	①	②	③	④	⑤
		변액유니버설	①	②	③	④	⑤
		변액종신	①	②	③	④	⑤
8-9	㉹ 가입한 보험 상품이 없음 문9번으로						

(보기3) 보험 회사	
①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② 삼성생명 ③ 교보생명
④ 흥국생명 ⑤ 현대라이프(구 녹십자생명) ⑥ 신한생명 ⑦ 동부생명	
⑧ 동양생명 ⑨ DGB생명(구 우리아비바, 구 LG생명) ⑩ KDB생명	
⑪ 미래에셋생명 ⑫ 하나HSBC(구 하나생명) ⑬ 카디프생명(구 SH&C생명)	
⑭ KB생명 ⑮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⑯ IBK연금보험 ⑰ NH농협생명	
⑱ 알리안츠생명 ⑲ 메트라이프생명 ⑳ PCA생명 ㉑ ACE생명(구 뉴욕생명)	
㉒ ING생명 ㉓ AIA생명(구 AIG생명) ㉔ 라이나생명 ㉕ 푸르덴셜생명	
㉖ 우체국 ㉗ 새마을금고 등 기타공제	
㉘ 기타(직접 기재: _____)	)

문9.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으로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생명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9-1	(자세한 설명 친절함 태도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 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9-2	(건강정보 서비스, 지속적 관심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
9-3	<u>문3에서 ①~⑪ 응답자만</u>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⑨

문10. ○○님(본인)께서는 보험사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다른 생명보험회사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문11번으로

② 아니오 문11-1번으로

문11. (문10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면 보험사를 변경하시겠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재 매월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9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에 90% 수준이라면 변경하겠다.”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에 _____ % 수준이라면 변경하겠다)

(보기5) 선호 이유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직접기재: _____)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직접기재: _____)

문13. (생명보험 관련)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보험 회사의 전화마케팅을 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14. ○○님(본인)께서 향후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 ③ 가격 경쟁력
-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 ⑥ 과거 거래경험
- ⑦ 회사규모
-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 ⑪ 기타(직접기재 : _____)

♠ 손해보험 가입실태 ♠

문15. ○○님 본인을 포함하여 ○○님 맥(가구)에서는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16번으로 ② 없다 문24번으로

문16. (문15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맥(가구)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가입한 보험 상품별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 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16-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만 해당)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6-2	장기손해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종합(재물+상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어린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6-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6-4	통합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6-5	기타 (직접기재 : _____)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문17. ○○님 본인을 포함한 ○○님 맥(가구)에서 가입하신 손해보험에서 다음 항목(위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중증질병(암, 심혈관질환 등) ② 일반질병 ③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④ 상해 ⑤ 치매 ⑥ 사망
 ⑦ 저축(연금 포함) ⑧ 교통사고* (자동차, 기타 교통)
 ⑨ 재산손실 ⑩ 자녀(18세미만)에 대한 보장
 ⑪ 기타(직접기재 : _____) ⑫ 지급받은 경험 없음 문18번으로

* 교통사고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도 포함

문18. ○○님(본인)께서는 현재 가입한 손해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19번으로 ② 없다 문24번으로

문19. (문18에서 ①번 응답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해당 보험 상품의 가입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경로(보기1)와 가입 이유(보기2)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가입경로와 가입 이유는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보험상품 종류			가입 여부	가입 건수	가입 경로 (보기1)	가입 이유 (보기2)
19-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9-2	장기 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종합(재물+상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어린이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9-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9-4	통합보험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19-5	기타(직접 기재 : _____)		① 가입 ② 비가입	___건		

(보기1) 가입 경로

- | | |
|-----------------------|---------------|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 ② 대형법인대리점(GA) |
|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 ④ 인터넷 |
|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 ⑥ 은행, 증권회사 등 |
|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 ⑧ 대형 할인점 |
| ⑨ 기타(직접 기재: _____) | |

(보기2) 가입 이유

- | | |
|---------------------|-----------------------|
| ① 위험에 대비한 보장 | ②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수단 |
| ③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수단 | ④ 노후자금 마련 |
| ⑤ 자녀에게 유산상속 목적 | ⑥ 타 금융상품과 비교한 세제혜택 유리 |
| ⑦ 기타(직접 기재 : _____) | |

문20. [보기카드 6] ○○님(본인)께서 최근 3년 내(2012년~2014년) 가입하신 손해보험 상품 종류와 보험회사 (보기6)를 말씀해 주시고, 가입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해 계약 시 기대했던 상품 내용(가격 및 서비스 등 전반적 만족도) 대비, 가입 후 실제 상품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 같은 보험종목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요한 보험상품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최근 3년내 가입하신 상품이 없으시면 문 21번으로 가세요.

보험상품종류		가입 회사 (보기6)	가입상품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20-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20-2	장기 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②	③	④	⑤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②	③	④	⑤
		종합(재물+상해)	①	②	③	④	⑤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⑤
		어린이보험	①	②	③	④	⑤
20-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1년 이내)		①	②	③	④	⑤
20-4	통합보험		①	②	③	④	⑤
20-5	기타(직접기재 _____)		①	②	③	④	⑤
20-6	☑ 가입한 보험 상품이 없음 ❌ 문기번호로						

(보기6) 보험 회사	
① 삼성화재 ② 현대해상 ③ LG손해보험(구 LG화재) ④ 동부화재	
⑤ 메리츠화재(구 동양화재) ⑥ 한화손해보험 ⑦ 롯데손해보험(구 대한화재) ⑧ MG손해보험(구 그린손해보험) ⑨ 흥국화재(구 흥국쌍용화재) ⑩ AIG손해보험(구 차티스, AHA손해보험) ⑪ 에이스(ACE)화재 ⑫ NH농협손해보험	
⑬ AXA손해보험(구 교보AXA손해보험, 구 교보자동차보험) ⑭ 더케이손해보험회사(구 교원나라 자동차보험) ⑮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⑯ 현대하이카다이렉트	
⑰ 우체국 ⑱ 기타공제	
⑲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1. (문19-1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회사(손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으로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문24번으로 가세요.

항목	자동차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하는편	보통	만족 하는편	매우 만족	
21-1 (자세한 설명 신속한 계약절차 등 계약체결할 때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1-2 (날씨정보제공, 사고위험정보제공 등 계약을 유지하는 중 제공된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1-3 ☞ 사고 또는 보상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신속한 사고처리 등) 보상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⑨

문22. (문19-1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님께서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로 얼마를 내십니까?

※ 2대 이상일 경우, 1대당 평균 보험료로 응답해주세요.

(연간 1대 당 자동차보험료 _____ 만 원)

문23. (문19-1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① 보험료 **☞ 문23-1번으로**
- ② 자동차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 **☞ 문23-2번으로**
- ③ 특별한 이유 없음 **☞ 문23-3번으로**

문23-1. (문23에서 ①번 응답자만) 현재 가입하고 계신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① 본인의 인터넷 검색
- ② 지인의 소개
- ③ 자동차보험회사의 광고(TV/라디오, 온라인 등)
- ④ 자동차보험회사의 전화 마케팅
- ⑤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3-2. (문23에서 ②번 응답자만)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23-3번으로**
- ② 아니오 **☞ 문24번으로**

문23-3. 비싸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예 **문23-4번으로**

② 아니오 **문23-5번으로**

문23-4. (문23-3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럼, 선생님께서 보험료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면 보험사를 변경하시겠습니까?

※ 예를 들어 현재 매월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인데 9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에 90% 수준이라면 변경하겠다.”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에 _____ % 수준이라면 변경하겠다)

문23-5. (문23-3에서 ②번 응답자만) 자동차보험회사를 변경하지 않으시겠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회사에 대한 신뢰성 ② 상품을 권유해준 사람과 인간적 관계
③ 제공된 서비스 만족 ④ 회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
⑤ 사회적 책임활동(공익을 위한 활동) ⑥ 기타(직접 기재 : _____)

문24. ○○님(본인)께서는 향후 1년 내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 시(보험가입 의향 ③, ④번 응답자) 어느 경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보험 상품별로 가입 의향과 선호하는 가입경로(보기4), 선호 이유(보기5) 2가지를 보기를 참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향후 보험 가입 의향				선호 가입경로 (보기4)	선호 이유(보기5)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많다		이유1	이유2
24-1	자동차보험(개인용 승용차)	①	②	③	④			
24-2	장기 손해 보험	상해(운전자보험 등)		①	②	③	④	
		건강(의료비, 질병 등)		①	②	③	④	
		종합(재물+상해)		①	②	③	④	
		저축성 보험(개인연금 포함)		①	②	③	④	
		어린이보험		①	②	③	④	
24-3	상해보험(여행, 교통상해 등)	①	②	③	④			
24-4	통합보험	①	②	③	④			
24-5	기타(직접 기재 : _____)	①	②	③	④			

(보기4) 선호 가입 경로

- ①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② 대형법인대리점(GA)
③ 보험회사 임직원 등 ④ 인터넷
⑤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⑥ 은행, 증권회사 등
⑦ TV 쇼핑채널(홈쇼핑) ⑧ 대형 할인점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보기5) 선호 이유

- ① 가입이 편리해서 ② 가격이 저렴해서
- ③ 정보획득이 용이해서 ④ 재무설계 등의 전문성 때문에
- 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⑥ 권유자와의 친분 때문에
- ⑦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⑧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25. (손해보험 관련)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보험 회사의 전화마케팅을 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6. ○○님(본인)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③ 가격 경쟁력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⑥ 과거 거래경험
 ⑦ 회사규모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설계 능력
 ⑪ 기타(직접기재 :)

♠ 실손의료보험 ♠

문27. 현재, ○○님의 건강상태는 동년배(또래 연령층)와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문28. ○○님(본인)께서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종류는 아래 중 무엇입니까?

- ① 직장 건강보험 ② 지역 건강보험
③ 의료급여 ④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정지
⑤ 국가유공자 특례 ⑥ 미가입

문29. ○○님(본인)께서 지난 1년 동안(조사시점 기준으로부터) 가입했던 개인 혹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으십니까?

* 실손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는 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

- ① 있다(개인 실손의료보험) ➡ 문30번으로
② 있다(단체 실손의료보험) ➡ 문30번으로
③ 없다 ➡ 문37번으로

문30.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유형과 회사의 종류를 아래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문30~36번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기준으로 응답

30-1	실손의료보험의 유형	① 단독형*	② 특약형**
30-2	보험회사의 종류	① 생명보험사 ③ 우체국 및 기타 공제	② 손해보험사

* 단독형 : 다른 보장내역 없이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구성되어 단독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

**특약형 : 실손의료보험을 사망, 후유장애 등 다양한 보장에 추가로 부가하여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문31.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갱신 주기는 무엇입니까?

- ① 1년 ② 3년
③ 5년 ④ 비갱신형

문32.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가입
 ②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임직원 등
 ③ TV 쇼핑채널(홈쇼핑) ④ 보험회사 통신판매(전화/우편/카드)
 ⑤ 은행, 증권회사 등 ⑥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33.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현재 보험회사를 선택한 이유 두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저렴한 보험료 ② 보험회사의 서비스와 신뢰도
 ③ 편리한 가입절차 ④ 주변 사람의 권유
 ⑤ 광고를 통해 많이 접해서 ⑥ 특별한 이유 없음

문34.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의료비*의 몇 %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본인이 직접 지불한 의료비의 몇 %를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으셨습니까)?

* 비급여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의료비로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납입한 금액

- ① 100%(전액보상) ② 90% ③ 80%
 ④ 기타(_____%) ⑤ 모름

문35. ○○님(본인)께서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다음의 각 항목들에 대해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으로 1점에서 5점 사이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실손의료보험사 제공 서비스 만족도					해당 사항 없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35-1 계약 체결시 제공된 서비스 (자세한 설명, 친절함, 태도, 신속한 계약 절차 등)	①	②	③	④	⑤	
35-2 보험금 청구 신청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청구 절차의 간편함	①	②	③	④	⑤	⑨
35-3 보험금 청구 신청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신속한 보험금 처리	①	②	③	④	⑤	⑨

문36. ○○님께서는 실손의료보험료로 한 달 평균 얼마를 내십니까?

※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 기준으로 작성해주시오.

(월 : _____ 만 원)

문37. (문29에서 ③번 응답자만) ○○님께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 ① 국민건강보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②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③ 가입 절차가 번거로워서 ④ 가입을 거절당해서
 ⑤ 현재는 건강하여 필요성을 못 느낌 ⑥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38. (문29에서 ③번 응답자만) 그럼, ○○님께서는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정년제 ♠

문39. ○○님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는 정년제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40. 정년제가 귀하에게 적용됩니까? (적용된다면) 귀하에게 적용될 정년은 몇 세입니까?

※ '① 적용된다'고 응답하고 그 정년이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는 '문47'로 갈 것

- ① 적용된다 (만 _____ 세) ② 적용되지 않는다

문4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다면 이에 동의하십니까?※
응답자의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문47'로 갈 것

- ① 예 ☞ 문43으로 ② 아니오 ☞ 문42로

문42. 정년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년실업,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늘여서는 안된다
 ② 국민연금을 수급할 때 까지는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현재 61세)
 ③ 최소 65세는 되어야 한다
 ④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43.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 향후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된다면 **○○님께서** 60세까지 다닐 계획입니까?

- ① 예 **문44로** ② 아니오 **문43-1로**

문43-1. 정년연장 되어도 60세까지 다니지 않을 계획이라면 ○○님께서 몇 세쯤 퇴직을 생각하십니까? (만_____세)

문43-2. 정년연장 하더라도 조기퇴직할 계획이라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① 건강상 문제 ②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③ 현재 하는 일이 싫어지거나 보람을 못 느껴서
 ④ 직장상사 등과의 관계 악화 ⑤ 연금 등 은퇴 후 생활비의 여유 확보
 ⑥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44. 정년연장이 된다면 회사에서의 채용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예 **문44-1으로** ② 아니오 **문45로**

문44-1.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 ①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
 ②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
 ③ 어떻게든 기존의 정년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려 할 것이다
 ④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45.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 ① 예 **문45-1로** ② 아니오 **문46으로**

문45-1.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면 귀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예상합니까? ※ 최종보수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 ① 90% ② 80% ③ 70%
 ④ 60%이하 ⑤ 기타(직접기재: _____)%

문46. **○○님께서** 정년이 연장되어 근로기회가 증가한다면 노후를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금융상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문46-1로** ② 없다 **문46-2로**

문46-1. 구입할 계획이라면 **○○님께서** 어떤 금융상품을 구입할 것인지요?

- ① 적금, 저축 ② 부동산 ③ 펀드
 ④ 연금저축 ⑤ 연금보험 ⑥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46-2. (문46번에서 ②번 응답자만) 추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모자랄 것임
- ②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 등에 사용할 것임
- ③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게 될 것임
- ④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될 것임
- ⑤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47.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시까지 연금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예, 향후 국민연금 수급은 65세까지 늘어날 계획) ○○님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즉, 50대 중반에서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연금을 집중해서 받도록 하는 연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48. ○○님께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을 구입하거나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① 예 문50으로
- ② 아니오 문48-1로

문48-1. (문48번에서 ②번 응답자만) 개인연금상품을 구입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요?

- ①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 ② 국민연금 수급개시기 까지만 보장한다면 보장기간이 짧아서
- ③ 개인연금보다 부동산 등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때문에
- ④ 추가적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 ⑤ 기타(직접기재: _____)

문48-2. 그럼 어떤 조건일 경우 ○○님께서 이러한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 ① 연금저축(세제적격)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현행 세액공제율 12%보다 높은 15%는 되어야 한다
- ②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비과세)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기준금액이 현행 2억에서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 ③ 연금저축(세제적격)을 과거와 같이 소득공제방식으로 해 주어야 한다
- ④ 기타(직접기재 : _____)

- 문49. 앞의 **문48-2번에서**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이 설계된다면, 추가적인 세제가 주어지는 개인연금에 월 얼마로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요? (월 _____ 만 원)

♠ 빅데이터 관련 ♠

[문50~50-1 관련]

※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개인의 건강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고객은 보험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의료, 건강, 쇼핑, 레저 분야의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문50. **○○님께서**는 위 설명문의 경우처럼 보험회사에 실시간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제휴 업체로부터 할인이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51로** ② 없다  **문50-1로**

- 문50-1. **○○님께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당상품의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③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문51~51-1 관련]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게 되면 개인의 운전행태에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험회사에 전달된다. 보험회사는 개인의 운전행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활용해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에게 저렴한 보험료를, 그리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고객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 문51. **○○님께서**는 위 설명문의 경우처럼 개인의 운전행태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보험상품에 가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52로** ② 없다  **문51-1로**

문51-1. ○○님께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해당상품의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②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
③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④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 주택연금 선호도 및 선택요인 등 ♠

문52. 현재 ○○님께서 살고계신 집의 거주형태와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자가의 경우, 거래시가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 ① 자가 (_____만 원)
② 전세 (보증금 : _____만 원)
③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 _____만 원 / 월세 : _____만 원)
④ 보증금 없는 월세 (월세 : _____만 원)

문53. ○○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54번으로** ② 없다  **문55번으로**

문54. ○○님께서는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55.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부 금융 기관을 통해 주택소유자 기준 만 60세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주택연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현재 혹은 향후에 주택연금을 사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현재 가입하고 있음  **문57번으로**
②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  **문56번으로**
③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없음  **문57번으로**

(참고: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일반주택, 중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 만 원)

주택가격 연령	1억 원	3억 원	5억 원
60세	23	68	114
70세	33	99	164
80세	51	152	253

문56. (문55에서 ②번 응답자만)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준비상태로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 ② 주택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 ③ 노후생활비용을 줄이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④ 주택연금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 ⑤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⑥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 ⑦ 기타(직접 기재 : _____)

문57. ○○님 택(가구)에서 현재 보유하신 금융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유하신 금융상품과 납입금액을 말씀해주세요.

※ 같은 종류의 보험이 2개 이상인 경우, 월 납입액은 합산으로 말씀해주세요.

	금융상품	보유 여부	납입금액
57-1	은행 예적금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2	연금저축(은행) / 연금펀드(증권)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3	저축보험 / 연금보험 (보험회사)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4	보장성 보험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5	채권 및 채권형 펀드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6	주식 및 주식형 펀드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7	부동산 임대소득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57-8	기타(직접 기재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 노후소득, 자산관리(은퇴,노후생활) 등 ♠

문58. ○○님께서는 노후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소득은 현재 소득 수준의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의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저축에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현재 월 소득의 _____%)

문59. ○○님께서는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현재 얼마 정도를 저축하고 계십니까?

(매월 _____만 원)

문60. ○○님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노후소득의 얼마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노후소득의 _____%)

문61. ○○님께서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노후 소득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일 예로 답하신 경우 월별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노후 소득원		필요성	월별 예상금액
61-1	본인이 준비한 노후생활자금 ((예)적금, 연금, 각종 투자수익)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61-2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61-3	자식의 경제적 지원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61-4	기타 소득	① 예 ② 아니오	_____만 원

문62. ○○님께서 노후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향후 투자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평소 투자성향이 어떤 유형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격투자형 ② 중립투자형 ③ 안전투자형

문63. ○○님께서는 본인이 평가하기에 노후준비를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하고 있다  [문65번으로](#) ② 잘 하고 있다  [문65번으로](#)
 ③ 보통이다  [문65번으로](#) ④ 잘 못하고 있다  [문64번으로](#)
 ⑤ 전혀 못하고 있다  [문64번으로](#)

문64. (문63에서 ④,⑤번 응답자만) 그러면, ○○님께서는 노후준비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양육비 때문 ④ 과도한 주택마련 자금
 ②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
 ③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서 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
 ⑥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⑦ 자동차, 가구 등의 내구재 구입
 ⑧ 중장정산으로 퇴직금 적립액 감소
 ⑨ 투자실패나 사업실패 ⑩ 기타(직접기재 : _____)

♠ 연금제도 ♠

문65. **본인을 포함한 ○○년 맥(가구)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만일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자, 가입연금 만족도, 납입보험료, 가입 금융회사, 가입기간 등에 대해 아래의 각 항목별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분		(A)	(B)	(C)	(D)	(E)	(F)
연금제도 종류		가입 여부	가입자 (복수응답)	만족도 (보기7)	납입 보험료(월)	가입 금융회사 (보기8)	가입 기간 (보기9)
65-1	국민연금	①가입 ②비가입	①본인 ②가족		___만 원		
65-2	기타공적연금 (공무원·교직원·군인연금)	①가입 ②비가입	①본인 ②가족 **		___만 원		
65-3	직장의 퇴직연금제도	①가입 ②비가입	①본인 ②가족 **				
65-4	개인연금보험·연금저축·연 금신탁(보험회사·은행·투신 농협 등)	①가입 ②비가입	①본인 ②가족 **		___만 원		

* (B) 가입자 구분 - 가족은 본인 제외 가족을 의미

** (C), (D), (E), (F) 만족도, 납입 보험료, 가입 금융회사, 가입기간 - 본인과 가족이 복수로 가입한 경우 가입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응답

(C)(보기7)	< 만족도 >
매우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E)(보기8)	< 가입 금융회사 >
① 은행 ③ 손해보험회사 ⑤ 우체국 또는 새마을금고 ⑦ 기타(직접기재: _____)	② 생명보험회사(농협생명 포함) ④ 증권회사(투자신탁회사) ⑥ 잘 모름

(F)(보기9)	< 가입 기간 >
① 1년 미만 ④ 5년 ~ 6년 ⑦ 10년 초과	② 1년 ~ 2년 ⑤ 7년 ~ 8년 ③ 3년 ~ 4년 ⑥ 9년 ~ 10년 이하

※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금형 제도는 회사 외부에 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회사의 역할을 대신하여 적립금을 운영 및 관리하는 제도이며, 적립금 운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문66. ○○○님께서 향후 퇴직연금에 가입하신다면 어떠한 종류에 가입하실 생각이십니까?

※ 계약형 퇴직연금 : 회사가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연금제도

※ 기금형 퇴직연금 : 회사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만든 기금위원회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연금제도

- ① 계약형 퇴직연금 ② 기금형 퇴직연금

문67. ○○○님께서는 정부가 기금형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세제지원 ② 기업의 비용부담 ③ 최저 수익률 보장
④ 원리금보장 ⑤ 정부의 철저한 감독

문68. ○○○님께서는 기금형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 관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금위원회 설치시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 ① 회사내부에 설치 ② 회사외부에 독립기구 설치
③ 노동조합에 설치 ④ 공공기구가 관리

문69. ○○○님께서는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어떠한 퇴직연금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확정급여형(퇴직급여가 확정된 연금)에서 도입
② 확정기여형(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고 가입자의 자산운용에 연동하는 연금)에서 도입
③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에서 도입

♠ 노후소득, 자산관리(은퇴, 노후생활) 등 ♠

문70. ○○님께서는 미래의 노후소득 발생을 위해 일정 금액의 노후 소득 목표액(예를 들면, “나는 은퇴이후 한 달에 △△만 원을 연금으로 받겠다.”)을 설정해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고 계십니까?

- ① 구체적인 계획만 있다 ②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③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떤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서비스로는 앞으로의 소득을 이용하여 노후자금 형성을 돕는 재무설계 서비스와 지금까지 형성하신 자산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자산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 및 실행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단기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집합투자 상품(펀드)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문71. ○○님께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계 및 실행을 위해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재무설계 서비스 혹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 [문71-1번으로](#)
②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 [문71-2번으로](#)
③ 어떤 서비스도 이용 의향이 없다 [DQ1번으로](#)

문71-1. ○○님께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재무설계 서비스 수수료가 매월 납입액의 0.5% 수준이라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이용하실겠습니까?

- ① 이용하겠다 [문72번으로](#) ② 이용하지 않겠다 [DQ1번으로](#)

문71-2. ○○님께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가 매년 전체 운용 금액의 0.5% 수준이라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겠습니까?

- ① 이용하겠다 [문72번으로](#) ② 이용하지 않겠다 [DQ1번으로](#)

문72. ○○님께서 운용금액의 0.5%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무설계 혹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신다면 어느 금융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실겠습니까?

- ① 은행 ② 증권회사 ③ 보험회사
④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73. 앞서 ○○님께서 재무설계 혹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금융 기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 ② 수익률의 큰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높은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
- ③ 수익률의 매우 높지는 않지만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 줄 것 같아서
- ④ 기타(직접기재 : _____)

문74. 앞서 ○○님께서 선택하신 금융 기관 이외의 다른 금융 기관에서 기존 선택하신 금융 기관보다 (0.25% 포인트 저렴한) 0.25%의 운용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수수료가 저렴한 다른 금융 기관으로 선택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앞에서 선택하신 금융 기관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바꿀 의향이 없다
- ② 은행이 0.25% 포인트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은행으로 바꾸겠다
- ③ 증권회사가 0.25% 포인트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증권사로 바꾸겠다
- ④ 보험회사가 0.25% 포인트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한다면 보험사로 바꾸겠다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DQ1. ○○님 본인과 세대주의 직업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세대주의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직업을 동일하게 작성

본인: () / 세대주: ()

- ① 임금 근로자  DQ1-1번으로 ② 자영업자  DQ1-2번으로
③ 주부 ④ 은퇴자
⑤ 무직/기타 ⑨ 모름/무응답

DQ1-1. (DQ1에서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십니까?

본인 : () / 세대주 : ()

- ① 경영/관리직 ② 전문/자유직
③ 사무/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생산/기능직 ⑥ 단순노무
⑦ 농/임/어업

DQ1-2. (DQ1에서 ①,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소속된 회사의 종업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 / 세대주: ()

- | | |
|--------------|--------------|
| ① 10인 미만 | ② 10 ~ 29인 |
| ③ 30 ~ 99인 | ④ 100 ~ 299인 |
| ⑤ 300 ~ 499인 | ⑥ 500인 이상 |

DQ1-3. (DQ1에서 ②번 응답자만) 그럼,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본인: () / 세대주: ()

- | | | |
|-------------|-------------------------|-------------|
| ① 제조업 | ② 도매 및 소매업 | ③ 운수업 |
| ④ 숙박 및 음식점업 | ⑤ 금융 및 보험업 | ⑥ 부동산 및 임대업 |
| ⑦ 교육 서비스업 | ⑧ 개인 서비스업(세탁소, 아·미용실 등) | |
| ⑨ 기타() | | |

DQ2. 실례하지만, ○○님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학력을 동일하게 작성해주시요.

DQ2-1. 본인의 학력	DQ2-2. 세대주의 학력
① 중졸이하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③ 대졸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④ 대학원 이상
⑤ 모름/무응답	⑤ 모름/무응답

DQ3. ○○님의 개인 연간 총수입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 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 수입은 보너스 등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만 원)

DQ4. 귀하의 소득을 포함한 ○○님 댁(가구)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 소득을 포함한 연간 총 수입은 보너스 등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 여기에서 가구는 동일 거처에 생계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의 단위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외지에 살고 있는 가족(주말부부, 학생, 군인 등)도 포함됩니다.

() 만 원)

DQ4-1. ○○님 댁(가구)의 연간 총수입 가운데 얼마 정도를 저축 또는 투자 (납입보험료 포함)하고 계십니까?

(연간 총수입의) %)

DQ5.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님 댁(가구)의 한 달 납입보험료는 얼마나 되십니까?

(월간 _____ 만 원)

DQ6. 가구주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일 경우, 본인의 성별을 기준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 ① 남성 ② 여성

DQ7. ○○님 댁(가구)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현재 어떤 신분입니까? **(복수응답)**

- ① 미취학자녀
 ② 학생(초, 중, 고교)
 ③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④ 생업종사(근로 혹은 사업 등)
 ⑤ 군 복무
 ⑥ 기타(직접기재: _____)
 ⑦ 자녀 없음

DQ7-1. ○○님 댁(가구)에 최근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인 이상 ⑥ 없음

DQ7-2. ○○님 댁(가구)의 가구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인 가구 ② 부부가구 ③ 부부와 자녀
 ④ 한부모와 자녀(이혼이나 사별로 한 쪽 부모만 함께 사는 경우)
 ⑤ 3세대 가구(조부모, 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⑥ 4세대 이상 ⑦ 조손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⑧ 비친족가구 ⑨ 기타(직접기재 : _____)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정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조재린, 이경아 2015.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정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조재린,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황진태, 이선주 2015.3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원, 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정원석, 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박춘원, 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박선영, 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김미화 2015.5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류건식, 정원석 2015.2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김 석 영

Arizona University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kim@kiri.or.kr)

임 준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limjoon@kiri.or.kr)

박 선 영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young1002@kiri.or.kr)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정 원 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전 성 주

Bos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chun@kiri.or.kr)

오 승 연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h@kiri.or.kr)

이 상 우

홍익대학교 보험학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swlee@kir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이 혜 은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lhe@kiri.or.kr)

조사보고서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발행일 2015년 8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28-2 94320
979-11-85691-02-2 (세트)

정가 10,000원